

碩士學位請求論文

開化期 討論體 小說 研究

指導教授 文 聖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김 경 님

1997年 8月

開化期 討論體 小說 研究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김경님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심사위원장 김 경 양
심사위원 안 성淑
심사위원 文 聖 淑

開化期 討論體 小說 研究

김 경 님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연구는 개화기에 산출된 토론체 소설의 전반적인 면모를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토론체 소설의 개념 규정 및 그 범주 설정, 그리고 이 소설의 발생 배경과 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그 유형들을 분류하여 체계화를 모색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또 이 양식이 지니는 특징들을 추출하기 위해 서사구조, 작중인물, 기법, 주제 면을 작품 내에서 분석·고찰하고, 나아가 문학사적 의의를 정립하여 국문학사에서 독자적인 한 영역을 구축하는 서사 양식임을 밝히고자 했다. 본론에서 전개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화기 토론체 소설은 1905~19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양식으로, 형식상 두 사람 이상이 등장하여 토론이나 연설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고, 내용상 투철한 현실 인식 및 강한 주제 의식을 담고 배태된, 시기상 신소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성행했던 특이한 서사 양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제형식을 통하여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주제를 강하게 표출해 낸 일련의 작품들이 이에 속한다. 토론체 소설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쫓겨있지만 그 당시 유행하던 토론회·연설회의 토론이나 연설의 주제와 토론체 소설의 주제가 대동소이한 점을 보아 당대의 토론회·연설회의 영향이 직접적인 주요 발생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의 범주에 드는 작품들을 토론 방식과 담화 유형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여러 인물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의견 대립을 거치며 각자의 주장을 펴는 토론형, 회장과 회원 여럿이 모여 회의하는 것과, 회의 형식을 취하면서 연사와 청중으로 나뉘어 한 사람씩 연단에서 연설하

* 이 논문은 199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는 회의(연설)형, 두 사람이 마주앉아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거나 화자나 청자가 따로 설정되어 서로 묻고 답하는 대화(문답)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토론체 소설의 양식적 특징을 고찰해 보면, 서사구조는 거의 액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서두 부분에는 작중인물들의 토론, 연설, 대화 등이 시작되기 전에 작가의 서술이 이루어지는 도입 액자, 작중인물간의 토론, 연설, 대화 등이 시작되어 끝나는 부분이 내부 이야기, 작중인물들의 토론, 연설, 대화 등이 모두 끝나고 작가가 개입하여 평설적 가치 판단 또는 노래로 압축된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 종결 액자로 되어 있다. 작중인물은 그 인물 설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토론, 연설, 대화에 참여하는 대상이 남성만 또는 여성만을 등장시키거나 금수들을 내세워 시대의 문제를 제기하게 한 것이다. 이는 작가의 계획과 의도 하에 설정된 인물로 작가 의도에 충실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소설에 주로 사용된 기법은 몽유록, 우화, 풍자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기법들을 통해 현실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제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주제는 시사 토론 및 비평, 문명 개화, 국권 회복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표출했다.

개화기 토론체 소설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침략주의적 외세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식을 표출하여 나라의 위태로움을 직시했던 민족 주체적인 문학으로서 시대적 의의와 사명을 다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개화기에는 여러 단행 서사 양식이 있었지만 토론체 소설만큼 시대적 이념을 직접적이고도 강렬하게 표출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소설에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려는 토대를 마련해 다음 시대의 소설에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주었다. 전대의 고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대기적인 '전'형식의 전형적인 구조를 탈피해 소설 구성 기법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토론체 소설은 액자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아직은 액자 형태가 탄탄하게 자리잡히지 못하고 더러 실패한 형태가 보이기도 하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전대의 액자 형태를 다음 시대로 물림 해주는, 이런 계승이 있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1920년대 소설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액자소설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이 소설의 강력한 풍자 정신은 우리 문학사에서 전대의 풍자 정신의 맥을 이었고, 이를 다음 시대로 잇게 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目 次

<國文抄錄>

I. 序 論	1
1. 問題의 提起	1
2. 研究史 檢討 및 研究 方法	4
II. 討論體 小說의 形成과 類型	10
1. 形 成	10
2. 類 型	15
III. 討論體 小說의 特徵	30
1. 敘事構造	30
2. 作中人物	37
3. 技 法	42
4. 主 題	56
IV. 文學史的 意義	72
V. 結 論	75
參考文獻	78
Abstract	81
附 錄	

表 目 次

<丑 - 1> 討論 內容과 討論者	20
<丑 - 2> 會議 基本形式 具備 要素	26
<丑 - 3> 對話(問答) 參與人物 및 方式	28
<丑 - 4> 額子形 敘事構造	35
<丑 - 5> 作中人物의 類型	41
<丑 - 6> 夢遊錄의 基本構造	46
<丑 - 7> 人性批判과 관련된 禽獸	50
<丑 - 8> 諷刺方法과 內容	55
<丑 - 9> 作品 主題表出의 強度	70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개화기는 19세기까지의 봉건 체제에 대한 민족 내부의 저항과 각성 위에 서구 근대 문화의 충격이 더해져 근대화 의식이 싹뻗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근대화와 자기 보존이라는 양극적인 과제를 개화와 척사라는 상반된 시대 정신 아래서 동시에 성취해야 했던 애국 계몽 시기로 파악된다. 다시 말하면, 봉건적인 구체제에서 근대적인 신체제 사회로 전환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일본의 내정 간섭 및 통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선각적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중들에게 시대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국망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었다. 이 현실적 시대 상황을 문학적으로 반영한 것이 바로 개화기 문학이다.

이를 임화는 서구 문학의 수입과 이식의 역사¹⁾라고 하나, 그것은 서구 지향적인 관점을 전제로 한 근대화의 단면만을 본 견해로 보인다. 개화가 단지 서구 문화의 충격으로만 시작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충격에 앞서 민족 내부에서 이루어진 변화 발전의 내재적 충동이 내적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테면 조동일은 개화기 소설들은 조선조 소설들의 영향하에 놓여 있었고, 고소설들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입증한 바 있다.²⁾ 따라서 개화기 문학을 서구 문학의 모방 내지 이식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관점은 이제 그 논리적 근거를 잃게 되었다.

개화기 문학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몇 가지 사상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봉건적 가치 체계를 개량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했던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애국 계몽 사상, 의병 운동을 중심으로 표출된 민중적 혁명 사상, 사회 내적 모순의 실용적 해결을

1) 임화(1940), 『조선신문학사』, 형룡출판사, p. 6.

2) 조동일(1973), 『신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통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시도했던 실학 사상, 그리고 선진 자본가 계급에 의해 의세 의존적이고 급진적인 극단적 개화 사상³⁾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상들이 혼류된 채 표류하던 과도기적 시대 현실을 반영하는 양식으로써 개화기 소설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당시의 사회 사상으로 대두하며 전개된 한국 근대화 과정에 나타난 작품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⁴⁾

많은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이 시기에는 소설 장르에서도 새로운 양식이 발생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수한 서사 문학 양식이 나타났는데 바로 대화, 토론, 연설을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던 토론체 소설⁵⁾의 출현이 그것이다.

이 양식은 일본에 의해 강점이 시작된 을사조약 때부터 함방이 될 때까지 대략 5 ~ 6년 동안 성행하다가 소멸한 서사 양식이다. 전대 서사 문학이 토론체 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원인은 당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각종 모임이나 연설회, 토론회 형태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대 사회의 각종 단체가 활발하게 벌인 토론회나 연설회는 언어 행위로만 끝나지 않고 각종 회보나 잡지, 신문에 문자화되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점차 문학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토론체 소설이 출현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문학은 한 시대 정신의 소산이라는 명제를 받아들일 때, 개화기라는 역사상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배태된 토론체 소설에 대해 수적인 과다, 소설 미학적 가치의 유무, 그리고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한 성장과 소멸의 측면에서만 판단·평가한다면 연구의 진전

3) 황순재(1992), "개화기 소설의 장르시론", 『한국문학논총』 제13집, 한국문학회, p. 253.

4) 이 외에 개화기 소설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① 개화기에 쓰여진 소설 ② 개화기에 창작되어 발표된 소설 ③ 개화의 의지를 담고 있거나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주제나 내용을 담은 소설 ④ 개화기에 쓰여지고 발표된 것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의지가 반영된 소설 등이다. 이상의 개념들은 나름대로의 허점은 다 있으나, ④는 위의 셋에 비하면 그 시기와 내용, 주제에 의해서 한 시대의 소설을 양식화하려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김중하(1984), "개화기 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인문논총』 제25집, 부산대, p. 7 참조.)

5) 이 양식의 명칭에 대하여 논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임화(1939)는 정치소설, 김윤식(1980)은 연설의 산문화, 이재선(1976)은 회화주의적 서사체, 홍일식(1980)은 회문소설, 송민호(1975)는 대화체 소설, 송현호(1989)는 소설과 회문, 홍경표(1984)는 신소설에서 가장 앞선 담화체 소설로 파악하고, 김중하(1978), 김교봉·설성경(1991), 문성숙(1994)은 토론체 소설, 김원중(1983)은 신회곡, 김윤규(1992)는 소극, 김주현(1989)은 토론체 양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장르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필자는 이 일군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시대적 문제를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체 소설'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지금까지 개화기 소설에 대한 연구가 신소설 위주로 편향되었던 연구 풍토를 지양하기 위해서도 이 양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한동안 개화기 소설 연구에서 신소설 이전의 작품들은⁶⁾ 효용론적 문학관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소설 원론적인 관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인식되어 문학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개화기 소설 연구라면 으레 신소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그 외에 공존했던 장르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과소 평가 하거나 아예 부인하려는 태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동시대에 공존했던 여러 장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문학적 가치를 구명하는 일은 우리 문학사의 영역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적인 존재 의의와 시대적 역할을 충실히 해낸 토론체 소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지금까지 토론체 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피고 그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그 갈래 명칭을 확정하는 데 있어 논자마다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둘째, 그 범주 설정에서도 역시 논자마다 달라 체계성이 없다. 셋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텍스트 원용에서도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작품만 연구하거나, 단행본으로 출판된 작품인 경우에는 국한문혼용 작품보다 한글본 위주로 연구하여 토론체 소설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다. 넷째, 연구 태도 면에서는 주제의 탐구에 치우쳐 소설로서의 총체적인 해명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화기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에서 산출된 여러 단행 서사 문학 유형 중 토론체 소설에 대해,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고 여기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토론체 소설의 서사구조와 작중인물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여 그것이 주제 구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자 한다.

6) 여기에서는 역사·전기소설, 토론체 소설, 몽유록계 소설 등 신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 개화기 서사 문학 작품들을 의미한다.

2. 研究史 檢討 및 研究方法

1) 研究史 檢討

개화기 서사문학은 안확의 『조선문학사』(1922), 김태준의 『조선소설사』(1930), 임화의 『조선신문학사』(1940) 등으로 이어지면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신소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들이라 할 수 있다.

토론체 소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는 조연현(1966)이었다. 그는 당시 신문에 연재된 일부 무서명 소설들로 특이한 양식이 있었음을 주지시켰다.⁷⁾ 신문에 연재된 무서명 소설 중 ‘소설’이라는 표제로 발표된 작품들에 주목하여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전대의 소설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핀 바 있다.

이 양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활발해졌다. 신소설 중심의 연구 태도에서 점차 탈피해서 여타의 서사 장르인 역사·전기, 몽유록, 토론체 등으로 관심의 폭이 확대된 것이다. 관심의 핵심은 그 동안 개화기의 서사 양식 중 신소설과 같은 유형으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일군의 작품을 문학사의 사각 지대로만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개화기의 서사 양식 전반에 관해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데 선편을 든 이는 이재선(1972)이다. 그는 『한국개화기소설연구』에서 독일 문예학 이론을 포함한 서구 이론들을 인용하여 개화기 소설을 분석·평가하였다. 그 중에서 단형 서사체의 본질적 특징을 구명하고자 자이들러(H. Seidler)의 2분법인 단형 서사와 대형 서사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면서 개화기 소설을 경험적 서사체, 허구적 서사체, 회화우의적 서사체의 세 갈래로 분류했다. 그 중 회화우의적 서사체는 비판적인 욕설과 해학과 풍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토론체 소설은 이 유형에 속한다. 그는 이 양식을 서사적 성격과 극적 성격이 혼합된 원초적 희곡 형태로 보았다.⁸⁾

그 후 본격적으로 개화기 서사 문학의 양상을 밝히기 시작한 이는 조동일(1973)이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개화기 서사 문학 가운데 신소설을 제외한 많은 작품을 교

7) 조연현(1966), 『한국문학의 현장』, 어문각, pp. 26~29. 및 『현대문학개관』(1986), 이우출판사 pp. 25~29 참조.

8) 이재선(1972),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한말의 개화소설』(1975), 한국일보사. 『한국단편소설연구』(1975), 일조각. “개화기 서사문학의 세 유형”(1976), 『우촌강북수박사회잡기넘는총』, 형설출판사 등 참조.

술 문학으로 처리함으로써 문학성과 비문학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켰다.⁹⁾ 그 결과 신소설 이전에 발생한 다른 서사 양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으며 그 의미마저 축소된 느낌이다.

송민호(1975)는 개화기 소설의 초기 양상 및 전환 과정을 개별 작품의 내용과 형태적 분석을 통해 해명을 시도하였다.¹⁰⁾ 그 결과, 조선 말기의 구소설적 잔영, 한문소설의 재흥, 신문·잡지소설, 한말 정치소설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토론체 소설은 한말 정치류 소설로 보았다.

김중하(1978)는 토론체 양식에 초점을 맞춰 그 장르적 특징을 구명하고, 발생학적 연원을 밝히는 등 이 분야에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¹¹⁾ 그러나 그 연구 대상이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작품들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토론체 소설의 범주가 한정되어 논의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유양선(1979)은 개화기 서사 문학을 신소설, 전기류, 몽유록으로 분류하고 다시 작가와 작중인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설적 작품, 흥미 중심의 작품, 계몽적 성향의 작품으로 분류하였다.¹²⁾ 이 중에서 논설적 작품은 작가의 의식이 완전히 지배된 작품으로 토론체 소설의 여러 작품들을 이에 포함시켰다.

윤명구(1986)는 개화기 소설의 유형을 문학의 제시 방법과 작품의 서사구조, 작가의 의도 등을 척도로 삼아 한문소설, 전기소설, 몽유록계 소설, 토론체 소설 등으로 분류하였다.¹³⁾

조남현(1987)은 토론체 소설에 대하여 문답, 대화, 토론, 재판 등의 형식적 구분을 시도하여 서술 방법 혹은 구성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대화체 서술 양식과 연설체 산문 양식, 그리고 몽유록계 소설체라는 계열을 상정하였다.¹⁴⁾

근래에 토론체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김주현(1989)이다. 그는 토론체가 어떻게 양식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¹⁵⁾ 그러나 그의 연구는 토론체 소설의 개념

9) 조동일(1973), 앞의 책, p. 79. 그 후, 다시 동물우화 형식의 토론문으로 「禽獸會議錄」 계열과 시사 토론문으로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거부오회」, 「즈유종」 등을 통해 토론 소설의 장르 문제를 다루면서 작중인물의 성격이 창조된 경우에만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여 교술 장르와 서술 장르를 구분하는 한 기준을 내세웠다. (조동일(1994),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pp. 331 ~ 339 참조.)

10) 송민호(1975), 「한국 개화기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1) 김중하(1978), 「개화기 토론체 소설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3집, 서울대 국어국문학회.

12) 유양선(1979), 「개화기 서사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3) 윤명구(1986), 「개화기 소설의 이해」, 인하대출판부.

14) 조남현(1987), 「개화기 소설 양식의 변이현상」, 「개화기 문학의 재인식」, 지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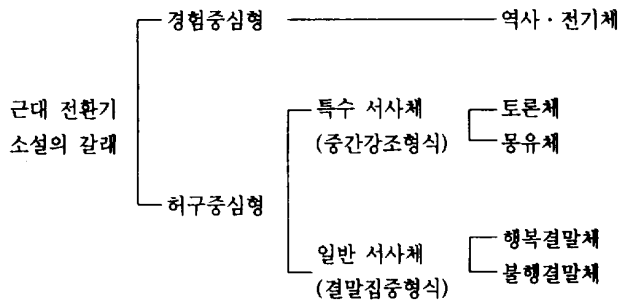
규정을 형식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고찰함으로써, 그 내용 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 이로 인하여 토론체 양식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김교봉·설성경(1991)은 이 시기의 소설을 근대 전환기 소설로 보고 그 유형을 경험 중심형과 허구 중심형으로 나누고 경험 중심형은 역사·전기체, 허구 중심형은 일반 서사체와 특수 서사체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토론체 소설을 특수 서사체의 하나로 규정했다.¹⁶⁾

최근에 문성숙(1994)은 개화기에 존재했던 소설들의 유형을 역사소설, 전기소설, 토론체 소설, 신소설, 순수소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시대에 공존했던 여러 장르들의 개념 정립 및 제양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개화기 소설류들의 문학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¹⁷⁾

이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⁸⁾ 이상과 같이 이 양식에 대한 장르 규정 문제에서부터 범주 설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또 개별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분석과 해명 작업도 병행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양식의 장르 명칭이나 범주 설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며, 작품의 해석과 평가에도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해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토론체 소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한 뒤 그 문학사적 성격도 밝혀보고자 한다.

15) 김주현(1989), "개화기 토론체 양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6) 김교봉·설성경(1991), 『근대전환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p. 88.



17) 문성숙(1994), 『개화기 소설론 연구』, 새문사.
 18) 중요한 것으로는 ① 은찬기(1987), "개화기토론체 소설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② 한강희(1987), "애국계몽기 신문연재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③ 오현식(1989), "애국계몽기 토론체소설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④ 김윤규(1992), "개화기 단형서사문학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⑤ 원미진(1993), "토론체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⑥ 김원규(1994), "개화기 토론체의 담론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2) 研究方法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토론체 소설의 전반적인 면모를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토론체 소설의 개념 규정 및 범주 설정, 그리고 이 소설의 발생 배경과 형성 과정을 검토하여 이 양식이 지니는 독자성을 밝힐 것이다. 나아가 전대의 어떤 양식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 소설이 동시대 여타의 다른 장르에 귀속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 그 유형들을 작중인물의 토론 방식과 담화 유형에 따라 세 갈래로 분류하여 토론체 소설에 대한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여 토론체 소설의 장르 개념이 명확해지고 그 양식적 특성이 밝혀지게 되면 전대의 소설과 신소설을 잇는 가교로서의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둘째, 개화기 토론체 소설의 서사구조, 작중인물, 기법, 주제 등을 작품 내에서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 서사구조는 액자소설의 구조 이론을 원용하여 그 틀에 맞춰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극적 구성 방식으로 보려왔던 관점과 회화주의적 서사체라는 등 모호한 개념들이 명확해질 것이다. 작중인물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기존의 소극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토론체 소설에서는 전대의 고소설이나 당대의 신소설들과는 달리 남녀인물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법이 없다. 남성 또는 여성, 아니면 금수들이 등장하여 토론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어 매우 독특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인물의 특이성은 작품의 서사구조와 어울려 문학사에서 이 양식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기법에서는 몽유록, 우화, 풍자의 측면에서 검토해 그 특성들을 추출해 내고자 한다. 주제는 토론체 소설들에 공통으로 표출되는 사항을 세 항목 정도로 분류하여 고찰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서 도출하고자 하는 성과는 개화기 토론체 소설의 장르 개념을 확정해 보려는 것이다. 또 토론체 소설의 범주를 점검하고, 작품 분석을 통해 그 양식적 특성을 밝혀 문학사적 의의를 정립해 보려는 것이다. 특히 서사구조와 작중인물의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개화기에 발표된 토론체 형식을 띤 여러 작품 중에서 이 소설들이 가장 성행했던 시기인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발표된 작품은 물론, 1910년대에 발표된 토론체 작품들도 포함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넷째,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토론체 양식이 주로 게재된 곳은 《조선크리스토탄회보》, 《그리스도신문》, 《한성신보》, 《독립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민보》, 《서북학회월보》, 《태극학보》, 《황성신문》 등이다. 이 중 《대한매일신보》나 《대한민보》 소재 작품들을 제외하고 여타 신문·잡지에 실린 작품들은 주로 1회 게재분으로 몇 편 되지 않거나, 내용 또한 별뜻 없이 단순 유희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형태의 작품들이다. 특히 《한성신보》는 일본인이 발행했던 신문으로, 여기에 실린 토론체 양식은 이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여타의 토론체 소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작품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토론체 소설로서 주제나 내용상 시대적 이념을 표출하지 않은 단순 유희나 무의미한 문답 양식으로 된 것들은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¹⁹⁾

이 연구에서 주 텍스트로 삼고자 하는 것은, 《대한매일신보》²⁰⁾에 연재된 「향기담화」(1905. 10),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1905. 11), 「향로방문의심이라」(1905. 12), 「거부오희」(1906. 2), 「時事問答」(1906. 3), 「디구성미리몽」(1909. 7) 등 6편과 《대한민보》²¹⁾에 연재된 「病人懇親會錄」(1909. 8), 「絶纒新話」(1909. 10) 등 2편, 단행본으로 출간된 「夢見諸葛亮」(1908. 2), 「禽獸會議錄」(1908. 10), 「警世鍾」(1909. 3), 「聖山明鏡」(1909)²²⁾ 이 작품, 「즈유중」(1910. 7), 「夢拜金太祖」(1911), 「天中佳節」(1913) 등 총 15편의 작품이다. 들 외에도 논자에 따라 일부 양식을 토론체 소설의 범주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시키거나 반대로 더 축소하여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19) 이러한 단순 문답 양식은 당시 신문·잡지에 매우 많이 실려 있다. 예를 들면, 「즈미잇는 문답」(《독립신문》 1899. 6. 20), 「년세문답」(《그리스도신문》 1901. 7. 25), 「老農談」(《황성신문》 1909. 8. 27), 「漢江舟中談話」(《황성신문》 1909. 9. 1) 등이 그것이다.

20) 이 신문은 1903년 이장훈 명의의 격일제로 발행되던 《미일신문》을 改題하여 1904년 7월 18일 창간되었다. 사장은 영국인 베델(E. T. Bethell), 총무는 양기탁으로 한·영합판회사의 세 조직체로 발족했다. 영국인이 사장인 이유는 영·일 동맹을 맺고 있어서 일본의 탄압에서 벗어나 취재와 보도 및 논설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고종도 비밀리에 출자하였고 親俄派 이용익을 포함한 여러 애국지사가 의연금을 내어 항일운동의 최선봉이 되어 출범했다.(한원영(1990), 「한국 개화기 신문연재소설 연구」, 일지사, pp. 46 ~ 47 참조.)

21) 《대한민보》는 1909년 6월 2일 사장 오세창, 발행 편집인 장효근을 중심으로 창간되었다. 창간호부터 계속해서 소설이 연재되었다. 소설의 표제에 단편소설, 소설, 풍자소설, 골재소설, 신소설 등으로 소설의 장단, 내용, 신구 등을 표시했다. 분량은 1일 1회 게재된 것이 있는가 하면, 1910년 3월 10일부터 동년 8월 18일까지 62회 연재된 「薄情花」 같은 것도 있다. 이 신문은 1910년 8월 31일까지 357호를 발간하고 나라와 운명을 같이 했다.(한원영(1990), 앞의 책, pp. 188 ~ 189 참조.)

22) 이외에 《대한민보》에 실렸던 「禽獸裁判」(1910. 6)은 원전 입수의 어려움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자에 해당하는 예로, 김주현은 앞의 논문에서 토론체 소설의 범위를 확대해 《한성신보》에 연재된 「新進士問答記」²³⁾과 「無何翁問答」²⁴⁾도 포함시켜 논의했다. 그러나 「新進士問答記」는 작중인물이 비범한 인물이나 고귀한 혈통을 지닌 영웅적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고소설에서 보이는 영웅소설과 흡사해 근대적 토론체 소설의 특징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이 두 작품들을 연재했던 신문이 친일지였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도 친일 계층의 이념을 표출하고 있어 다른 토론체 소설과는 주제나 내용 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1926년 출판된 송완식의 『蠻國大會錄』이 있으나 이는 토론체 소설의 성행기가 훨씬 지난 후에 나온 것이며, 이미 근대적 단편소설의 형태가 확립된 1920년대의 일이어서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는 난점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여러 논자들의 추정대로 『禽獸會議錄』의 ‘아류이거나 증보판일 가능성’이 짙어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후자의 예로, 김중하는 토론체 소설의 쇠잔과 잔영의 모습이 『禽獸會議錄』같은 신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²⁵⁾고 하여 이 작품을 토론체 소설의 범주에서 제외시켜 신소설로 보았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여타의 토론체 소설들과 형식과 주제 등에서 유사점이 많아 필자는 논의에 포함시켰다. 즉 현실 비판이나 사회의 개조, 변화를 직시하는 적극적인 표현 양식, 각종 토론 및 연설 형식의 차용, 효용론적 문학관 속에서 태동된 것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과 궤를 같이하는 『警世鐘』 및 『즈유종』도 함께 토론체 소설에 포함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23) 1896년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문답체 형식으로 17회 연재된 비교적 장형에 속하는 연재물이다.

24) 이 작품도 1987년 1월 22일부터 6회에 걸쳐 연재되다가 미완으로 끝난 작품이며 무하옹과 오유자의 문답이 내용의 전부이다.

25) 김중하(1978), 앞의 논문, p. 188.

II. 討論體 小說의 形成과 類型

1. 形成

1900년대는 제국주의 세력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 시기 소설이 변동기 시대 의식의 반영체라 할 때, 그 소설에 자주성, 반봉건성, 신교육에 의한 구국 이념의 실현, 서구 문물의 흡수 등을 직접 다루거나, 적어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토론체 소설의 형성은 당대의 국내외적인 정세, 국가와 민족의 존립이 위태로운 현실적 위기 의식에서 배태된 것이다. 그 당시 지식인들은 반봉건·반외세를 내용으로 하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내부적·외부적으로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특히 독립협회와 같은 사회 단체의 활동은 시대적 대세를 이끌어 가는 데 매우 주도적이었다. 독립협회는 대중 계몽 활동의 하나로서 자주 독립 사상과 민권 사상을 전파할 목적 하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토론회와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토론회의 주된 논제는 긴박한 현실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요청되었던 과제들이었다. 국가의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이거나 민중의 각성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사회 단체의 활동이 사회 계몽 운동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점차 증대되어 갔음은 일체의 대응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협회의 활발한 활동에 불안을 느낀 일제는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하였다. 또 어용단체인 황국협회를 결성하여 이를 적극 방해하고 무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로 말미암아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말았지만, 토론회나 연설회의 영향은 더욱 증폭되어 이후 만민공동회와 보안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등의 결성과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지속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대중적 계몽 운동이 적극 전개되었다. 신문의 지속적인 간행과 각 단체와 학회가 중심이 된 기관지의 발간은, 민중을 계몽하여 각성시키고 국력을 배양하여 국권을 수호하는 의지를 키우는 데 중요한 계기를 부여했

다.

1883년 《한성순보》의 창간을 시작으로 하여 《독립신문》, 《매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이 잇달아 창간되면서 언론 매체의 급증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었다. 신문의 논설란이나 기사란에 토론체로 된 기사가 게재되고, 잡보란에 연설이 많이 실리게 되면서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당대의 사회 문화적 생활로 보편화된 각종 토론회나 연설회 등의 영향으로 잠재되었던 민족 의식이 표면화되어 도출된 것들이었다.

독립협회는 1897년 8월 29일부터 토론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이 토론회는 당면한 현실 문제 중에서 특정한 주제를 선정해 놓고 찬반 양측에서 각기 토론자를 내세워 토론을 시킨 다음, 참석한 會衆이 자유로이 참여하여 논쟁을 전개하다가, 최종에 가서는 참석한 회원의 투표로써 가부를 결정하는 공개 토의 방식을 택하였다.²⁶⁾ 이 외에도 협성회²⁷⁾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도 시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자주 벌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일련의 활동이 활자화되기 시작하면서 당대의 현실을 해학과 풍자로, 때로는 우화나 풍유록 등의 기법을 차용하면서 문학적 형상화를 지향한 토론체 소설이 생산되었다. 이 양식이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시기를 토론체 소설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토론체 소설은 그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보면 본래부터 예술성·문학성의 추구보다는, 당시의 시대 이념인 개혁과 구국을 위한 이른바 애국 계몽 운동의 방편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 소설을 통해 작가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각성시켜려 노력했고, 독자들은 여러 기법을 곁들인 토론 과정이 나타난 글을 접하면서 당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소설 미학을 추구하기보다 사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체 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나 민족 관념에 대한 사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토론 양식을 가미함으로써 신문 사설이나 논설이 지니는 경직성을 벗어나 독자들과 친밀하게 만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설들은 신문 사설이나 논설의 특성인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내용을 토론이라는 양식을 통해 우회적으

26) 홍일식(1980), 앞의 책, p. 72.

27) 협성회는 1896년 11월 30일 서재필 지도 하에 배재학당 학생들이 조직한 독립협회의 자매 단체이며,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민중 계몽을 목적으로 1898년 4월초 까지 42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 (전영우(1991), 『한국 근대토론의 사적 연구』, 일지사, pp. 92 ~ 110 참조.)

로 표현한, 논설적 성격과 문학적 성격이 혼합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토론체 소설이 이 시기에 발생하게 된 배경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김종하는 우리 문학적 전통의 맥락에서 첫째 설화에서의 전승, 둘째 한문소설 또는 전대 서사문학의 영향, 셋째 개화기 신문 논설의 영향 등 세 분야에서 발생 연원을 밝히면서, 그 복합적인 영향 하에서 토론체 소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⁸⁾ 김윤식은 그 시대에 유행하던 연설의 산문화 내지는 토론의 내재화를 그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²⁹⁾ 문성숙 역시 문학 작품 내에서 사건 전개나 인물의 성격 창조를 위해 대화나 토론의 기법을 이용하는 전통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파악하여 전대 서사 문학과 토론체 소설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³⁰⁾

오현식은 김종하가 밝힌 발생 연원인 전대 설화의 전승, 개화기 신문 논설의 영향과 일치된 견해를 보이면서, 덧붙여 다른 하나의 연원을 제시했다. 그는 판소리계 소설 또는 판소리 사설과의 연관성을 들었다. 판소리 사설의 특징은 장황한 수사, 길게 부연된 사설, 모순된 에피소드를 통해 이야기 속의 여러 상황이 지닌 의미·정서를 강화 내지 확장하여 부분이나 상황의 독자적인 미와 쾌감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는 토론체 소설에 나타난 풍자적·골계적 표현 기법과 흡사하다는 것이다.³¹⁾

이와 같이 토론체 소설의 발생 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왔다. 전대의 설화, 한문소설, 또는 전대 서사 문학의 영향, 개화기 신문 논설의 영향, 동시대에 유행했던 연설의 산문화, 토론의 내재화, 판소리계 소설 또는 판소리 사설과의 연관성이 모두 토론체 소설의 발생 연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요소들의 영향도 분명한 것이지만, 더 직접적인 것은 당시 각종

28) 김종하(1978), 앞의 논문, pp. 177 ~ 183 참조. 한편 그는 토론체 소설의 쇠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소설이 가질 수 있는 변화미, 즉 사건의 기복이나 대립적 인물에 의한 갈등이 없다는 것. 둘째, 주제의 추상성이 구체미를 없앴다는 것. 셋째, 제한적 주제, 즉 한정된 주제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타의 광범위한 것들을 포용할 수 없었다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어떤 문학 양식이든 새로운 도전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용전력과 변화의 원리를 갖지 않는 한, 한 시대와 함께 물러나 뒷전에 놓이게 됨은 당연하다고 했다. (김종하(1978), "개화기소설연구 I", 『논문집』 제17집, 부산대 문리대, pp. 24 ~ 25 참조.)

29) 김윤식은 당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토론이 활발했던 것이 독립협회가 일본에 의해 해산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산문화 되었는데, 이 질적 전환이 안국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가 정치과 출신이며 『演說法方』(1908), 『禽獸會叢錄』(1908), 『共進會』(1915) 등의 저서가 연설 양식의 전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윤식(1980),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pp. 201 ~ 202 참조.)

30) 문성숙(1994), 앞의 책, p. 101.

31) 오현식(1989), 앞의 논문, pp. 11 ~ 12 참조.

사회 단체나 모임에서 연설회나 토론회를 일상적으로 개최했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특히 당대 우국 지사들이 구국이나 민중 각성을 목적으로 개최했던 토론회나 연설회 등의 영향을 주요 발생 연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각종 집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와 같이 사회에서 성행했던 토론회·연설회와 토론체 소설은 주제나 내용 면에서 많은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³²⁾ 이러한 이유로 해서 다른 발생 연원설보다 당대 사회 단체나 모임에서 일상적으로 개최했던 연설회·토론회의 영향이 토론체 소설이 형성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더욱 더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생성된 토론체 소설은 거의 같은 시기에 출현한 역사·전기소설이나 신소설과는 여로 모로 현저하게 다르다. 토론체 소설이 이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 측면으로 토론체 소설은 몇몇 단행본으로 출판된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편 서사 양식이다. 반면에 역사·전기소설이나 신소설은 중편 또는 장편 소설의 길이이다. 토론체 소설은 독자들에게 이야기의 흥미성보다는 특정한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기 어려워 그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었다. 신소설은 일정한 주제 전달 목적보다도 이야기의 흥미나 오락성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을 오래 집중시킬 수 있어서 장편의 길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역사·전기소설 또한 고소설처럼 '전'형식을 유지하여 일대기나 생애담으로 이야기를 전개했기 때문에 장편의 길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

32) 당시 토론회나 연설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협성회의 《협성회보》나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에 나타난 토론 주제를 몇 가지만 제시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전영우(1991), 앞의 책, pp. 316 ~ 323 참조.)

日 字	討 論 主 題	出 典
1896. 11. 30	정부에서 인재를 택용하려면 과거를 보임이 가함	협성회회보 제2호
1898. 3. 26	재정과 군권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곧 나라를 남에게 파는 것과 같다.	협성회회보 제12, 14호
1897. 10. 17	국문을 한문보다 더 쓰는 것이 인민교육을 성대케 하는데 유조하다.	독립신문 1897. 10. 23
1898. 1. 2	나라를 길고 멀게 태평케 하려면 벼슬하는 이들과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긴요함.	독립신문 1898. 1. 8
1898. 3. 6	대한국 토지는 선왕의 간신코 크신 업이요 이천만 인구의 사는 땅이니 한 자와 한 치라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빌려주면 이는 곧 선왕의 죄인이요 이천만 동포형제의 원수	독립신문 1898. 3. 1

이상의 토론회 주제와 토론체 소설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독립협회나 협성회에서 개최한 연설·토론회의 토론 제목과 토론체 소설의 주제 및 내용을 비교해 보면 대동소이한 점이 많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 현실 및 시대적 상황을 문학적으로 많이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신춘자(1987), “신소설에서의 현실수용양상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pp. 139 ~ 165 참조.)

로 보인다.

둘째, 내용상으로 토론체 소설은 모두 역사적 현재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역사·전기소설도 당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모두 역사적 과거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였다. 즉 과거의 거울로 현재를 재투영한 양식인 것이다. 신소설도 당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토론체 소설과 같은 대사회적인 목소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토론체 소설은 매일매일 신문 기사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과 유사한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생생한 현실감을 주었다. 토론체 소설을 가리켜 현실적인 제문제들을 비판하고 일깨워주어 시대 정신이나 시대 의지가 가장 잘 반영된 작품군으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³³⁾

셋째, 문체상으로 토론체 소설은 순국문이거나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전기소설은 대부분 국한문혼용체이며 특히 한주국종체 위주다. 신소설은 예외 없이 순국문으로 씌어 있다. 역사·전기소설의 독자는 대부분 지식인 독자들을 의식한 문체이며, 토론체 소설의 문체는 지식인 독자와 대중적 독자를 동시에 겨냥한 문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신소설의 문체는 당시의 대중적 독자를 의식한 문체인 것이다.

넷째, 토론체 소설의 작가는 대부분 익명이거나 무서명으로 발표했다. 반면에 역사·전기소설이나 신소설의 작가는 대부분 이름을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를 작가 의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토론체 소설은 당대 현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때 파생되는 외부적 압력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와, 본래 주제 의식을 강렬하게 표출하는 양식적 특성에서 비롯되어 익명이나 무서명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역사·전기소설의 작가들은 일부 지식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이념은 과거 지향적 서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하였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에 비해 사회적 압력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 신소설은 대중적 독자를 겨냥한 흥미 중심의 상업주의적인 작품들이다. 그리고 작가 의식이 확립된 상태로 씌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름을 명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과 그 자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토론체 소설은 개화기에 출현되었던 여타의 다른 장르에 귀속시킬 수 없는 양식이다. 따라서 동시대의 역사·전기소설이나 신소설과 엄격히 구분되는 장르라 할 수 있다. 토론체 소설을 하나의 독

33) 윤명규(1981), “개화기 서사문학장르”, 『신문학과 시대의식』, 김열규·신동욱편, 새문사, p. 39.

립된 장르로 인식하는 논리도 이런 바탕 위에 성립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연구의 가치도 그만큼 증대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개화기 소설 작품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소설 장르에 귀속시켰던 오류³⁴⁾를 시정하고, 다양한 작품들에 대한 세분된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출현한 서사 문학에 대해 올바른 갈래 구분과 분석 작업이 필연적으로 요청됨을 인식하게 된다.

토론체 소설은 비록 소설로서는 형식적, 내용적으로 취약성을 면하지 못했을지라도 구제도나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대의 주의·주장들을 쉽사리 수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당시 상당히 주의를 끌었던 문학 양식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토론체 소설은 단편 서사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신문에 연재되었다는 사실과, 하나의 작품 연재가 끝나면 이어 곧바로 이와 유사한 작품들이 계속 신문에 실렸던 사실을 미루어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신문의 연재소설은 독자들의 인기에 영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사실들은 그 당시 많은 독자들에게 이 양식의 작품들이 인기가 있었고,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類 型

일반적으로 개화기 토론체 소설이란, 형식상 두 사람 이상이 등장하여 토론이나 대화, 연설 형식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고, 내용상 투철한 현실 인식 및 강한 주제 의식을 담고 배태된 서사 양식으로, 시기상 신소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성행했던 특이한 서사 양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 범주에 드는 소설들은 토론 방식과 대화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작중인물들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의견 대립을 거치며 각자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토론형이 있다. 이 유형은 토론 과정을 거쳐 그 쟁점이 해결되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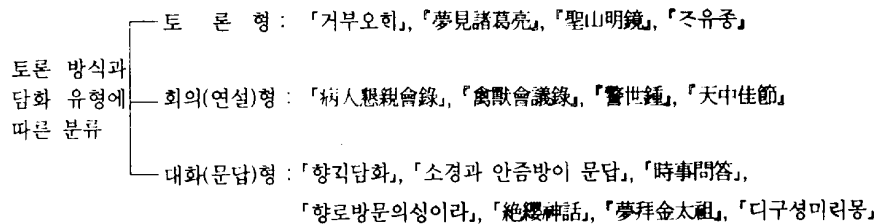
둘째, 회장과 회원 등이 선정되어 여럿이 모여 회의하는 것과, 회의 형식을 취하면서 연사와 청중으로 나뉘어 한 사람씩 연단에 나와서 말하는 회의(연설)형이 있다. 이 유형에는 토의 안건을 미리 제시해서 토의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안건의 제시 없이

34) 지금까지 『禽獸會議錄』이나 『조유중』 등을 신소설로, 『夢見諸葛亮』과 『夢拜金太祖』를 몽유 특제 소설로만 한정시켜 보려는 견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롭게 자기의 주장을 토로하는 형태도 있다.

셋째,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거나 화자나 청자가 설정되어 서로 묻고 답하는 대화(문답)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유형은 주로 2인이 등장하여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치며 나중에 그들이 원하는 결론이나 합의점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토론체 소설은 그 작중인물들의 토론 방식과 담화 유형에 따라 토론형, 회의(연설)형, 대화(문답)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 유형들은 필자가 토론체 소설의 가변적인 하위 갈래를 토론 방식과 담화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토론형은 여러 인물이 등장하여 의견을 서로 주고받거나 논의하는 작품들의 묶음이다. 회의(연설)형은 연사와 청중이 설정되어 회의 형식을 통해 연설하는 작품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대화(문답)형은 주로 2인이 등장하여 서로 말을 주고받거나, 묻고 답하는 형식의 작품들이다.

그러나 당시 모든 토론체 소설들은 위의 세 가지 갈래로만 분류될 만큼 그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각 작품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에 포함될 수 있거나, 논자에 따라 가변적으로 갈래를 더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토론체 소설의 하위 갈래를 상정할 수도 있음을 전체해 둔다. 어떤 유형이든지 현실적으로 한 가지 형태로만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모습은 다른 유형과 복합적인 의미층을 형성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이 토론체 소설에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1) 討論型

일반적으로 토론이란 실제 생활에서 야기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찬·반 양 진영으로 나뉘어 각자 의견을 말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논의하는 것을 일컫는다. 토론 방식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명확하고 공평한 규칙을 정해놓고 진행된다. 이를테면 찬·반 양론의 인원 수와 발언 시간, 발언 순서나 질문과 답변, 반론 제기 등의 기회도 양측에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토론에는 게임의 법칙이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양측에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논리적으로 사태의 본질에 접근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 과정을 거쳐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승리하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승패의 판단은 토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하거나 다수의 청중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토론이란 서로 주고받는 대화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하거나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유도해 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토론 과정이나 제문제에 대해 논란하는 모습이 작품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거부오회」는 1906년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무서명 소설이다. 이 작품은 당시 하층민 중에서 직업상 상부 계층과 자연스럽게 접촉이 가능한 인력거꾼들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 내용이다.

모처 병문에서 여러 스람드리 모야 안져 각기 소경스(所經事)로 보고들은 말을 서로 논란허는디 기 중에 인력거꾼 혼아이 7로더 나는 아모리 싱각하야도 알 슈 업는 일 혼 가지가 잇서 모단 친고의게 못나니 니가 인력거로 싱의하는 고로 남북촌 지상가도 만이 가서 보고 각처 연회의나 연설허는 곳에도 더러 가서 들은즉³⁵⁾ (대한매일신보, 1906. 2. 20)

위 인용문은 작품의 서두 부분으로, 골목 어귀의 길가에 인력거꾼들이 모여 앉아 자기가 견문한 것을 그들의 신분에서 어울리게 무지하고 우직한 비평적 안목으로 논란하고 있다. 무지한 인력거꾼의 신분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을 동료들에게 토론의 의제로 던진 것이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인력거를 끌고 각처를 다니면서 각종 집회나 연설회에도 참여하여 보고들은 것이 많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서

35) 작품 인용은 원문의 표기법을 준수하되, 띄어쓰기만 현대 어법에 맞게 고쳤음. 이하 같음.

의문을 풀 수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서로 논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
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夢見諸葛亮』³⁶⁾은 1908년 유원표에 의해 단행본으로 출판된 작품이다. 표지에 ‘밀
아자 소설’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제목 그대로 꿈 속에서 중국 삼국시대의 제
갈량과 몽유자인 밀아자가 토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당시 사대부들이 제갈량처럼
넓은 유교적 관습이나 지식만을 믿고 현실적 문제들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를 비판한
작품이다.

꿈 속에서 제갈량을 만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만 제갈량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듣
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지는 않다. 제갈량이 미소를 지으며 토론하다가도 밀아자가
조목조목 반박할 때는 “先生이 聞罷에 忽然眉宇에 慍色이 些浮야 曰” 또는 “先生이
聽罷에 兩鬢이 悚然야 執手撫背曰” 등으로 제시된 것처럼 제갈량의 안색이 달라지고
안면이 굳어진다. 밀아자도 “蜜啞子! 亦慍意가 不無야 不覺遽色而疾對曰”³⁷⁾ 등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제갈량의 말을 청취하면서도 다른 작품에
서 보이는 경청의 자세도 아니며, 단순한 질문과 대답 형식도 아닌 자신의 주장을 피
력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聖山明鏡』은 기독교 목사인 최병현에 의해 1909년 단행본으로 출판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儒·佛·仙 삼교와 기독교를 비교하여 그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우위에 있
음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과정이 주내용으로 다루어진다.

우리의 토론은 정치상 관계가 아니오 순전한 도덕계의 말씀이라 독일무이
혹신 상주를 존송하며 영성 진리의 종교를 신앙하면 믿음의 평안하고 귀운이 화
락야……다시 인간에 무엇을 구호오닛가 진도가 청파에 놀나 굴이더 서국의
문명함이 실노 예수교 덕화의 밋친 바라 하고 용단한 믿음으로 예수교 밋기를
작당히거늘 신턴옹이 더욱 깃버야 이에 네 사름이 곳 그 주리에 업더여 흠피
괴도하고 다 구세주의 신도가 되였다 하니 실노 성신의 도오심이러라³⁸⁾

작품 내에서 기독교의 신천옹, 유교의 진도선비, 불교의 원각스님, 선교의 백운도사
가 우연히 만나게 된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각기 다른 종교와 신앙의 원리에 대해

36) 『夢見諸葛亮』은 6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차례는 다음과 같다.

一. 議者謂爲非計, 二. 容或無怪十條, 三. 先生歷史演義,
四. 東上文學虛實, 五. 黃白關係真相, 六. 支那政略改良

37) 유원표(1908), 『夢見諸葛亮』, 광학서포, p. 55.

38) 최병현(1909), 『聖山明鏡』, 皇華書齋, p. 79.

서로 질문과 반박을 가하면서 토론을 전개한다. 토론 끝에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제일 우위임이 신천옹에 의해 논리적으로 증명되고 모두 기독교 신자가 되면서 작품이 끝나게 된다.

『조유종』³⁹⁾은 1910년 7월 30일 간행한 것으로 작가인 이해조 자신이 표지에 '토론 소설'이라고 규정했던 작품이다. 작중인물들이 제시된 주제에 서로 동조하거나 비판을 가하면서 토론을 전개하는 작품이다. 친구의 생일날 양반집 부녀자들이 모여 앉아 시국담을 나누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근대적인 학문의 필요성, 한자 사용에 대한 논의, 여권 신장과 여성 교육의 중요성, 자녀 교육론, 교육 제도 개선, 반상 제도, 건전한 사회 기풍 등 여러 문제를 고루 토론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 또 위정척사파, 보수주의자, 그리고 신분 질서 개혁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 작품에서는 여러 부인들의 대립된 견해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로 한 곳으로 모아지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 대립되면서 토론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곳도 보인다. 우리 고유의 한글을 쓰자는 주장에 대해 찬·반론으로 엇갈리는 부분을 보기로 한다.

여보 설현씨는 학문 설명을 자세히 하셨으나 그 성질과 형편이 그리도 미진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지식을 보통케 하려면 그 소위 무슨 변에 무슨 조 무슨 아리 무슨 조라는 옛날 상던으로 알든 중국 글을 폐지하여야 필요하겠소 대더 글이라 하는 것은 말과 쇼와 갖하서 그 나라의 범빙정신을 실어두느니 우리 나라 소위 한문은 곳 지나의 말과 쇼라 다만 지나의 정신만 시릿스니 우리 나라 사롬이야 평성을 끌고 단긴들 무슨 리익이 잇겠소……지식을 넓히려면 하필 어렵고 어려운 십 년 이십 년 밖와도 던치를 면치 못홀 한문이 쓸 터 잇소

안이오 우리 나라이 갖득 무식헌디 그남아 한문도 업서지면 슈모 세계를 만들나오 슈모란 것은 눈이 업시 시오를 싸라 단기면서 시오눈을 제 눈갓치 아느니 슈모 세계가 되면 시오는 어디 잇나 안이될 말이오 줄디에 업시호고 국문만 힘쓰면 무슨 별지식이 나릿가. 나도 한문을 좇타하는 것은 안이나 형편으로 말하면……지금 금운씨의 말과 갖치 한문을 전폐호고 국문만 쓸진디 출향전 심청전 길동전이 되겠소 괴악망측흔 쇼설이 제즈빅가가 되겠소 그는 다 나의 분격흔 말이라 나도 홍상 말하기를 조국 정신을 보존호라면 국문을 써야되겠다 호지마는 그 방법은 줄디에 계획홀 슈 업심니다⁴⁰⁾

39) 이 작품에 대해 조연현은 대화 중심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화문답서 내지 문답식 신 사상 계몽지도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조연현(1986), 앞의 책, p. 72 참조.)

40) 이해조(1910), 앞의 책, pp. 7 ~ 12.

금운 부인은 한문을 버리고 국문을 사용하여 우리 고유의 정신을 살려야지 중국 글만 배우면 중국 사람의 정신, 곧 지나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자국의 언어와 국민 정신이 직결된다는 생각은 이 시기에 새롭게 각성된 문제이며 또한 대세를 이루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반론을 편 국관 부인은 우리 나라에는 아직 책다운 책이 없어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등을 읽으면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당장 한문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자신의 견해를 내세운다. 두 부인이 국민 정신과 자주 정신을 거론하면서도 개혁의 방법과 그 속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국문 사용의 찬·반 양론을 제기하면서, 은연중에 우리의 고소설을 비판하는 작가의 언어관과 소설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토론형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討論 內容과 討論者⁴¹⁾

작품名	參與人物數	討論者	討論內容
거부오희	4인	인력거꾼들	일제 압제
夢見諸葛亮	2인	蜜啞者·諸葛亮	유교적 낡은 지식
峯山明鏡	4인	신탄용·진도·원각스님·빅운도사	기독교 우위
즈 유 종	4인	이미경·홍국관·신철현·강금운	국문사용 찬·반

위 표에서 보듯이 이 유형은 토론자 2 ~ 4인이 등장하여 공통적인 관심사인 화제나 주제에 대해 서로 동의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등 진지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작품 내에서 볼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대립된 견해를 보일 때, 질문과 답변 또는 반론과 반박의 방식을 적절히 원용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유형은 하나의 토론 주제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는 어떤 결론을 유도하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 동의하거나 공감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논점으로 화제를 바꾸어 나가는 형식이다.

41) 이 표에 제시된 토론 내용들은 앞의 인용 부분에서 제기된 주제들로, 작품 전체의 토론 내용이 망라된 것은 아니다.

2) 會議(演說)型

회의란 원래 다수인이 참석하여 어떤 의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거나 교섭해 나가는 것이다.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의사 소통 내지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개는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개별적 의제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연설은 연사가 많은 청중 앞에 나서서 다양한 주의·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연설 내용에 대한 청자들의 반응은 박수와 환호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야유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형식은 연설자의 발언권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며 발화자와 청자의 의견이 서로 교환되는 상호 접촉 과정은 보기 어렵다. 연설은 공공의 장소에서 정견이나 자기의 의견 발표를 위해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적·사회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 때 많은 청중들을 설득하거나 선동하는 데 유리한 방식이다. 특정인을 탄핵하거나 특정 문제를 거론하여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행해진다.

그런데 토론체 소설 중 이 회의(연설)형은 대부분 형식상으로는 회의형이지만, 내용상 진행 방법은 연설조로 되어 있다. 근대적 회의 형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으며, 회장에 발언권을 청해서 이를 얻은 회원은 회의장 앞에 높게 설치된 연단으로 나가서 발언한다. 회원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단에 나가 발언한다는 사실은 하나의 연설회를 연상케 한다. 작품 전체 길이에 비해 한 사람이 연설하는 분량이 많은 것도 내용상 회의형보다 연설형을 선호한 결과라 생각된다. 또 그 연설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려 대립하지 않고, 대부분 동의나 공감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이 유형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킨 작품들로는 「病人懇親會錄」, 「禽獸會議錄」, 「警世鍾」, 「天中佳節」 등이 있다. 이 작품들에서 회의의 취지와 안건 및 모임의 구성 방식 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 오늘날의 회의 진행 방식⁴²⁾과는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病人懇親會錄」은 《대한민보》에 1909년 8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재된 무서명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간친회의 임시 회장으로서는 청맹관이 선임되고, 규칙 제

42) 회의 진행의 기본 형식은 '① 개회 선언, ② 회장 인사, ③ 토론 및 의견 교환, ④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임영규 편(1996), 「최신회의진행법」, 서림문화사.)

정 위원으로는 반병어리와 체머리장이 추천과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이들에게는 회의 진행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부여되어 회의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일반 회원으로는 여러 病人들(절름발이, 외눈박이, 언청이, 곰배팔이, 안진방이, 난장이, 귀먹어리, 배부장이, 흑부리, 장님, 대머리, 무턱이, 룩손이, 룩발이, 안팎굽사등)이 참여한다. 그들이 각각 병인의 몸으로 평생 가슴에 서려있는 원통한 회포를 푸는 이야기가 먼저 제시된다. 그 다음에는 신체는 비록 정상이나 마음 썩썩이나 행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간친회 발기문의 일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생의 수명이 백 년에 지나지 못하나 그러나 사는 동안에 비록 하로라도 그 생명을 편안히 보존코저 하거나 생명을 편안히 보존하라면 결단코 혈연히 호우로 서서는 되지 못홀지라 그럼으로 정치가에는 정치회가 있고 법률가에는 법률회가 있으며 상업가에 상업회며 공업가에 공업회며 농업가에 농업회가 차례로 잇슬 뿐 아니라 노동사의 노동회까지 잇서 친목회를 한다 간친회를 한다 환영회를 한다 립사회니 특별회니 각색 명목으로 회를 조직하야 밤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혀 잇고 업는 것도 서로 분배하고 알고 물오는 것도 서로 밧고아 호우로 서 잇서 혈연히 외로움을 면하니 장하도다 사회의 업지 못홀 것이여 귀흔 자 천흔 자 늙으니 젊무니 홀 것 업시 류를 짜라 각기 상당흔 회가 의례히 잇거날 류에 셔기도 못홀고 회에 참여도 못하야 일신이 령명홀고 생애가 참담흔 자들은 오작 불상홀고 칙은흔 각색 병신들이라 (대한민보, 1909. 8. 19)

신체 건강한 사람들도 혼자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일이 어려운데, 하물며 '일신이 영정하고 생애가 참담한' 병인들의 처지로서는 더욱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의지할 곳 없고 기력도 쇠잔한 그들이지만 서로 힘을 합쳐 고난의 세파를 헤쳐나가 보자는 결의가 두드러진다. 당시 각종 사회 집단들이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정치회, 법률회, 상업회, 공업회, 노동회 등 단체를 조직하는 당시 사회 풍조에 보조를 맞추어 그들도 이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면서 생애를 이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병인간친회를 발기하고 그 취지서를 발송한다는 내용이다. 간친회의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슬푸다 우리 룩태가 완전치 못흔 병신동포 데씨여 만민이 서로 합하면 힘이 잇고 헤어지면 약하며 힘이 잇스면 편안함을 엿고 약하면 위태함이 생김은 덩흔 리치라 벌은 미불이로되 무리를 일우어 저보다 사나운 날버레의 침로함을 방어

하고 이리는 짐생이로되 때를 지어 더보다 날넌 사심을 잡아 먹나니 만물 중 가장 신령한 사람이 되야서 엇지 미물과 짐생만 못하리오……우리도 한 단테를 조식하야 환난질고에 서로 불상히 너이고 서로 붓드러 주며 또한 서로 토론하야 지식을 교환하면 엇지 몸은 완전해도 마암은 해어진 무리를 불어 하리오 이에 우러러 공포하오니 조랑하신 후 모월 모일 모시에 훈련원 압으로 계괴왕림(梟期 村臨)하심을 경요
(대한민보, 1909. 8. 20)

간담회를 발기하는 취지는 곤충(벌)이나 짐승(이리)도 무리를 지어 서로 힘을 합하여 도우며 사는 것처럼, 육체가 완전치 못한 우리 병인들도 단체를 조직하여 '환난질고'에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 주며 상부상조하자는 내용이다. 병인들의 몸이지만 회의체를 통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하고 무지를 벗어나 보자는 결의도 보인다.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보면 각자 회장에 발언권을 얻어 연단에 나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연설 형식이다. 여러 회원들이 다투어 회장을 부르고 발언권을 청하는데 그 중 한 회원이 자신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으로 먼저 올라가 연설을 해 서로 불쾌하게 생각한다. 나중에야 그가 귀머거리임을 알고 모두 양해하고 회의를 속행시키는 배려도 보인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질서 정연하고 근대적인 방법에 익숙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禽獸會議錄』⁴³⁾은 1908년 2월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안국선의 작품으로 금수들이 모여 당시 유행하던 연설회의 성격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 구성의 기초가 된 회의 형식은 매우 세련된 진행 방식을 취한다. 단상에 나와 발언할 때에는 반드시 회장에서부터 발언권을 얻고 나오는 것이라든지, 합당한 발언에 이르러서는 '손뼉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공명을 얻는 광경 등 일련의 회의 진행이 "근대의 정견 발표회를 방불"⁴⁴⁾케 한다.

회의에 참석한 동물은 까마귀(反哺之孝), 여우(狐假虎威), 개구리(井蛙語海), 벌(口蜜腹劍), 게(無腸公子), 파리(營營之極), 호랑이(苛政而猛於虎), 원앙(雙去雙來) 등이다. 이

43) 『禽獸會議錄』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백철은 『국문학전사』, 진 광용은 『한국문화사대계』에서 '우화소설'로 규정하였고, 김윤식·김현은 『한국문학사』에서 '정치소설'로 보았으며, 윤명구는 『개화기 소설의 이해』에서 '우화소설과 정치소설' 양면으로 고찰하는가 하면, 송민호는 『한국개화기 소설의 사적연구』에서 '우화형식의 풍자소설' 또는 '한말의 정치소설'로 보는 등 다양했다. 한편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 4』에서 『禽獸會議錄』이 전달과 주장을 본질로 삼고 있어 소설이 아니고 '교술 문학'에 속한다고 하였다.

44) 송민호·김춘섭(1988), 『개화기문학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p. 145.

들의 회의 의제는 ‘금수만도 못한 인류에 대해 논박할 일’이라 하였으며,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데일 - 사롭된 자의 칙입을 의론하야 분명히 할 일

데이 - 사롭의 형위를 들어서 올코 그림을 의론할 일

데삼 - 지금 세상 사람 중에 인류 즈격이 잇는 자와 업는 자를 묘사할 일⁴⁵⁾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와 행위의 毀譽褒貶, 그리고 그 자격 문제를 엄정히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인간성 상실과 타락의 실상을 금수의 입을 빌어 공론화 함으로써 풍자 정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警世鍾』은 1910년 3월에 광학서포에서 출판된 김필수의 작품이다. 여기서는 회의에 앞서 연회석의 순서가 먼저 열거된다. 회의 중에는 다과를 함께 하면서 금수들의 연설이 시작된다. 이 소설은 서술자가 꿈을 통한 몽유의 세계를 그리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禽獸會議錄』과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매우 유사한 작품이다. 동물들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과, 이야기 전개 방식이 회의석상에서 웅변조로 행한 연설체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연설의 내용은 모두 인간 행위의 규범들을 공격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⁴⁶⁾

회의에 참여한 동물들은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알맞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양은 회장, 원숭이는 접빈 위원, 다람쥐는 다과 위원, 닭은 시간 위원 등으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은 동물들의 특성을 살려 그 기능이나 책임, 권한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방식은 전대의 동물우화 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써, 토론체 소설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天中佳節』은 1913년에 유일서관에서 펴낸 작자 미상의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임시 회장은 전도부인 이은덕, 서기는 여학교 교사인 정의경, 임시 사찰은 감옥서 여서감인 신령회가 천거된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회원의 동의와 재청이 이루어져 임원 구성을 끝내고, 임시로 세칙을 공포하여 이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회의 도중에 꼭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 기회시에 떠들지 못함

45) 안국선(1908), 『禽獸會議錄』, 유일서관, pp. 7 ~ 8.

46) 문성숙(1994), 앞의 책, p. 112.

(二) 담배 먹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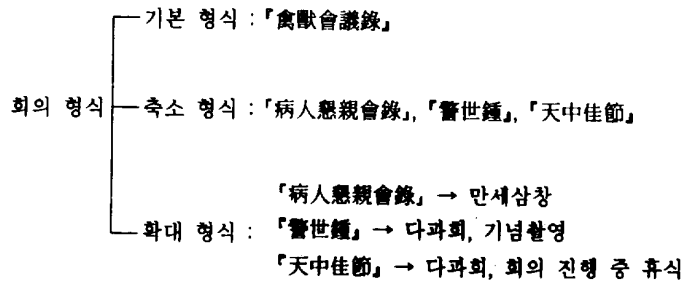
(三) 기회 후에 출입하지 못함

단, 불가불 출입할 때에는 스찰의게 통지함⁴⁷⁾

이 소설도 『즈유종』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만 참석하여, 세계에 개명 부인이 되자는 취지 하에 토론을 전개한다. 각종 직업(전도부인, 녀교스, 간호부, 묘산부, 우두파원, 부인상점, 은행사무, 우편사무, 철도역원, 감옥서녀감, 농스집부인, 세답집, 반우질집, 박물장스, 그릇장스, 술장스, 물장스 등)에 종사하는 여러 여성들이 모여 신식 문물 제도의 소개를 통해 세상 이치를 깨치고 합리적인 생활을 도모하자는 茶話會이다.

토론체 소설 중 여성 화자만 등장하여 그들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즈유종』과 『天中佳節』같은 작품이 출판되어 나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개화기에 이르러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상의 작품들은 회의 형식이 온전히 갖추어진 기본 형식과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축소 형식, 그리고 회의의 기본 형식에 부가적 요소가 덧붙여진 확대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축소 형식이란 회의의 기본 요소 중 토의 안건이 미리 제시되지 않은 작품들을 말한다. 그리고 확대 형식은 회의 진행 중 휴식 시간을 두거나, 회의 끝에 만세삼창, 다과회, 기념촬영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작품을 일컫는다. 이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해 볼 수 있다.



회의 형식에 따라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회의의 기본 형식에 맞춰 표로 나타내 보

47) 『天中佳節』(1913), 유일서관, p. 5.

면 다음과 같다.

<표 - 2> 會議 基本形式 具備要素

작품名	會長	任員選定	開會趣旨	開會宣言	討議案件	閉會宣言	其他
病人懇親會錄	○	○	○	○	-	○	○
禽獸會議錄	○	-	○	○	○	○	-
警世鍾	○	○	○	○	-	○	○
大中佳節	○	○	○	○	-	○	○

위 표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 선임, 개회와 폐회 등 회의의 기본 절차가 각 작품에 구비되어 있다. 매 작품마다 개회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러나 『禽獸會議錄』을 제외하고는 토의해야 할 의제가 회의 전에 먼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해진 안건에 따라 의견 제시와 교섭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는 형태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토의 안건을 미리 밝히지 않은 이유는 당대 시국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인간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윤리 규범들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회의형 속에 연설조로 된 내용은 발언자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이 유형의 작품들은 의제를 미리 내걸고 의논하기보다는 개인의 견해와 주장을 밝히려는 데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발언의 내용은 대개 길이가 길고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단순히 의논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의 안건이 미리 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 유형은 외형상 회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연단에 등장하는 연사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토로하고 청중들은 그 의견에 동의하거나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對話(問答)型

대화 또는 문답 형식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무지를 폭로하고 공동의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된 것이 대화(문답)형이다. 이 방식은 의문을 품고 있는 자의 요구나 지적 수준, 그들의 흥미에 부합되는 질문이나 답변을 통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대화(문답)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야기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과 앞의 경지

에 도달하는 형식이다.

토론체 소설 중 대화(문답)형은 작중인물 2인 이상이 대화나 문답 형식을 통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작품들을 말한다. 대화의 주제나 내용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시국이나 체제 비판 또는 사회 제도의 모순점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쳐 어떤 합의점이나 집단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향직담화」,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향로방문의심이라」, 「時事問答」, 「디구성미러몽」, 「絶纒新話」, 「夢拜金太祖」 등이 있다.

「향직담화」는 1905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4회에 걸쳐 연재된 짧은 작품으로, 우시생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순국문 토론체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는 몇몇 시골 나그네들이 모처를 지나다가 한데 모여 시국이 잘못되어 가는 상태, 국권은 지키지 못하면서 압제만 하는 위정자들의 비리에 대해 대화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은 190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21회에 걸쳐 연재된 무서명 소설이다. 점치는 일로 생계를 잇는 장님과 망건 짜는 일을 하는 안증방이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나 문답으로 일관된 작품이다.

「향로방문의심이라」는 시골에 사는 한 노인인 망가옹이 시국의 어수선함을 듣고 관광차 상경하여 모처에 있는 약국에 들어가 그 약국 주인인 의생과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다. 이들은 미신 타파, 문명 개화, 자주 독립 등의 문제에 대하여 묻고 답한다.

「時事問答」도 위의 작품들과 동계의 것으로 1906년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작품이다. 시골 선비(호문생)가 시사 문제에 대하여 의심나는 사항을 물으면 서울 선비(선해생)가 해명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구성미러몽」은 1909년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19회에 걸쳐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무서명 소설이다. 이는 憂世子라는 주인공과 원장법사의 대화를 통해 개화 의지와 애국 애민, 민족의 각성 등의 주제를 표출한 작품이다.

「絶纒新話」는 白痴生이란 익명으로 1909년 10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30회로 발표된 소설이다.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상놈인 덩병이와 양반 샌님의 대화로 일관되어 있으며, 덩병이가 익살과 재치로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외의 작품으로 「夢拜金太祖」가 있다. 이 작품은 박은식이 서간도에 망명하고 있을 때인 1911년에 지은 것이다. 무치생과 금태조의 대화, 문답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이

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 3> 對話(問答) 參與人物 및 方式

작품名	對話(問答) 參與人物	
	A(問)	B(答)
향직담화	향직들 : 對 話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소 경	안증방이
향로방문의심이라	망가옹	의 심
時事問答	호문심	선해심
디구성미리몽	우세자	원장법사
絶纒新話	덤병이	샌 님
夢拜金太祖	무치생	금태조

위 표에서 보면 여러 작품들 중에서 「향직담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 사람이 등장하여 서로 묻고 답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향직담화」는 작중인물의 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본문에 “슈습 향직이 모혀 담화하는”⁴⁸⁾이란 구절도 있지만, ‘한 사람이 가로되’, ‘또 한 사람 가로되’ 등 4명이 순차적으로 나서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작중인물들은 의심나는 사항을 묻는 사람과 그에 대해 해명해 주는 사람으로 대별된다. 다만 「향직담화」는 다른 작품들처럼 질문과 해명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와 세상에 대해 대화로 의문을 풀어 나가는 형식인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상에서 담화 유형에 따라 필자 나름대로 토론형, 회의(연설)형, 대화(문답)형 등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토론형은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 몇몇 사람이 모여 앉아 각자 의견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회의형은 오늘날의 회의 형식과 아주 유사한 근대화된 형식으로써 회의를 발기할 때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임원 선정 과정이 묘사되고 있다. 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때는 회장으로부터 각자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대화(문답)형은 주로 2인이 등장하여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거나 유식한 자가 무지한 자를 문답 형식을 통하여 깨우쳐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48) 「향직담화」, 대한매일신보, 1905. 10. 29.

이와 같은 제형식을 통하여 주제 의식을 강하게 표출해 내는 일련의 작품들이 토론체 소설에 속한다. 그 주제나 내용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사회 현실 비판, 개화 의지 표명, 민족성의 부패, 국권 회복 등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대적 이념을 주로 다루고 있다. 토론체 소설은 당대 사회와 역사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반영시킨 작품들로서, 시대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발생된 것이다.

Ⅲ. 討論體 小說의 特徵

1. 敘事構造

일반적으로 말해서 '서사구조'란 소설 속에서 사건과 행동이 서로 조직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 나가는 짜임새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설의 기본 단위구조가 어떻게 상위구조로 조직되고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구조를 이루는가를 밝혀내는 방법이다.

토론체 소설은 사건이 시작되는 서두와 토론으로 지속된 중간, 토론이 끝난 뒤에 헤어짐으로 서사구조를 마무리 짓는 형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토론형이든 회의(연설)형이든 아니면 대화(문답)형이든 하부 유형에 관계없이 이 체제에는 변함이 없다. 또 몽유록이나 우화 기법을 원용한 작품들도 위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토론체 소설은 세 단계의 전개 과정 중에서 작품의 중간 부분이 크게 강조된 형태이다. 이 중간 부분은 소설로서 감동이나 체험 전달보다 사실의 '발견'에 치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 항목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형태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를 액자 형태로 파악하여 서사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액자란 소설의 구성 유형 중의 하나로 "외부 이야기 틀 속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내부 이야기를 내포하는 소설 형식"⁴⁹⁾이다. 이 구성 유형은 액자 속의 내부 이야기가 하나인가 또는 그 이상인가에 따라 다시 유형이 세분된다. 또 내부 이야기 뒤에 종결 액자의 유무에 따라 폐쇄 액자나 개방 액자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고, 시점이나 화자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한다.

액자는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가 종속된 형태지만, 내용상으로는 언제나 내부 이야기의 중요성이 더 크다. 그 이유는 이야기 전개상 작품 속에서 다루어진 비중을 보아도 그렇지만, 외부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를 둘러싸는 틀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곧 외부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가 전개되기까지의 상황이나 배경, 원인 등을 서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9) 이재선(1996), 『한국문학의 원근법』, 민음사, p. 78.

토론체 소설의 외부 이야기도 바로 내부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한 구실을 하고 있다. 외부 이야기 부분이 최소한으로 전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내부 이야기 비중이 커진 것은 액자 형태가 갖는 특징이자 토론체 소설이 갖는 구조적 특징이다.

토론체 소설은 토론형과 대화(문답)형은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회의(연설)형은 따로 논의할 수 있다. 앞의 유형은 내부 이야기가 대화나 토론으로 되어 있지만, 회의(연설)형의 경우 회의나 연설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토론형이나 대화(문답)형에서는 토론이나 대화(문답)가 시작되기 전에 서두 부분에서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이 도입 액자[外話]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내부 이야기[內話]는 토론이나 대화가 시작되어 작품을 이끌어 가는 부분이다.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사건 전개도 없이 단지 당대 사회의 여러 쟁점 사항들에 대한 사실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문답)만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결 액자[外話]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서로 토론, 대화의 화제로 떠올랐던 사항들을 정리하고 노래류(장단가, 자탄가, 단가 등)로 압축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끝맺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토론체 소설에 속하는 다른 작품들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다음 인용문에서 이러한 것들이 검출되는 곳을 찾아보기로 한다.

모쳐 병문에서 여러 스랍드리 모아 안저 각기 소경스(所經事)로 보고들은 말을 서로 논란허는디 기 중에 인력거군 혼아이 그로더 나는 아모리 심각하야도 알 슈 업는 일……나는 그러케 굉장한 통감인 줄은 몰오고 다만 공즈왈 밍즈왈 혼는 통감으로만 알앗더니 지금 즈서히 알고 본즉 비록 우준한 마음이라도 가슴이 무여지는 듯 피를 토할 듯하야 일단 병군이 될 듯하니 도로혀 듯지 아니하얏슬 써만 갖지 못하도다 호고 인력거를 끌고 가며 즈탄가 노려하니 (고덕 및 밀 줄 - 인용자) (『거부오헌』, 대한매일신보, 1906. 2. 20~3. 6)

근일 춘기 화장하리 엇던 선비 광인이 손을 끌고 늙은 곳에 올라 안저 장안디도상 왕리 혼는 사람을 지점하며 고금치란의 시비를 평론하야 시국의 불평혼을 기탄하고 강기 혼 마음을 금치 못한다 하니……호문심이 놀나 무려 갈오더 그 무슈 소리가 그다지 령악하노 처음에는 김혼 산골에 폭포슈 흘으는 소리갓치 나더니……다시 할 말 무엇 잇나 호며 호문심 선희심의 서로 허희장탄 호고 일어서니 이 써 석양은 서산에 걸여 잇고 게으른 시는 슈풀로 도라가더라 (고덕 및 밀 줄 - 인용자) (『時事問答』, 대한매일신보, 1906. 3. 8~4. 12)

첫째 인용문인 토론형 작품에서 고딕체로 표기된 ‘그로더’까지가 도입 액자로서 외화에 해당한다. 이어 ‘나는 ~ 못하도다’ 부분은 내부 이야기이며, ‘호고’ 이하는 종결 액자이다. 마찬가지로 둘째 인용문인 대화(문답)형 작품에서도 ‘갈오더’까지가 도입 액

자이고 ‘그 무슴 ~ 무엇 있나’ 부분이 내부 이야기이며, ‘흐며’ 이하는 종결 액자이다. 토론체 소설 대부분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위 인용문에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도입 부분과 종결 부분은 대개 작가로서의 서술시점이다. 반면에 내부 이야기에서는 작중인물이 서술자가 됨으로써 서술시점 이동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작가의 중개적 기능 영역과 작중인물의 중개적 기능 영역이 교차함으로써 사건과 행동이 분절되고 외화와 내화 사이에 객관적 거리화가 이루어진다.

회의(연설)형에서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 작가의 서술 부분이 도입 액자에 해당한다. 회의가 시작되면 서언과 개회 취지를 고지한 후, 본격적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작중인물들이 각기 나서서 연설하고, 폐회의 절차를 넣어 회의를 종결시키는 부분까지가 내부 이야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종결 액자 부분은 다시 작가의 서술로서, 지금까지의 회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회의하는 상황을 보고 느낀 바를 정리함으로써 작품을 끝낸다. 이를 인용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일월과 성신이 천추의 빛출 일치 아니하고 눈을 찌서 따흘 굽어보니 강회와 산악이 만고에 형상을 변치 아니호도다……위의가 업숙호고 형용이 단정호게 짝 서서 여러 회원을 디호야 호는 말이 여러분이여 너가 지금 여러분을 청호야……말호자면 한덩이 업고 또 시간이 진호얏스니 그만 폐회호오 호더니 그 안에 되엇던 증심이 일시에 느는 자는 놀고 괴는 자는 괴고 썩는 자는 썩고 우는 자도 잇고 짓는 자도 잇고 춤추는 자도 잇서 다 각각 도라가더라⁵⁰⁾ (고덕 및 밀줄 -인용자)

느른 못소리와 혼연한 안식으로 좌우를 둘러 보면서 호는 말이 우리가 모힌 뜻순 여러 회원들도 임의 짐작호실 듯호나 두어 말노 설명호오니……우리가 지금 각각 호혀져 동서남북으로 갈지라도 막음은 연합호여서 호상 친목호를 목덕을 닛지 말고 서로 권면호시기를 근절히 바라노이다 호고 일제히 작별가를 호는디 찬미상대 복의 근원 텃하만물 모도 칭송호고 아멘 호더니 다 헤어져 가더라⁵¹⁾
(고덕 및 밀줄 -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고딕체로 표기된 ‘호는 말이’까지가 도입 액자이고, 이어 ‘여러분 ~ 폐회호오’ 부분과 ‘우리가 ~ 바라노이다’는 내부 이야기이며, ‘호더니’ 이하와 ‘호고’ 이하는 종결 액자이다. 이와 같이 토론체 소설은 액자 형태의 특성을 취해 상당히 안정

50) 안국선(1908), 앞의 책, pp. 1~ 4, p. 47.

51) 김필수(1909), 『驚世鍾』, 광학서포, p. 7, p. 53.

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액자 형태의 이러한 특성은 주제 전달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처음과 끝이 중간 부분을 이끌어 내고 또 그것을 매듭짓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액자 속에 담긴 내용이 당대 사회의 중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액자가 주제 전달의 장치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구도는 이 유형의 작품들을 액자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외부 이야기는 주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의 제시, 주요 인물이나 관찰자의 소개 등 도입 부분과, 이야기가 끝난 뒤에 나타나는 관찰자의 총평이나 작가가 개입하여 서술하는 결말 부분이 해당된다.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전이되는 장면과, 다시 외부 이야기로 빠져 나오는 장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내부 이야기는 토론, 회의(연설), 대화(문답)가 시작되어 마치는 부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액자 형태를 뚜렷이 갖춘 것이며 그 중에서도 도입 액자와 종결 액자가 갖추어진 '이중 액자(패쇄 액자)'이다.⁵²⁾

또 토론체 소설 중에는 몽유록 형식을 갖춘 작품들이 상당수 있다. 몽유록 형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법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몽유 세계와 현실 세계가 구분되어 액자가 확연히 드러나는 서사구조상의 특징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⁵³⁾ 아래 인용문의 처음 단락은 도입 액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중간은 내부 이야기, 마지막은 종결 액자 부분으로 볼 수 있다.

(前略) 금슈만도 못한 이 세상을 장차 잊지하면 도홀고 나도 또한 인간에 한 사람이라 우리 인류 사회가 이갓치 악하게 됨을 근심하야 미양 성현의 글을 읽어 성현의 모습을 본밧으려 하더니 맞춤 서창에 곤히 든 잠이 춘풍에 니릭힌 바 되미 유흥을 금치 못하야

(中略) 별안간 뒤에서 무어시 외락 찌다 밀며 어서 드러 감시다 시간이 되었소 하고 밧비 드러가는 서술에 나도 짜라 드러가서 방청석에 안져보니 각식 귀 증심 놀증심 모든 버러지 물고기 동물이 꾸역꾸역 드러와서 그 안에 뻘뻘하게 서로 안겼는디

52) 안성수(1989),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pp. 12~32 참조.

53) 액자로 파악한 몽유록 형식은 ① 入夢 : 도입액자 [外話], ② 夢遊 : 내부 이야기 [內話], ③ 覺夢 : 종결액자 [外話] 의 구조로 되어 있다.

(中略) 여러 증성이 연설할 썩 나는 사를을 위하야 변명 연설을 하리라 하고
몇 번 심각하야 본즉 무슨 말노 변명할 수가 업고 반디를 하려 하나 현하지변을
가져드러도 쓸디가 업도다⁵⁴⁾

액자의 외화에 해당하는 현실 세계는 몽유 이전에 서술자를 등장시켜 설명하는 해설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몽유 세계는 내부 이야기로 처리되고 몽유자의 시점에서 전개된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보면 도입액자는 입몽 과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종결액자 부분에서 각몽 과정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액자로 파악할 때, 이를 엄밀히 말하면 종결 액자 부분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논자들 대다수가 이 작품의 종결 부분을 각몽 부분으로 보고 있다. 각몽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있지만, 필자 역시 이 부분을 각몽 부분으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몽유 이전에 서술자가 등장하여 해설자의 입장을 취했던 것과 같이, 종결 부분에서도 서술자가 등장하여 해설자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흡하지만 종결 액자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보아 몽유록의 기본구조는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禽獸會議錄』과 『夢見諸葛亮』도 액자에서 흔히 보이는 시점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禽獸會議錄』의 도입 액자[입몽]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중간 부분인 내부 이야기[몽유]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마지막 종결 액자[각몽]에서는 다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금수들의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총평이나 느낌이 서술되어 있다. 『夢見諸葛亮』에서도 도입 액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내화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종결 액자에서는 3인칭으로 작가의 객관적 서술이 되고 있어 시점 이동이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대한매일신보>나 <대한민보>에 실린 작품들에도 시점 이동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도입 액자와 종결 액자에서는 서술자가 개입되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다가 막상 인물들의 대화나 토론이 시작되면 서술자의 개입 없이 작중인물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론체 소설 중 액자로 파악하기 곤란한 작품으로는 「絶續新話」가 있다. 이 작품은 그 서두에서부터 길에서 우연히 만난 두 인물이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그것이 작품 끝까지 이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54) 안국선(1908), 앞의 책, pp. 2 ~ 4 및 p. 48.

이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론체 소설의 서사구조는 기본적으로 ‘처음 → 중간 → 끝’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토론체 소설의 처음 부분을 도입 액자, 중간 부분은 내부 이야기, 끝 부분은 종결 액자로 파악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서사구조를 액자 형태에 맞춰 논의한 바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 4> 額子形 敘事構造

작품명	처음 (도입 액자)	중간 (내부 이야기)	끝 (종결 액자)
향리 담화 (鄉客談話)	모쳐물~가로디 (작가의 서술)	지금~일리로다 (향객들 토론)	허며~말이더라 (작가의 서술)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일전에~갈오디 (작가의 서술)	여보게~말일세 (소경·안증방이 대화)	허며~허여 불가 (작가의 서술, 장탄가)
鄉老訪問醫生 이라	시골 스논~갈오디 (작가의 서술)	로인이~썬이로다 (망가용·의생 대화)	의심이~기약노라 (작가의 서술, 단가)
거부 오희 (車夫誤解)	모쳐~가로디 (작가의 서술)	나논~못호도다 (인력거꾼들 토론)	호고~일너 무엇 (작가의 서술, 자탄가)
時事 問答	근일~갈오디 (작가의 서술)	그 무슴~무엇 잇나 (선해생·호문생 문답)	허며~도라가니다. (작가의 서술)
病人懇親會錄	인생의~보더니 (작가의 서술, 발기문)	시간이~불음시다 (병인들 연설)	만세~병인간친회 만세 (만세삼창)
絶續新話	無	센님~공명호계 (덤병이·센님 대화)	無
디구성미리몽	우세즈논~무르디 (작가의 서술)	대스논~방불호더라 (우세자·원장법사 대화)	끝부분 탈락으로 未詳
禽獸會議錄	머리물~말이 (작가의 서술, 입몽)	여러분~폐회호오 (금수들 연설, 몽유)	호더니~생각호시오 (작가의 서술, 각몽)
夢見諸葛亮	輿在丙午年春에~解吟키늘 (작가의 서술, 입몽)	蠻亞子 ~出洞絃別홀식 (밀야자·제갈량 토론, 몽유)	一聲長歎에~一夢이러라 (작가의 서술, 각몽)
警世 鍾	산천이~호는 말이 (작가의 서술)	우리가~벼라노이다 (금수들 연설)	호고~열녇는지 (작가의 서술)
聖山明鏡	화설이라~무리 왈 (시, 작가의 서술)	대스논~밋친 바라 (신천용·진도·원각·백운 토론)	호고~표홍일너라 (작가의 서술, 각몽)
즈 유 종	턴디간~호리오 (토론시작 전)	여보~안이겜소 (부인들 토론)	여러~호오리다 (토론 끝)
夢拜金太祖	檀君大皇祖~默念호야 디 (작가의 서술, 입몽)	往昔大金國~有호다 (무치생·금태조 문답, 몽유)	호시고~我同胞兄弟여 (작가의 서술, 각몽)
天中佳節	이상~호오되 (발기문, 작가의 서술)	본인은~손 드시오 (부인들 연설)	호니~폐회호다 (작가의 서술)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총 15편 중 「絶纓新話」를 제외한 모든 작품들은 세 개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여기서 처음과 끝 부분은 중간 부분을 둘러싸는 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대개 한두 문장으로 되어 있거나 길게는 한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 상황의 설정이나 매듭을 가급적 짧게 하고 중간 부분의 비중을 크게 늘린 형식이다. 중간 부분에서 작중인물들은 토론, 회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공감하게 된다. 당대 시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 해결책이 모색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모든 의혹이 풀리고 나면 작중인물들은 상당히 고양된 심리 상태 또는 깨달음의 경지를 느끼며 작품을 끝맺게 된다.

토론체 소설은 액자로서의 도입부 상황과 종결부에 이르렀을 때의 양상이 매우 다르다. 도입 액자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과제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해법을 찾지 못해 진전공공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나 종결 액자 부분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해소되고 해결책이 모색되어 인간의 행동화를 유도하는 양상으로 발전된다. 토론체 소설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서사구조를 지니는 특성을 갖는다.

토론체 소설 대부분은 토론, 회의(연설), 대화(문답) 형식이 문학적으로 차용된 것이지만, 이야기 자체가 발전적으로 조직된 서사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단순히 평면적으로 전개된다. 이를 서사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사건 구성 및 전개가 거의 배제되었다고 할만큼 크게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액자 형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활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이 당시 신문이나 잡지 등에 발표된 논설적인 글들의 논조가 소설화되어 가는 중간 단계로써 소설적인 구성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미숙한 형태의 액자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론체 소설 작품들은 작중인물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토론 과정이 담긴 중간 부분, 토론이 끝난 뒤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해산하는 종결 부분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구조가 세 개의 영역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미흡한 대로 소설이 지니는 짜임새는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 내에서 토론에 대한 유기적인 내용이나 연관성이 거의 없이, 토론 주제나 회의 의제의 변화에 따라 각 부분들이 독자성을 띠어 이야기 전개가 열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직 대화나 토론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의 경과도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대화 속에서 사건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등 서사구조상의 미흡한 점을 가지고 있다.

2. 作中人物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작가가 창조한 허구적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과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다. 의지와 행동의 주체일 수 있고 작가의 대변자일 수도 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존재하고 느끼고 타인과의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을 지닌 허구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인물이란 작품 속의 개개인을 가리키거나 그들을 결정하는 관심, 욕망, 정서 등을 포괄한 총체로서 성격(character)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물은 또 소설의 여러 구성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의 하나로 사건과 더불어 전체구조의 주축을 이룬다. 인물의 성격 창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편으로 대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작중인물의 성격을 가장 직접적이며 선명하게 드러내는 매개물이다. 그래서 작중인물의 교육 수준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나 교양 정도가 대화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작품 속의 인물들은 다양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서 주제의 표출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소설 연구에서 인물 분석에 큰 비중을 두는 태도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토론체 소설의 작중인물들은 작가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당한 유형으로 미리 선정해서 고정시킨 것들이 대부분이다. 곧 직업의 종류에 따라 유형화해 놓거나, 신체의 완전성과 불완전성, 사람과 금수 등 대조적으로 배치해 놓는다. 이와 같이 고정된 인물로 등장시키기 때문에 현대소설에서 보이는 인물들처럼 개성적이지 못하고 소설 내에서 다른 기능이나 의미를 별반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인물의 성격이 이야기 내에서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버린 유형화된 인물인 것이다. 토론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들간의 대화나 토론이 인물의 성격 창조를 위한 매개물로서의 대화가 아니라 단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토론체 소설의 인물들은 대화를 통한 성격 창조의 기능보다 지식과 정보 제공 또는 주제나 사상 전달에 충실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인물들은 항상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고 그에 대해 평설적 가치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발언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켜 나가기도 하는데, 이 때 채택되는 하나의 방식으로 대화나 토론을 꼽을 수 있다.

소설의 인물은 언어, 묘사, 행동, 대화, 장면과 다른 인물과의 상호 작용 등이 결합해서 형상화되어 나간다. 그런데 토론체 소설에 설정된 인물들은 이런 상호 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작중인물들의 성격이 제대로 창조되지 못하고 인물 간에 주고받는 대화 역시 성격 창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대화나 토론을 통해 갈등의 복잡화를 강조하거나 차후 성격 발전에 대비해 나가는 방식도 아니다. 그러므로 작중인물간의 갈등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히는 소설 내적인 사건이 거의 배제되어 있다. 요컨대 토론체 소설의 인물들 사이에 서로 대결 관계에 놓이도록 설정된 작품들이 몇 편 안되는 특징을 보인다. 작가가 미리 계획하거나 설계한 의도에 따라 토론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작품 내에서 행위화되지 않는다. 다만 작가의 관념적 지식이나 사상, 주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격의 발전이라든지 인물 창조의 두드러짐도 부각되지 않는다.

이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충실하기 때문에 인물들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작품이 많다. 토론이나 대화에 참여한 자가 2인 혹은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목표와 지향점은 대개 일치한다. 당대의 사회 현실에 대해 의욕이나 불만을 품은 인물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대화나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의 요인을 가진 대립자로서의 인물 설정이 아니라, 화제를 이끌어 내거나 변화를 위한 선택으로 토론과 전개될 사건에 매우 합당한 인물이 작가에 의해 선정되어 있다. 토론체 소설에 나오는 작중인물들은 거의 “작가 의식에 지배되어 있는 작가의 대변자”⁵⁵⁾라는 주장도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인물들이 능동적인 모습보다 대개 피동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즈유종』에서는 작중인물로 여성을 택한 점에서 그 설정에 특이한 면이 보이고 있지만, 인물 구성이 역시 평면적이어서 다른 토론체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소설 기교 면에서 그 효과는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토론체 소설들보다는 토론 내용이 훨씬 본격적이고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 이야기를 나누는 작중인물들 사이에서 그래도 미미하게나마 이견이 제시되고 견해 차가 드러나 인물간의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보다 인물간의 대결 양상이 강하게 드러난 작품은 『夢見諸葛亮』이다. 여기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 상대방에게 반박할 때 정색하는 모습이나, 분노를 참지 못하는

55) 유양선(1979), 앞의 논문, p. 128.

모습들이 작품 곳곳에 나타나 있다.

先生이 微笑 曰 足下之言이 似是而非也 | 로다 今歐美各國에 文明之業과 發達之風이 大熾하야 現彼兵農工商의 現地事務와 法律政治의 革新改良과 教育殖産의 發明啓進이 無國無之하야……今 足下之言에 卒然曰 僕의 治蜀之政을 兵農工商에 實業發達과 人民敎導에 知育德育을 勤務치 아님으로 失策과 誤路가 되었다 하니 何其迂闊之甚者乎아. 蜜啞子 | 正色對曰 時는 極不然者 | 로소이다 泰西歷史로 以言之면 埃及과 希臘이 雖曰古之文明國이나 風俗制度를 查考하면 支那古時와 相同한 者러니……先生當年에 造蜀政略이 었지 失策과 誤路가 아니라 ्ह을잇가. 先生이 聽罷에 歎曰 信哉라 足下之言이여 人世萬事가 過去未來가 不同하고 生前死後가 判異함을 今始大覺이로다⁵⁶⁾

제갈량이 밀아자에게 그대의 말이 옳은 것 같으나 사실은 그르다고 하며 그 이유를 열거한다. 그러자 밀아자 역시 굴하지 않고 정색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갈량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결국은 제갈량이 밀아자의 말에 설득되어 공감하기까지의 토론 경위가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밀아자와 제갈량은 같은 주제를 놓고 서로 의견 대립의 과정을 거쳐 옳고 그름을 논의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또 『聖山明鏡』에서는 인물 4명이 유·불·선 3교와 기독교 대표로 등장하여 제각기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종교가 제일 우위임을 서로 논박하는 과정에서 인물간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신천웅이 곱은더 선성의 말씀이 가장 이상하도다 쇼데는 아는 거시 업거니와 춘쇼고단일고귀는 당현종唐玄宗이 귀비의게 침혹함을 빅락탄白樂天이 쵸쇼한 말씀이오 지아宰我라 ्ह는 데즈 낮제 잠자거늘 공즈孔子 | 무지져 곱은사디 썩은 나무는 가히 식일 수 업고 분토(糞土)의 답은 가히 더럽게 흘 수 업다 ्ह 썩섯으며 일즉이 니러나고 밤들게 자라함은 유가서에 말씀이라 선성이 외모로는 성현을 존승하나 실상은 성현의 훈계를 범호심이니다 진도 불열 왈 년소비가 어문을 논박하는 거시 테헤가 아닐진 ्ह노라⁵⁷⁾

위 인용문은 신천웅과 진도선비가 논박하는 과정으로 서로 간의 갈등 양상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진도 청파에 얼굴 빛을 변하여 갈오대' 등에서도 이같은 양상을 볼 수 있다.

토론체 소설의 작중인물 설정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토론, 연설, 대화에 참여하는

56) 유원표(1908), 앞의 책, pp. 34 ~ 38.

57) 최병현(1909), 앞의 책, pp. 9 ~ 10.

대상이 금수나 소외되고 약한 인물, 또는 하층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 사항이 동물이나 하층민들의 지적 수준에 어울리는 문제들이 아니다. 개인적인 이해 관계에 얽힌 문제들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나 신분을 뛰어넘는 주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집단적 가치의 문제들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토론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국가나 민족,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은 인물 분석에서 새로운 관점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病人懇親會錄』에서는 신체적 불구자들을 작중인물로 설정하여 이들과 대비되는 인물, 곧 신체는 정상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불구자 노릇을 하는 대상에 대한 비판을 감행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한층 강하게 드러내었다.⁵⁸⁾ 이와 같이 신체적 불구자가 작중인물로 설정된 것은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에서도 볼 수 있다. 정상인으로서 마땅히 올바른 안목과 과감한 실천력을 보여야 함이 마땅한데 실상은 악행을 일삼고 근시안적인 삶을 영위하는 작태를 장애인의 시각에서 공격한다. 정상인들이 오히려 당대 사회의 개혁과 건설을 가로막는 대상들이라고 하고, 문답을 통해 그들의 행태를 낱낱이 열거하여 비판한다.

『禽獸會議錄』과 『警世鍾』에서는 작중인물 중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은 단지 관찰자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금수들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설정되어 인간의 타락상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지금까지 여러 논자들은 토론체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개성화된 인물로 성격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 따라, 신체의 완전성과 불완전성, 사람과 금수 등이 대조적으로 배치되었을 뿐이고, 그 역할은 고정된 인물 유형이라는 한계를 지닌다고 해석했다. 또 인물간의 갈등이나 대결의 모습을 보이는 생동하는 인물이 아니라 피동적인 인물로 보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관점을 탈피하여 토론체 소설의 인물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단지 소설 미학적 관점에서 보아 미흡하다는 식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토론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을 온당하게 파악해내지 못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유형을 표로 나타내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8) 김영택(1991), 『한국근대소설론』, 민지사, p. 75.

<표 - 5> 作中人物의 類型

人物類型	作 品 名
男 性	향길담화,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향로방문의심이라, 거부오회, 時事問答, 病人憑親會錄, 絶纓新話, 夢見諸葛亮, 夢拜金太祖, 디구성미리몽, 聖山明鏡
女 性	즈유중, 天中佳節
禽 獸	禽獸會議錄, 警世鍾

토론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성, 여성 또는 금수들이다. 금수들이 등장하는 작품은 차치하고라도, 한 편의 소설 속에는 반드시 남성 인물들만 등장하거나 아니면 여성 인물들만 나온다. 남녀 인물이 섞여 등장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나오는 작품은 하나도 없다. 남녀나 가족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남녀간의 애정 문제나 가족간의 문제 등 일상적인 삶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거론되지 않도록 장치되어 있는 것이 토론체 소설들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남성 인물들 또는 여성 인물들만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전개할 때, 그들의 주된 관심 사항은 사랑이나 가족의 문제를 떠나 사회나 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전개된다. 토론체 소설에 담긴 내용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물 설정에서부터 작가에 의해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관점으로 작중인물에 대해 접근해 본 결과 토론체 소설에 나오는 작중인물들이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게 되었다. 토론체 소설의 어떤 작품에서도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성격을 발견해 낼 수는 없다. 대화나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양 묘사나 옷차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얻기가 어렵다. 또 한 인물과 다른 인물을 차별화 하는 수단으로써 제3의 인물을 매개로 한 성격의 대리 묘사도 되어 있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작품 내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는 생계 수단, 사회적 신분, 교육 수준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같은 남성 인물이나 여성 인물들이라도 연령차가 드러나는 작품도 없다. 대개 시국에 관해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토론체 소설이 흥미 본위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양식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소설이란 하나의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 작업이라 할만큼 작중인물의 비중은 매우

크다. 토론체 소설의 인물이 대체로 평면적이어서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물의 행동에서 단순한 시간적 경과나 공간적인 배경의 이동이 드러나 보일 뿐이며 인물간의 갈등 양상이 드러나는 작품은 몇 편 되지 않는 등 소설론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작가의 계획 하에 설정된 인물로 작가의 의도에 매우 충실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3. 技法

작가는 작품 내에서 의도하는 바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한다. 또한 이야기 전개를 효과적이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 기법들은 소설의 구조를 더욱 짜임새 있게 완성해 나가는 요소가 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토론체 소설에는 어떤 기법들이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또 그러한 기법이 토론체 소설에서 당대 현실 문제를 비판하는 데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토론체 소설에서 주로 사용된 기법으로는 꿈을 통한 몽유록, 동물을 이용한 우화 기법, 언어 유희나 조소라는 방법을 통한 풍자 기법 등이 있다.

1) 夢遊錄



몽유록 형식은 '꿈'이라는 불가해한 장치를 이용해 허구적인 방법으로 씌어진 작품들에서 발견된다. 이런 작품은 현실 세계에서 갈등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현저한 거리가 있는 상황, 또는 현실과 비현실로 나뉘어진 상황으로 독자를 인도하여 갈등 해결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몽유록계 소설은 대부분 '入夢 → 夢遊 → 覺夢'의 기본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몽유록 통해 마음껏 펼치기에 아주 적합한 양식이다. '꿈'이라는 장치는 현실에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대리 만족시켜 줄 수 있다. 또한 꿈 속에서 역사상의 훌륭한 인물을 만나 작가의 이상을 실현하거나, 현실에 대한 불만을 외부적 압력 특히 정치적 간섭을 피하면서 거리낌없이 펼치기에 편리한 방법이다.

전대의 몽유록은 대개 꿈을 통해 가계의 조상을 저승에서 직접 만나고 돌아오는

형식으로 유형화되어 있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는 전 시대의 훌륭한 위인이나 초월적 판단자를 만나 해결책을 암시 또는 계시 받고 현실로 되돌아온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 방식은 개화기의 몽유록에까지 거의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개화기의 몽유록은 전래의 수법을 이어 받았으면서도 내용 전개에서는 시대 정신이 많이 반영되면서 변화를 일으켜 전래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래의 몽유록이 관념적인 애정물이거나 인간 행위의 도덕·윤리적 덕목을 교훈적으로 제시하는 데 비중을 두었던 데 비하여, 이 시기의 몽유록은 당대 현실에 직접 대처할 방법을 문제삼고 있다. 따라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도 당대 사회에 흔히 있을 법한 구체적인 인물들인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에 발표된 토론택 소설 중에서 '꿈'이라는 장치를 빌어 쓴 작품으로는 『夢見諸葛亮』, 『禽獸會議錄』, 『디구성미러몽』, 『聖山明鏡』, 『夢拜金太祖』 등을 들 수 있다.⁵⁹⁾ 이들 작품 대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몽유록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디구성미러몽』과 『聖山明鏡』은 전형적인 몽유록 기본구조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그러한 구조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작품 자체에 장치되어 있다.

『夢見諸葛亮』과 『夢拜金太祖』는 꿈 속에서 역사상 훌륭한 인물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에서 나타나는 '입몽 → 몽유 → 각몽'의 구조를 인용문에서 직접 보기로 한다.

(前略) 忽然 午睡가 方醒호야 悠悠一夢에 飄飄而去호시 千水萬山을 經過호야
一處에 抵到호는 則 (中略) 先生이 不勝戀戀호야 握手聯步호고 出洞敍別호시 一聲
長歎에 忽然 翻身호니 枕上一夢이러라⁶⁰⁾

『夢見諸葛亮』은 '悠悠一夢에 ~ 枕上一夢이러라'에서 보는 것처럼 입몽과 각몽의 절차가 전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인 밀야자가 꿈 속에서 재갈량을 만나 재갈량의 낡은 유교적 관념과 사상을 대화를 통해 비판하고 현실적인 문제들 토

59) 신채호의 『꿈하늘』(1916)을 토론택 소설 중 몽유록계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몇 가지 이유에서 이 범주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토론택 소설은 작품 내에서 토론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작중인물의 토론보다 주로 작가에 의해 서술되는 형식이다. 또 작가가 역사·전기소설을 많이 저술하였고, 이 작품에서도 울지문덕, 강감찬 등 역대 훌륭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민족 각성 및 자주자강 의식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 역사·전기소설류와 흡사하다. 따라서 이 소설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전기소설과 토론택 소설 양식이 혼합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60) 유원표(1908), 앞의 책, p. 2 및 p. 158.

론하는 작품이다.

『夢拜金太祖』도 구조의 측면에서 위 작품과 동궤의 것으로 몽유록의 기본구조가 온전하게 갖추어진 작품이다. 인용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前略) 一般同志와 學生諸君으로 더부러 紀念式을 行하고 客榻에 轉轉하여 大宗教의 神理를 靜念하다가 是夕에 栩栩然히 莊生의 蝴蝶을 化하여 風을 御하고 雲을 乘하여 白頭山 最高頂에 陟하여 大澤畔에 至하니 天海가 相連하여 灑氣 澆灌하고 星月이 交輝하여 異彩玲瓏한 中에 崑崙焜煌한 一殿閣이 雲霄에 聳出하니 額曰 開天弘聖帝殿이라 (中略) 時에 金鷄가 三唱하고 海天에 日升이라 大夢을 誰先覺고 將來를 我自知니 惟我同胞兄弟는 此를 夢이라 謂하는가 眞이라 謂하는가 6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莊生의 蝴蝶을 化하여 ~ 大夢을 誰先覺고'로 입몽 과정과 각몽 과정이 뚜렷이 나타나 전형적으로 몽유록 기본구조를 갖춘 작품이다. 대화나 문답만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무치생의 질문에 금태조가 답하는 방식이다. 문답의 내용이 당대 역사와 현실을 문제 삼고 있어서 문학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자강 사상과 현실주의적 작가 사상을 계몽하기 위한 해설서적인 작품"⁶²⁾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禽獸會議錄』은 꿈을 통해 금수의 입을 빌어 인간에 대한 작가의 비판 정신과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작품은 특히 금수들이 주인공이 되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에 대해 그 인간성 상실과 타락을 비판한다. 몽유자인 작가(관찰자)가 꿈 속에서 보고들은 인간성토회 장면을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구성미러몽』과 『聖山明鏡』은 위의 작품들처럼 몽유록의 기본구조는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두 작품의 구조는 매우 유사하며, 몽유록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작품 내에 마련되어 있다. 『지구성미러몽』은 입몽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또 후반부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 연재가 중단되어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우세자가 홀연 수미산에 당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前略) 십 리 빅 리 천 리를 덩쳐업시 돈다가 한 곳을 다다르니 산명슈려 더 동턴이 별유턴디비인간이라 폭포슈는 빅몽포가 둘러 잇고 무림슈죽은 청포장을 둘러 잇는디 우느니 임무 원앙이요 조으느니 노루 사슴이며 춤추느니 빅학이요 귀화요초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바이라 (中略) 그 중이 합장하여 공근히 답례하고 날으던 쇼승의 칭호는 원장법스이라 호읍는디 지금 총령을 넘어 천

61) 박은식(1911), 『夢拜金太祖』, 新文館, p. 5 및 p. 60.

62) 윤명구(1986), 앞의 책, p. 36.

리 정회를 지나 이 곳에 왔거니와 이 산은 우리 불가의 유명한 슈미산이라 선상은 뉘신지 엇지 이곳에 니르시뇨 (대한매일신보, 1909. 7. 15~16)

슈미산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의 한가운데 높이 솟아있다는 산으로, 이상향이며 상상의 산이다. 즉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이다. 슈미산이 가상의 현실이며 공간이기 때문에 작중인물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슈미산에 이른다 것이 꿈의 세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현실 공간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상 공간에서는 가능한 법이다.

이 작품이 신문에 연재되다가 중단되어서, 다시 현실 공간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장면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천상계에 올라가 '해월존자'와 만나 인사를 나누는 장면까지만 연재되고, 그 다음은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완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상계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야만 이야기 전개상 전후가 맞는다. 그런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것이라 생각된다. 천상계와 지하계를 자유로이 왕래하는 원장법사와의 대화에서는 현실 세계와 격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과 격절된 세계에서의 대화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울분을 토로하기에 알맞은 기법이라 할 수 있다.

² 峯山明鏡에서는 입몽 과정은 없고, 후반부에 가서 각몽 과정만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의 서두에서 강남 사람이며 유교를 대표하는 진도가 성산의 '영대(靈臺)'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성산'은 「지구성미러몽」의 슈미산과 성격이 매우 비슷한 산이다. 작품에 '별유천지비인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선경이며 상상의 산으로, 현실적인 공간이 아니다. 이 산에 먼저 도착한 진도에 이어 불교의 원각스님, 도교의 백운도사, 기독교의 신천옹이 차례로 당도하여 서로의 교리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와 같이 입몽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현실 공간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토론이 전개된다. 토론 끝에 기독교의 교리가 가장 우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 가서는 각몽 과정이 나타나 있다.

오경턴五更川 찬바람에 황계성黃鷄聲이 악악⁶³ 울거늘 놀나 니러나니 일장
몽조가 가장 이상한지라 서안을 의지하야 특특히 생각하며 스스로 허몽하디 성
산은 곳 맞는 자의 몸이오 령터는 곳 맞는 자의 몸이라⁶³)

63) 최병현(1909), 앞의 책, p. 80.

인용문에서 각몽 과정이 제시되고 나서 '성산은 믿는 자의 몸이요, 영대는 믿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성산이나 영대 둘 다 신령스러운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닌 것이다. 성산과 영대가 믿는 자들의 '몸'이며 '마음'이라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입몽 과정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꿈 속에서나 유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구성미러몽」의 수미산과 다르지 않다. 현실과 단절된 상상의 공간에서 여러 종교에 대한 선악과 시비를 토론하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을 몽유록 기본 구조에 따라 표로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 6> 夢遊錄의 基本構造

작품명	인몽	夢遊		覺夢
		主體者	客體者	
禽獸會議錄	○	我(사람)	禽獸	○
夢見諸葛亮	○	蜜啞者	諸葛亮	○
지구성미러몽	無	우세즈	원장법스·히월존즈	중단
聖山明鏡	無	신탄옹	진도·원각스님·빅운도사	○
夢拜金太祖	○	무치생	금태조	○

위 표에서 보면 「지구성미러몽」과 『聖山明鏡』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입몽 → 몽유 → 각몽'의 기본구조로 되어 있다. 꿈의 세계를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작중인물들의 생각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지구성미러몽」이나 『聖山明鏡』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수미산이나 성산으로, 다시 천상계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역정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특히 천상계에 있는 우세자는 대화와 토론을 마치고 어떤 해법을 찾은 후 다시 지상계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야 하는데 『聖山明鏡』과는 달리 「지구성미러몽」은 미완으로 끝난 작품이기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몽유록과 유사한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몽유록의 출발은 원래 지식층의 문학이었다. 그 제작 동기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국가 수난기의 민족적 울분, 사회 혼란기에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자유자재

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장치였다. 그래서 '꿈'이라는 비현실적 장치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와 시대적인 고민을 많이 반영하게 된다. 특히 언론 통제 등 외부적 제약이 심했던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을 '꿈'이라는 장치를 빌어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2) 寓 話

우화는 원래 서민들의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대개는 서민들의 일상적·현실적 삶에 대처하는 지혜나 교훈을 주기 위해 창작되고 전파되어진다. 따라서 그 지혜나 교훈은 철학적·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것들이 많다.

통념에 따르면 우화는 '운문체 또는 산문체로 된 짤막한 윤리적 이야기'를 뜻한다. 그 속에 등장하는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들의 형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재치 있고 예리한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 속에 주로 길짐승이나 날짐승 등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개는 동물 이야기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식물과 자연 현상이 대상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인간이나 신들도 나온다. 그들을 통해 인간적인 상황과 인간 행위의 규범들이 묘사되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인간적인 성격의 측면이 일정한 인습에 의거하여 동물들에게 투사되는데 그 분위기는 현실적(realistic)이며, 반어적(ironic)이고, 때로는 풍자적(satirical)이기도 하다.

동물을 의인화한 서사물은 인도의 『本生說話』, 그리스의 『이솝우화』, 壯者の 『寓言』을 비롯하여, 중국 명대의 『三友傳』, 프랑스의 『고양이 이야기』, 일본의 『나는 고양이로다』, 영국의 『동물농장』 등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뿌리 내려진 우의적 서사의 한 형태이다.⁶⁴⁾

동물우화의 소설화는 이미 존재하는 장르종의 변형 및 조합으로 발생한 장르 순위의 이동에 따른 변화로 생성된다. 이러한 동물 우화의 소설적 진전은 설화의 소설화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화 기법을 도입한 토론체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을 좀더 적극적으로 폭로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 기법이 원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내용의 강렬함을 작가 스스로 의식하고 이의 첨예한 반응을 다소나마 둔화시키려는 의도적인 우회 수법”이라고 보기도 하고, “한 개의 미물에 지나지 않는 금

64) 김재환(1994), 『한국 동물 우화소설 연구』, 집문당, p. 12

수의 발언을 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⁶⁵⁾고 보기도 한다. 곧 작가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계획된 의도에서 이 기법이 운용되었다고 보는 셈이다.

동물우화소설은 이미 우리의 고소설에서 세상을 비판하는 수법으로 차용되어 왔다. 신라시대 설총이 지은 『화왕계』를 비롯하여 고려 말엽에 가진 형식의 작품이 있다. 동물을 의인화한 것으로 『청강사자현부전』, 『무장공자전』 등을 비롯하여, 『장끼전』, 『토끼전』, 『두껍전』, 『까치전』 등 작가와 연대 미상의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는 가탁을 통해 인간 행위의 규범을 예시하여 도덕적 윤리적인 효과를 달성하려는 교훈적 서사 형태이다.

개화기 단형 서사 문학 가운데에서 우화 양식으로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그리스도 신문》 1897년 5월 7일자에 실린 「코끼리와 원숭이의 이야기」로 보인다.⁶⁶⁾ 그후 개화기 토론회 소설 중에서 우화 기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禽獸會議錄』⁶⁷⁾과 『警世鍾』이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⁶⁸⁾ 당시 언론이 심하게 제약 당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을 등장시키는 우화 기법을 선택했다.

이 작품들은 각각 1908년과 1909년에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이며 인간의 사악함이나 우행을 폭로하는 강한 고발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의 전개 방식은 모두 회의 속에서 전개되는 연설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두 편 다 인간은 숨어서 동물들의 토론회를 방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禽獸會議錄』에는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이 때문에 1909년 5월 5일 치안 방해죄로 압수되기도 했다.⁶⁹⁾ 이 작품에서는 침략주의에 대한 분노, 몰주

65) 송민호(1975), 앞의 책, p. 216.

66) 『한국근대문학연구자료집 1』(1987), 삼문사, pp. 146 ~ 147.

67) 김윤식은 이 작품을 과잉된 ‘사회 비판을 우화의 방법으로 위장하면서’ 작가 안국선의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演說法方』의 속편 혹은 통속적 적용이라고 하였다.(김윤식·김현(1973), 『한국문학사』, 민음사, p. 104.)

68) 이 작품들과 비슷한 유형인 동물 우화로 송완식의 『蠻國大會錄』(1926)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돼지, 양, 파리, 소, 술개, 고양이, 벌 등 21종의 동물들이 연사로 등장하여 불효, 잔인성, 침략주의, 성문란, 불평등 등 주제가 구현된다. 등장하는 동물의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 외에는 『禽獸會議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禽獸會議錄』의 아류이거나 증보판일 가능성이 짙다고 한다.(조남현(1987), 앞의 논문 p. 133 참조.) 그리고 토론회 소설은 아니지만, 개화기에 발표된 우화 기법을 사용한 작품들은 이 외에도 민현식의 『蠅笑密錄』(1908. 2), 육정수의 『蝶腐의 子』(1908. 4), 무서명의 『水蛇와 蜂의 同盟』(1912. 2) 등이 있다.

69) 1909년 12월 언론 탄압에 의거 『禽獸會議錄』 203부가 압수되었다.(김윤식·김현(1973), 앞의 책, p. 105.)

체성에 대한 질책, 국가의 경륜 미흡, 인간 본연의 추악상 등을 연설의 주제로 택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비판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경계한 것과 일체의 침략 행위를 공격하는 반제국주의적·반외세적인 내용이다.

반면에, 『警世鐘』에서는 물자의 허비에 대한 비난, 재판관들의 비리 사실 폭로, 신의를 지키는 생활, 문명과 종교 교육, 사치에 대한 경계 등 인간의 도덕·윤리적 타락을 비판한 내용을 주로 하여 다분히 기독교적 청렴주의에 경도되어, 그만큼 반제국주의적·반외세적인 주제의 표현은 미약하다.

개화기 서사 문학 중 토론체 소설에서 이 우화 기법을 이용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조리한 현실과 사회에 대한 저항 정신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제약요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작가로서는 어쩔 수 없는 회피의 수단이며, 사회에 대한 의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사회적 소산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화 기법을 사용한 소설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창작되는 것이며, 그 의도의 방향에 따라 사회를 수용하거나 비판하는 강한 교훈적 목적이 노출된다. 때문에 동물우화는 환상적 상황을 제시하여, 그 속에서 인간 동기에 의해 자극된 동물들이 인간처럼 말하게 된다.

이 환상적 상황은 이야기 세계의 현실적 기본 규범들이 갑자기 현실과 정반대로 회전하여 역전될 때 경이로운 느낌을 연출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로부터 일탈해 비합리적이며 기상천외한 상상력의 작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마치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물우화 형식의 작품에 나오는 동물들은 어떤 인간 유형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들이 마련한 도덕이나 윤리의 잣대로 제어 인간성의 규범 일탈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토론체 소설 중에 동물 우화 기법을 사용한 작품들은 당대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풍자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의식 개혁을 전제로 하여 인간 심성의 결함과 당대 사회의 모순, 부조리, 부도덕·반윤리적 행위를 비판한다. 또 군국주의자의 침략 행위 앞에 우리 민족의 잠재된 울분을 동물의 입을 빌어 토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사회상과 인간관이 어느 시대보다 적나라하게 노출된 인간 사회의 풍속도라고 말할 수 있다.⁷⁰⁾ 이 두 작품에 나오는 인성 비판과 관련된 금수들을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70) 김재환은 개화기 동물우화 소설들이 가지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① 소설 형식 면에서 볼 때, 대부분 구성이 없는 토론체 소설이다. ② 전고 및 속담과 격언, 사례와 일화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③ 주제 의식의 파악이다. ④ 전대의 동물우화 소설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김재환, 앞의 책, pp. 242 ~ 250 참조.)

<표 - 7> 人性批判과 관련된 禽獸

作品名	禽獸	德目	人性批判
禽獸會議錄	가마귀	孝道	不孝·不實
	여호	守分	僞善·奸邪·淫亂
	개고리	正直	傲慢·阿諛
	벌	勤勉	懶怠
	개	率直	惡行
	파리	友情	無信·小人輩
	호랑이	義理	苛政·貪官·物慾·暴惡
	원앙	節概	毀節·善妾·淫亂
警世鍾	스슴	順從, 報恩	忘恩
	원숭이	公正	不公正
	가마귀	正直	橫領·貪慾
	계비	清廉·信義	沒廉恥·不信
	울맹이	開化(宗教·教育)	未開化(完固·守舊)
	고순도치	保護本能	二重性(表裏不同)
	박쥐	中立	阿諛·讒訴
	공작	守分	奢侈
	나뽀	仲媒者	好色·淫亂
	개암이	勤勉·貯蓄	怠慢
	자벌레	進步·測量	我執·利己心
	라귀	職分에 充實	不誠實
	깡가루	子愛	未婚母·私生兒 遺棄
	호랑이	虎死留皮(教訓)	貪慾·忍耐心 缺乏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작품에 인용된 동물들은 대부분 우화에 자주 나타나는 동물들이다. 여우, 호랑이, 캥거루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승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이 표방한 덕목은 해당 동물이 지닌 속성이나 특징을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인간의 행위 규범에 비추어 본다면 다름 아닌 생활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상적인 덕목들이다. 인간들이 기본적 생활 규범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동물들에 의해 인성이 여지없이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위 표의 '덕목'과 '인성 비판' 항목은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일상적인 삶의 지혜를 일깨워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마저 존중되지 못했던 당대 사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 작품들은 언론 통제가 가중되는 당시 상황에서 논설을 대신하여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개혁 의지나 국가의 주권 회복 등을 우화 기법을 통해 한층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3) 諷刺

풍자(satire)는 그 어원이 'satura'로 '혼합', '잡탕물',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이 혼합되어 가득 담긴 접시' 등을 뜻한다. 그만큼 그 형식이나 내용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개인과 사회의 어떤 모순이나 불합리에 대하여 조롱이나 멸시, 분노나 증오 등의 감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비판·고발하는 양식이 풍자이다. 따라서 풍자에는 언제나 그 대상이 존재한다. 대상은 개인일 수도 있지만 사회나 국가 권력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어떤 사실이나 상황, 가치 같은 것도 포함된다. 풍자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나 모순을 지적하거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사악함에 대한 징벌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풍자에는 작가가 의도하여 교정의 대상으로 삼을 주장이나 가치, 사실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작가가 의도한 사실과 가치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 여러 장치들을 가지게 된다. 이에 는 기지(wit), 반어(irony), 냉소(cynicism), 욕설(invective), 조롱(ridicule), 야유(sarcasm), 비꼼(sardonic) 등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대상의 어리석음이나 사악함에 대한 징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풍자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태도에 근거를 두고 성립되며,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를 정면으로 맞서서 비판할 수 없을 때 측면 또는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한 방법이다. 그것은 흔히 해학과 결부되는데, 풍자의 웃음이 공격성을 띠는 데 반해 해학의 웃음은 연민과 동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풍자는 삶을 백안시하거나 냉소해 버리지 않는 점과 야유, 조소로만 끝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적 모순과 불합리를 개선·시정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결국 풍자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관적 골계⁷¹⁾의 하위 개념으로 동시대 사회

71) 골계는 주관적 골계와 객관적 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대상 자체에서 골계가 일어나는 것으로 대상의 성격 혹은 환경 등이 중시되는 반면, 후자는 작가가 대상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방법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작가의 표현 즉 언어와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이를 도식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지원(1983), 『풍자와 해학의 문학』, 문장사, pp. 28 ~ 29)

나 인간의 부조리와 악폐를 개선하고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가치나 윤리의 허위를 폭로하고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부터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고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표상한다.

작가가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국가 사회나 인간 생활의 불합리와 부정에 대해 이를 폭로 비판하고 싶지만 직설적인 방법으로는 곤란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개인과 사회의 악폐, 결함, 우행, 악덕 등 직접 표현이 불가능한 현실을 풍자적 수단에 의하여 지적하여 비꼬고 조소하며 공격하는 것이 바로 풍자다. 또 다의어의 구사나 동음이의어의 활용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편(pun)은 말로 재주를 부리거나 익살을 떠는 것으로 말을 갖고 놓하는 것”⁷²⁾을 말한다. 언어유희나 익살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회화화함으로써 역으로 풍자가 성립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작품으로 「거부오허」,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病人懇親會錄」, 「絶纒新話」, 「禽獸會議錄」, 「警世鍾」 등이 있다.

먼저 「거부오허」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품에서 지은이의 의도는 인력거꾼의 무지를 드러내어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력거꾼의 무지와 오해를 통해 당시 지배층에 대한 풍자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력거꾼은 자신의 무지를 빙자해서 ‘정부조직’을 ‘정부조집’으로, 조직을 ‘싼다’를 ‘착취’의 의미로 짐짓 오해한다. 또 ‘施政改善’을 ‘市井改散’, ‘統監’을 ‘通鑑’으로 오해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행이 잘못되어 감을 언어 유희에 가까운 회화화를 통해 현세대를 풍자한다.

이 작품은 당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 문제를 토대로 하여 문학이라는 허구와 결합시킴으로써 소설화되어 있다. 특히 비뚤어진 정치적 상황과 정책 수행을 바로잡기 위해 언어적 풍자의 방법에 의존했다. 작가는 신분이 낮고 무지한 한 인물을 등장시켜 그가 빚어내는 오해와 납득의 과정을 통해 자기가 의도하는 바 내면적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그 무지한 인물의 오해가 “그더가 진짓 물으고 혼는 말인가 알고도 물으는 체하고 웃노라 혼는 말인지는 알 슈 업스되”⁷³⁾라고 지적해 인력거꾼의 ‘의도적 오해’임을 작품 내에서 밝히고 있다.

참조.)

골계(the comic)- 객관적 골계

주관적 골계 : 풍자(satire), 해학(humour), 기지(wit), 아이러니(irony).

72) 전영우(1991), 앞의 책, p. 220.

73) 「거부오허」, 대한매일신보, 1906. 2. 24.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은 전통적인 소설의 구성 방법에서 빛나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많은 속담과 고사성어들을 적소에 배치하여 풍자소설로서의 골격을 잘 유지하고 있다.⁷⁴⁾ “두 눈이 발근 놈도 학문이 업고 보면 나와 갓흔 소경이오 사지뵈테가 멀정허다 허나 즈유 활동 못하고 보면 즈네와 갓흔 병신이라”⁷⁵⁾에서 볼 수 있듯이 ‘학문’과 ‘자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신체는 온전하나 정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소경이고 앓음뱅이에 다름 아님을 풍자하고 있다. 이들이 볼 수 없고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며, 그러한 상황을 상징하고 제시한 풍자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부패한 인간성과 불합리한 사회의 여러 양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당대 현실에서 소재를 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시대성을 반영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病人懇親會錄』은 제목에 ‘풍자소설’이라고 밝혔듯이 병인들의 발언을 통해 인간 세태를 풍자한 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병인들이 등단하여 연설을 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연설은 모두 신체 정상인들의 부정한 행위와 정신적 불구 상태에 대한 비판이며, 실속 없는 인간형의 한 양상을 풍자한 것이다. 신체적 불구보다 정신적 불구인 인간들을 조소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중이 다시 정숙헌대 귀머거리가 여전히 연단에 놓혀 서서 낫칠 줄 몰고 말을 한다 세상 사람들이 귀먹은 사람을 웃고 조롱하나 불되다마는 자괴들 귀 밝아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오 비밀 운동이나 협잡 사건이나 쥬쥬야야로 슈군거리는 말을 데일 잘 드러 제 집 패하고 제 나랏가지 결단내는 그 귀 찰아리 결벽 갖치 어두었으면 저 하나만 병신으로 지낼 짜름이지 집에나 나라에는 아모 해가 맞치지 안이 홀 것이오……근일 각 사회를 대강 구경헌즉 정직한 일에는 귀가 어둡고 허탄한 일에는 귀가 밝으며 청년 자대들을 살피본즉 학문에는 귀가 어둡고 계집 노름에는 귀가 밝으나 그 귀들 다 두엇다 무엇에 쓰잔 말이오 이와 갖치 여러 말삼하기는 결코 나의 귀 어둔 것을 스사로 놓혀 말삼이 안이오라 일반 우리 동포들의 밝은 귀를 어둡게 쓰는 일을 개탄홈이올시다.

(대한민보, 1909. 9. 14~23)

위 인용문은 여러 병인 중 귀머거리가 등장하여 귀가 멀쩡하지만 학문이나 옳은 일에는 ‘밝은 귀를 어둡게 쓰는’ 정상인들의 행태를 비판한 내용이다. 인용문에는 생략

74) 조남현(1987), 앞의 논문, p. 101.

75)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대한매일신보, 1905. 12. 10.

되었지만 귀머거리 중에서 올바른 행실을 했던 훌륭한 역대 인물들을 낱낱이 들고 이를 근거로 제시하여 신체는 정상이나 행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비꼬아 풍자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각 병인들은 자신의 신체불구 내용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왜곡된 시각에 대한 비분을 토로한다. 그 다음 자기들과 동일한 신체적 장애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극복하고 뚜렷한 역사적 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당대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초래케 한 정부 대신들의 부패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했다. 정상인들 특히 정부 대신들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그들이 바로 정신적 장애자들이라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이다. 인간과 사회의 정신적 건강성 회복을 목표로 한 이 작품은 특히 장애인들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이중의 효과를 얻고 있다. 정상인들게 대한 공격성과 동시에 장애인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풍자와 해학이 잘 조화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節纓新話」는 '골계소설'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되었던 작품이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끝맺는 부분까지 줄곧 몰락한 양반 선님과 상놈 덩병이가 풍자와 해학적 대화로 시종일관하면서, 당시 신분 제도에 대한 문란함을 덩병이의 눈을 통해 양반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복촌 ○ 판서 ○ 참판 ○ 승지 ○ 관찰이 무엇으로 그러케 되었습닛가 복묘
에서 혼턴둥디 혼턴 진령군의 아달 오래비 손자 노릇을 하고 그 모양으로 슈가
났고 ○ 대신 ○ 협판 ○ 국장 ○ 군수는 무엇으로 그러케 되었습닛가 삼천동
유소문헌 슈련의 아달 오라비 손자 노릇을 하고 그 모양으로 슈가 낫스니 선님
게서도 굿다워 하나를 차차 보시고 아달이 되던지 오라비가 되던지 손자가 되던
지 창피한 것 생각말고 눈 한번 쓱쓱 하십시오 그러

(대한민보, 1909. 11. 23)

실력보다는 세력가와 혈연적으로 결탁해야만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던 당대 현실에 대한 하층민의 야유이며 조롱이다. '○ 판서, ○ 참판, ○ 승지, ○ 관찰, ○ 대신, ○ 협판, ○ 국장, ○ 군수' 등의 예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런 경로로 출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것이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놈 덩병이의 입을 통해 세력가와 비정상적으로라도 관계를 맺어 벼슬길에 오르려고 하는 세태를 직접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문학은 어떤 형태이든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마련이지만 풍자의 속성 때문에 이 기법을 사용한 작품은 다른 어떤 종류의 문학보다 현실과 밀착되게 마련이

다. 따라서 개화기 토론회 소설 전반에 걸쳐 엿보이는 현상으로 그 내부에는 해학과 풍자가 곁들여 있는 작품이 많다.⁷⁶⁾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 8> 諷刺方法과 內容

작품名	諷刺方法	內 容
거부오학	反 語	일제의 압제에 대한 반항 의식을 언어적으로 풍자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反 語	학문 없고 자유 활동 못하는 자가 진짜 소경이고 앓음 뱅이임을 풍자
病人懇親會錄	反 語	악을 행하는 정신적 장애자가 진짜 장애인임을 풍자
絶纒新話	嘲 笑	몰락한 양반 샌님을 상놈 덩벙이가 조롱하며 당시 신분 제도의 문란함을 풍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토론회 소설은 그 양식 자체적인 특성대로 인간과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다른 갈래에 비해 폭넓게 수용되어 있다. 또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주제에 적절한, '의도적으로 선택된' 인물을 설정하여 그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실정은 일제에 의해 언론 및 사상 면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 구조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담당한 양식이 토론회 소설이라고 생각된다.

사회 체제나 가치 체계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사회적 격변기에 풍자의 정신은 특히 빛을 발한다. 당대 현실의 허위를 공격하고 지배층의 가혹한 정치와 탐학, 무능을 비꼬는 이 풍자 정신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토론회 소설이 주로 대중적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며, 서민들의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담고 있다는 점도 이 시기 서사 양식 중에서 매우 가치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서민들의 어려운 삶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들의 시각에서 본 고발이나 비판이라는 풍자 정신을 온전하게 살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웃음이라는 해학의 뒤에 숨어서 강력하게 암시하는 고발과 경계, 비판으로 하여 풍자 기법은 다른 기법에 비해 주제 전달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토론회 소설은 현실적인 문제를 좀더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 방편으로 풍유록, 우화,

76) 개화기 토론회 소설 중에서 「禽獸會議錄」과 「警世鍾」은 우화 기법을 통해 풍자성을 획득한 작품으로 앞의 우화 부분에서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이 곳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풍자 기법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을 이용하지 않고 한 작품 내에서 여러 장치를 혼합해서 사용한 것이 많다. 그리고 이런 기법 외에도 작품 내에 고사성어, 속담, 격언, 서양의 일화 등을 빈번하게 인용함으로써 작품을 읽는 묘미를 더해주고 있다. 또 결말 부분에서 노래류(장탄가, 자탄가, 단가)를 삽입하는 등의 장치들은 토론체 소설의 경직된 논설조로 느껴지기 쉬운 점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해 주고 읽는 이로 하여금 재미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 主 題

개화기에 발표된 토론체 소설은 대부분 강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쓴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강한 주제 의식이란 표현은 개인적인 문제 의식보다는, 국가나 민족 등 집단적이고 대사회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주제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출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다. 토론체 소설은 개화기에 발표된 여러 양식의 문학들보다 목적성 내지 작가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작품들이 많다. 이를 작가 의식에 따라 여러 가지 주제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몇 개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당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시사적인 쟁점 사항들에 대한 토론 및 비판이 강하게 드러난다. 둘째 반봉건을 전제로 한 문명 개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셋째 반외세를 기치로 내세운 국권 회복의 의지가 표출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각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1) 時事討論 및 批評

시사 토론 및 비평이란 그때그때 세상 돌아가는 정세나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비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사 문제를 중심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해결의 방식으로는 대화나 문답, 토론 형식이 채택된다. 이 유형에서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사항은 어수선한 사회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비판·고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나라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그 중에서 정치 면에 대해 비판한 부분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관찰군수 서암홀 계 정치 학문 못지안코 문벌이니 세교이니 들너가며 차출
하고 불학무식 하등 인물 돈을 받고 띠미호야 부임한 후 행정하면 무죄 평민 착
슈하고 횡설수설 가진 죄명 뵈 가지로 얼거니여 스갈의 독혼 희와 사랑의 모진
소리 호령이 추상갓고 악행이 무쌍흔즉 어리석은 어둔 뵈성 일루잔명 보존초로
상평던 하평던과 가장 즈물 방미호야 기천 량 기만 량에 간신히 탈신히니

(『향기담화』, 대한매일신보, 1905. 10. 29)

돈을 들이고 호계드면 벼슬을 스는 것이라 그 벼슬 스가지고 들인 돈 싸이
러 호면 박탈민지 아니코는 홀 슈 업스리니 뵈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을 흔
들면 나라이 위티흔즉 두국 병터 역적이오 만구일담 청원 소리 스랏서도 죽은
모양이니 스흘은 못홀 바라 그런 말 허고 보면 가위 불가스문어 타인일세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대한매일신보, 1905. 11. 21)

대부분 무능한 정부와 탐학을 일삼는 관리들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당
시 국가 기관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시키지 않는 풍토
를 통박하고 있다. 관리를 임용할 때 문벌을 통해서 또는 돈을 받고 매관매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등용된 자는 너나없이 백성들을 착취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세상 물정
에 어두운 백성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게 된 시대적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
이다.

매관매직의 폐해가 개인적 차원의 일이 아니라, 당시에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이 드
러난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진 관료 사회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 원인이 그들 자신의 무능과 무지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관리들의 착취에서 연유한다고 하여 당시 관료들의 부패상을
비판했다.

『禽獸會議錄』에서는 제 삼 석의 개구리, 제 오 석의 게, 제 팔 석의 호랑이의 입을
통해 부패한 정부와 부정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타락상을 고발, 폭
로하였다. 곧 봉당 정치의 폐해와 뇌물과 아첨, 도적질이 난무하는 당시 위정자들의 행
태를 통렬히 비판한 것이다. 그 중에서 게와 호랑이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었던 나라 정부를 보면 색긋흔 창자라고는 아마 몇 기가 업시리다 신
문에 그러케 나물디고 사회에서 그러케 시비호고 뵈성이 그러케 원망호고 외국
사롬들이 그러케 욱들을 호야도 모르는 체호니 이거시 창자잇는 사롬들이오 그

정부에 올흔 마암먹고 벼살흔 사롬 누가 잇소

돈을 밧고 벼살을 내여서 그 벼살흔 사롬이 그 미천을 썸으려고 음흉흔 슈단으로 정스를 까다롭게 혼야 빅성을 못 견디게 혼니 사롬들의 악독흔 일을 우리 호랑이의게 비혼야 보면 몇만 비가 될는지 알 수 업소⁷⁷⁾

‘어떤 나라의 정부’라고 해서 직접적인 예봉을 피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상에 다름 아니다. 서술자는 개의 입을 통해 정부 내에 깨긋한 관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게다가 언론에서 그들의 온갖 행태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아지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조차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탐학의 수단으로 정사를 까다롭게 해서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의 부패상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동물들의 입을 빌어 잘못된 정치 체제와 위정자들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마음으로 벼살하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한 것이다.

『夢拜金太祖』에서도 “貴族家는 但히 政權을 爭奪혼고 民血을 吸收혼야 其身家를 肥澤케 혼 精神⁷⁸⁾”이라고 하였다. 당시 지배층이 오로지 정권 유지와 가렴주구에만 눈이 어두워 백성들의 생활은 염두에 두지 않음을 비판한다. 이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벼살길에 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공격은 『絶纒新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쌀을 길으되 잘 먹이고 잘 넘회여 범백사는 별로 가라칠 것 업시 다만 태도나 나무에서 썸 판 듯혼게 몸을 가지고 아양이나 남의 간을 보통이세 녹이 게 가라쳐 요새로 말혼면 엇던 량반갓혼 유세력혼 대신의 집 머나리로 식집을 보냈스면 고 태도 고 아양으로 무슨 별별 무궁무진혼 조화를 못 부리겄너

(대한민보, 1909. 10. 19)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딸을 두고, 그를 잘 키워 세도가에게 출가시켜 출세해 보겠다는 발상은 위정자나 지배층에 대해서 보통 회화화가 아니다. 몰락한 양반 선님은 조카딸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시도하고, 상놈 덩병이는 아들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정치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의 피폐한 시대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의 강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는다.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에서 일제의 화폐 교환 정책으로

77) 안국선(1908), 앞의 책, p. 31 및 p. 40.

78) 박은식(1911), 앞의 책, p. 25.

인해서 피폐해진 경제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다.

돈이 극귀하여 그릇치 신화 한 푼 얻어 보기는 하늘에 별따기요 구화조차
구경할 슈 업스니 어느 결을에 슬먹을 슈 잇스며 먹은들 취할 슈 잇겟나 그 전
에는 니가 문슈 소리를 질르고 도라다니면 이집 저집에서 불너들려 하로 못버러
도 삼스십 량이더니 근일에는 다리에 가락토시가 셔도록 단여도 슈스 푼을 구경
치 못허니 춤 살 슈 업서
(대한매일신보, 1905. 11. 17)

새 경제 정책이라 하여 일제는 화폐 개혁을 주도했다. 기록에 따르면 일제는 1905년 1월 18일 신화폐조례를 공포하고 그 정리 사업을 실시했다. 그 해 7월에 접어들자 신·구화 교환으로 금융난이 심각해져 종로의 상가가 철시 상태에 빠지게 되자 상인들의 항의 시위와 상소가 이어졌다. 이 작품이 같은 해 11월에 연재된 것으로 보아서 화폐 개혁으로 크게 고통받는 민생 문제를 직접 거론하여 비판한 것으로 생각된다. 화폐 제도의 근대화를 통해 건전한 통화 제도를 구축한다는 미명하에 진행된 신·구화 교환 사업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

이 화폐 개혁은 우리에게 대한 일제의 경제적 침탈을 용이하게 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되었다. 그 결과로 우리의 경제적 현실은 파산할 지경에 이르러 서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신화 한 푼 얻어 보기는 하늘에 별따기요 구화조차 구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궁핍상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이다.

한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정책도 의세 의존이 아닌 자국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부국강민 정책을 타국에 의지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 그들에게 이익을 주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점점 침체될 수밖에 없음을 「時事問答」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저 구미 각국으로 말하계드면 무론 무슨 스업이던지 나라에 유익하고 인민
의게 편리하도록 어더까지 연구하야 가며 경영하논 고로 민국 간에 방허됨이 업
시 점점 부강하논 데로 나아가 그 델로갓흔 것도 니 나라 토디에 니 나라 인민이
부설하야 영업하논 것인즉 지금 만국이 통상하논 판에 한 푼이라도 외국인의 돈
이 니 나라 지방에 찌러질 터이지 내 나라 돈을 남의 나라 스람이 가질 묘리가
업서 점점 부국강민이 된다 하려니와 우리 나라 형편은 그러치 못하야 남의게
기지도 빌니고 심지어 물지와 역부까지 빌니여 가며 리익을 만들어 주니 무엇이
내게 리롭다 하리오
(대한매일신보, 1906. 3. 11)

철도의 건설은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자국민의 힘으로 부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데 우리는 '일제에 기지, 물자와 역부까지 의지하니 나라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한다.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자국의 노력에 의한 상품의 생산과 소비로 국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 것이다.

「거부오회」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당시 정치적·경제적 현실의 모순이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각된다. 특히 “내 것은 흉하다 하고 남의 것은 조타”⁷⁹⁾는 식으로 남의 것이면 무조건 좋다는 식의 사고는 이미 가치 판단이 내려진 자기 비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심지어 밟고 다니는 지팡이까지도 외제를 선호하는 작태는 정신적·물질적으로 사대주의 사상에 찌들어 버린 데 대한 비판이다.

다음은 사회적인 측면의 문제를 비판한 것으로 아래 인용문은 「病人懇親會錄」의 일부분이다. 내용은 서양 각국이나 중국·일본에서는 장애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특별히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시킨다고 하였다. 또 그들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하며, 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그러한 제도 및 법적인 혜택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살길이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더 서양 문명촌 나라에는 우리 갓흔 병인을 위하야 각색 병인원을 설립하야 지식을 넓히어 주노라고 학교도 설립하고 생계를 붓잡아 주노라고 실업도 장려하거날 우리 나라에는 보통 병신들은 고사하고 맹아원(盲啞院) 한 곳도 이즉 업스니 이갓치 풍조(風潮)가 위험하고 경쟁(競爭)이 극렬한 시대에 장차 두 손을 묵고 죽기를 기대림이 가홀순가 (대한민보, 1909. 8. 20)

서양 각국에서는 우리 갓치 암 못보는 맹인을 위하야 특별히 학교를 설립하고 지성것 교육을 하야 너너히 생활할 방침이 잇도록 하여 주거니와 우리 나라에서야 눈쁜 놈도 상당흔 학교가 아즉 갓초 잇지 못하야 가라치지 못하노대 언의 겨를에 눈쁜 놈 가라쳐 보겏소 동양으로 말하노대도 지나에서는 음악을 배오게 하얏고 일본서는 암마법으로 생애케 하거날 우리 나라에서는 한갓 경문이나 일거 버러먹는대 그남아 못해먹고 살나고 엇던 사람은 비방하기를 눈쁜 놈이 눈쁜 놈 속이러 단닌다고 하니 그 안이 원통흔 일이오 (대한민보, 1909. 10. 5)

문학 작품 속에서 장애인들에게 특수 교육의 필요성과 그들의 복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예는 그리 흔하지 않다.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표명된 것을 개화기라는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상당히 진전된 생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와 편리한 시설들이 마련

79) 「거부오회」, 대한매일신보, 1906. 2. 28.

되어야 함을 드러낸 곳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생계 수단이 되는 점화주는 일조차 비방하여 '눈먼 놈이 눈뜬 놈 속이러 다닌다'는 정상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은 그들을 더욱 더 절망하게 한다. 이 작품에 대해 “우리 문학사상 최초로 신체 장애자의 생존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한 것”⁸⁰⁾으로 보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우리 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은 『夢拜金太祖』에서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사람이 세상에 나서 어릴 때 처음 배우는 책이 중국의 사략이나 통감 같은 것뿐이어서 교육이 근본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교육받은 그들은 성장해서도 정작 알아야 될 조선의 역사는 모르고 중국의 역사만 알게 된다는 무치생의 주장에 대해 금태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然則 朝鮮人民의 精神이 自國歷史는 無하고 他國歷史만 有하니 是는 自國을 愛치 안코 他國을 愛함이라 此로써 觀하면 千餘年來에 朝鮮은 但 形式上 朝鮮뿐 이오 精神上 朝鮮은 其亡이 已久호얏도다 初學의 敎科가 如此호즉 幼穉에 腦髓 中에 奴隸精神이 根柢가 되야 平生 學問이 皆奴隸學問이오 平生 思想이 皆奴隸 思想이라⁸¹⁾

우리 국민의 뇌리에 타국의 역사만 박혀 있으니, 그런 정신 상태에서는 애국심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사 이래로 우리의 정신이 지나주의에 함몰되어 있어, 자주 정신이 확립되지 못함을 개탄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민족의 자강자립 정신이 배태되지 못하여 타국에 의존하는 노예 근성이 교육과 학문 연구 풍토의 폐해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민족사관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즈유종』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사대주의의 폐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상에서 2인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등장하여 시사적인 문제들을 토론 및 비평하는 것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모두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 내지 시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이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국이 그릇됨은 국민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정권 담당자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도출된 문제로 보고 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의 올바른 정치 의식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또, 국가의 부강을 위해서는 우리

80) 권영민(1987), “대한민보의 애국계몽소설”, 『개화기문학의 재인식』, 지학사, p. 279.

81) 박은식(1911), 앞의 책, p. 16.

의 역사와 글을 배워 국민 주체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한 것이다.

2) 文明開化

토론체 소설이 아니더라도 개화기에 생산된 소설들 대부분은 '개화'를 주제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하는 작품들이 많다. 심지어 소설 내에는 전근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제목만은 근대 물질 문명을 반영하는 용어를 선정해 쓰기도 했다. 이렇게 당시에 '개화'라는 것이 유행어처럼 사용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거대한 조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개화에 대한 이러한 의식과 열망은 토론체 소설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작품 내에서 직접 살펴보기로 한다.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개화 의지는 봉건 정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반민족적 외세에 대한 저항 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다음 인용문에 그대로 나타난다.

지금 세계는 참 위황찬란한 세계라 우리들의 고루한 소견으로는 엇더타 형 언홀 슈 업거니와 만국통상 약조하야 티서 각국 사롭들은 천만 리뿔 지척으로 만리 타국 나와서도 거쳐 범빅 의복 제도 문명국인 괴상이오 언어 행동 처신 범 절 자유 권리 배양하야 약한 티도 아조 업시 텃지간에 오유하야 학문으로 업을 습고 신의로 근본 습아 인국지심 사람마다 잇것마는 우리 대한 정부 관리 학문이 무엇인지 신의가 무엇인지 인국이 무엇인지 도모지 불계하고 복 중에 가득한 경륜리육 일관뿐이로다 (『항기담화』, 대한매일신보, 1905. 10. 29)

지금 판세를 감아니 보면 기화니 문명이니 혼다고 머리는 잘덜 짝나보데마는 속에는 전판 완고의 구습이 가득하여 것호로는 엇지 기명 진취의 뜻이 잇는 듯 허나 실상은 잠을 찌지 못하여 길에 단이는 자들이 말장 코를 끌고단이니 비 유컨더 고목남기 것흔 성허나 속은 쯤이 먹어들어가는 모양이라 참 것기화라 홀 만허여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대한매일신보, 1905. 11. 23)

이왕에 그것 저것 없슬 썩에는 우마와 교군으로 화륜거와 던거를 더신희고 들길음과 소길음으로 석유와 던괴등을 더신희고 나제는 히 그림즈와 밤에는 달 과 소리 등속으로 시계와 즈명종을 더신희앗스니 (『時事問答』, 대한매일신보, 1906. 3. 16)

세계 각국은 벌써부터 개화에 힘써 문호 개방 정책을 통해 문명국이 되어 있고 문명국의 기상, 언어 행동, 처신 범절, 자유 권리를 배양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고루한 소견을 가진 우리의 정부 대신들은 문명국으로 도약을 위한 노력이나 애국보다 자기 이익에만 급급한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또 외양으로만 보면 개화가 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고목이 겹은 성하나 속은 짐승어 들어가는 형국으로 묘사된다. 국민들의 개화에 대한 진지한 열망과는 달리 지배층의 피상적인 문명 개화의 실상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개화가 실속있는 진정한 의식의 개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다. 즉 정신적인 개화는 요원한데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서구의 근대 문물을 그대로 수용하여 외양만 번지르르한 물주체적이고 피상적인 개화 의식에 대한 비판이다.

『금수회의록』에서도 그릇된 외래 지향성과 잘못된 개화 의식을 강하게 논박한 부분을 볼 수 있다.

님군을 속이고 나라를 해치며 뵈성을 위협하야 지물을 도적질하고 벼살을 도둑하야 기화하얏다 자칭하야 양복 입고 단장 잡고 권연 물고 시계 차고 살죽 경 쓰고 인력거나 자행거 타고 제가 외국사롱인 테하야 제 나라 동포를 압제하야⁸²⁾

이는 “외형과 내면이 부합되지 않은 과도기 형태”⁸³⁾의 형식적인 개화를 한탄한 내용이다. 진정한 개화란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 부분이다.

여성들이 토론을 통해 개명된 독립 국가의 의젓한 국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회복할 날을 염원하는 내용은 『즈유중』에도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는 개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및 재배 문제 등을 내용으로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⁸⁴⁾

또 『天中佳節』의 주된 내용은 세계의 개명 부인이 되자는 취지 하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활을 위한 방편으로 교육이 중요함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警世鐘』에서는 우리 아시아 문명이 몇 백년 전에는 서양보다 앞섰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서양의 유럽이나 아메리카가 문명 개화가 되어 우리 나라를 능가하

82) 안국선(1908), 앞의 책, p. 23.

83) 송민호(1975), 앞의 책, p. 182.

84) 성현자는 이 작품과 중국의 『黃龍球』의 관련 양상을 표제, 주제, 인물 유형 등에 대해 비교 연구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주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성현자(1985), “신소설에 미친 만청소설의 영향”,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pp. 125~129 참조.) 이 작품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가 되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함을 역설했고, 이를 통해서만 여성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는 전시대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개화 의식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셈이다.

고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완고파와 수구파의 고지식한 말뿐인 개화로 인해 우리 나라는 아직도 캄캄한 밤과 같이 미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을 한탄한 내용이다.

완고이니 슈구이니 하는 자들이 실노 답답히요 이 세계를 비교하야 보면 몇
 십 년전에 유로바나 아메리카나 다 캄캄한 밤과 같이 문명치 못하고 그 때에 아
 세아는 낮과 같이 문명한 빛이 있더니 지금은 유로바와 아메리카는 광명한 낮이
 되고 문져 문명한 아세아는 도로혀 광명한 빛이 있스나 보지도 못하고⁸⁵⁾

『夢見諸葛亮』은 유교적 보수주의에 사로잡혀 당대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던 유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문명에 대한 새로운 사상과 지식의 수용이 절실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문명 개화에 대해 밀아자가 주장한 것은 과거에 '야만'스럽다고 업신여기던 서양 각국이 지금은 문명과 부강을 구가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를 본받아 이제부터라도 재주와 슬기가 뛰어난 인재들을 앞장세워 옛 것을 고치고 새롭게 창조하여 사물의 실질 사업에 힘쓰면 그들을 능가하고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이다.

雖彼 泰西之 野蠻으로도 曾已革新하야 文明富強이 如彼極度에 達하얏스니
 今以堂堂中華之俊乂로 革舊翻新하야 事物의 實業을 服務하고 文字의 浮虛를 棄
 斥하랴면 無過六十年에 歐美를 凌駕하고 世界에 特立이라 하리로다.

故로 開明國 人種은 空文은 不讀하고 小學校 中學校에 卒業한 後 專門課에
 入學하야 實地物理를 通曉하고 實物事業의 利用物品을 極究發明하느니 是以로
 自身自家에 營産營業도 되야 生前富貴도 하려니와 自然히 物品에 從生하는 稅額
 이 國庫로 轉入하야 富強의 材料를 積聚하느니 此는 天然한 公式이오⁸⁶⁾

위 인용문들은 문명 개화와 신교육 제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문명국에는 새로운 교육 제도와 과정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학문을 습득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이 제도화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문명한 나라는 산업과 세금 제도의 개편으로 국가 부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실상을 설명한 것이다. 이는 부강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와 조세 제도의 개선을 통한 개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85) 김필수(1909), 『警世鐘』, 광학서포, p. 28.

86) 유원표(1908), 앞의 책, p. 46 및 p. 57.

「디구성미러몽」에는 우리 나라 사람이 교화에 어둡고 풍속이 어지러운 것을 근심하는 우세자가 등장한다. 우세자는 청년을 교육하고 지사를 권고하고 완고를 경성하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닌 지 몇 해가 지나도 한 사람 깨닫는 자가 없어 정처 없이 다니다가 원장법사를 만나 서로의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는 내용이다. 우리 나라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식지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상을 토로한다. 근대적 학문과 제도를 익혀 개화되었더라면 국가적 위기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의 낡은 유교적 지식에만 몰두하다가 곤경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또 미신을 숭상하는 허황한 책들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된 인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그러한 책에 현혹된 사람이 많음을 한탄한다.

우세자 | 알 우리 나라는 황희와 일본히 스이에 들출흔 삼천 리 반도국으로 몇백 년 지나에 관계가 잇습을 인하여 텃하대세에 어둡고 또 국민의 지식이 몽미하야 고식지계로만 구차히 지내다가 현금 더 디경이 되엇거니와

(대한매일신보, 1909. 7. 24)

우세자 | 알 그 비귀나 설마는 오히려 혈후호도다 우리 나라 형편은 창졸간에 다 말할 수 업거니와 비귀로 말할지라도 도선비결이니 정감록이니 토정비귀이니 하는 여러 가지 말이 하나도 실디는 업고 어리석은 사람 밋출만 한 책이 몇 권이오

(대한매일신보, 1909. 7. 29)

所謂 上等者流는 麻衣相書이니 紫微斗數이니 地術이니 青囊秘訣이니 하는 術數를 偏恃하야 一家吉凶을 全托而 無他營爲者也 | 오 所謂 下等者流는 巫女之說와 盲者之經에 神堂佛堂과 江鬼山靈의 呪香咀呪로 一身禍福을 全托而 無地思想이온즉 七尺之躬을 猶不能自主獨立하야 半任於術數하고 半任於巫盲者인즉⁸⁷⁾

마지막 인용문은 「夢見諸葛亮」으로 책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서를 읽어야 되는데, 미신이나 구습에 찌들어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비결서 등을 읽고 신봉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한다. 상위층에서는 온통 일가의 길흉을 관상서나 비결서에 의지하고, 하위층에서는 무너의 복과 맹인의 경서를 좇아 신당 불당을 차려 놓고 신명에게 향을 피워 주문을 외는 것으로 일신의 화복을 의탁하려는 당시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상하가 다 길흉화복 운명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토로하고 있다.

「夢拜金太祖」에서 개화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87) 유원표(1908), 앞의 책, p. 63.

大抵 耳目의 聽視와 手足의 運動과 心思의 感覺이 有한 者면 時代의 光景을 察하여 進化의 例를 隨함은 自然한 勢라 現時代의 光景은 生活程度로 言하면 農業이 進야 工商時代가 되고 木屋이 進야 瓦屋石屋의 時代가 되고 交通程度로 言하면 驛遞가 進야 電信電話의 時代가 되고 車制가 進야 鐵軌時代가 되고 競爭程度로 言하면 弓矢가 進야 銃砲時代가 되고 船制가 進야 鐵艦時代가 되고 政治程度로 言하면 專制時代가 아니요 平等時代이며 思想程度로 言하면 崇古時代가 아니요 求新時代라 萬般光景이 此에 適지 못하고난 決코 生存을 不得홀지라⁸⁸⁾

정상적인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의 소유자라면 정치적, 사상적, 과학 기술적 시대 변화의 추세를 깨닫지 못할 리가 없다고 하였다. 세계는 지금 농업 중심 사회에서 상공업 중심 사회로, 전신 전화와 철도 등 교통이 발달하고 교역과 국방 무기 등,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물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결코 생존을 얻지 못하는, 진화론적 자연 도태의 원리를 깨달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에서 문명 개화 의식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계 각국은 개화하여 나날이 발전하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도 미개한 상태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겉으로만 개화 의식을 드러내거나,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개화되지 못하고 타국에 의지하는 현상황을 비판하였다.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자국의 힘으로 개화할 것을 촉구하고 신물물도 우리 고유의 것으로 소화하자고 했다. 달리 말하면 개화로 인한 전통의 무조건적 배격은 지양하자고 했다.

이는 곧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민족적 역량을 신뢰하고 이를 최대한 동원하는 것도 개화의 한 수단이 된다는 논리이다. 외세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개화하자는 의지의 표출과 함께 기울어져 가는 봉건 정권에 대한 매서운 질책이 토론체 소설 대부분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개화'라는 주제에 대해 논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정에서 개화의 시급함을 깨닫고, 바른 개화 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3) 國權回復

당대 현실은 외세 침입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된 상황으로 자주적인 국권 회복 의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었다. 그러한 의식의 반영으로 문학 작품 속에서도 국권

88) 박은식(1911), 앞은 책, p. 13.

회복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 인용문들은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 야욕과 식민 정책을 우리 국민이 올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국가의 주권을 외국인에게 위탁하여 일신의 부귀를 도모하는 집권층의 반민족적 망국 행위와,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기름지고 조흔 강토 숨천 리 와순하고 어진 백성 이천만이 당당 대한 주주
야 독립국이 못될손가 간혹한 모모디관 저 혼 몸의 영육으로 외국인물 부동하
야 토지를 허급하며 인민을 구축하며 강토는 줄어가고 인민은 도탄이라 인민을
모라다가 화적당에 너허주고 국권을 빼아서다 외국인물 맞겨가며 부귀를 도모하
니 인민이 업게 되면 나라이 엇지 되며 나라이 업게 되면 부귀를 엇지홀가

(「향기담화」, 대한매일신보, 1905. 10. 31)

그와 갖치 우리 나라 정부에서 외교 권리를 일본에 주고 보면 령강 제국에
서는 무슨 국제상 일에 더하여 더소를 불계하고 그 외교 권리 잡은 일본과 교섭
할 터이니 권리업는 우리 정부와 의론홀 묘리 잇나 그리흔즉 세계 령강과 더등
국이 못되고 남의 나라 속국이나 다름업서 니 일을 내가 못허고 남의 손비러 허
니 무엇서 주주국이며 무어시 독립국이라 허리오 주주독립 첫말일세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대한매일신보, 1905. 12. 2)

니 나라 외교 권리를 남의게 보너노라 신조약을 성리한다 한편으로는 원로
더신이 솔퇴관 정청을 혼다 한편으로는 원로 더신이 잡혀간다 한편으로는 더관
이 주결을 혼다 혼 판에도 수수방관하야 말 한 마디들 아니 홀뿐 아니라 도로
혀 선언서인지 무엇인지 하여 노코 신조약을 창도흔 모양이니 그거시 다 독립
기초를 공고케 한다는 목덕이며 외교 권리 업서지고 보호 감독 받고 보면 국권
이 감삭하고 황위가 미약하니 무엇으로 황실을 존중이 혼다 하며

(「향로방문의심이라」, 대한매일신보, 1905. 12. 29)

나라의 모든 이권을 외국에 파는 매국적인 행위의 실상과, 그들의 자주 독립 주장
이 헛된 구호임을 드러내어 민중들에게 위기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외교권을 일
본에게 넘겨줌으로써 국제적 분쟁의 당사자로서 교섭에 임하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는
세계 열강들과 대등국이 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남의 나라 속국으로 전락하여 외
교권 및 국권을 상실하고 자주성 없는 의타적인 정치와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위정자
들을 공박한다. 외교권 박탈의 부당성에 항거하다가 지조 있는 정부 대신들이 구급되
고, 비분을 이기지 못한 우국지사들이 자결로써 구국의 의지를 표명했지만 모두가 허
사라는 것이다.

『禽獸會議錄』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여우의 주장도 위의 논의들과 매우 유사하다. 외세를 빌어 보신과 관직 유지를 꾀하며 제 동포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여우만도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외국의 세력을 빌어 의뢰하야 몸을 보전하고 벼살을 잇어 하려 하며 타국 사름을 부동하야 제 나라를 망하고 제 동포를 압박하니 그거시 우리 여호보다 나흔 일이오 결단코 우리 여호만 못흔 물건들이라 하옵니다⁸⁹⁾

외교권이나 국가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 자주 독립국으로서 존립이 어려워진 현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 나라와 동포를 위하기보다는 외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신출세에만 급급한 정부 관리들로 인하여 나라가 위태로워졌음에 대한 비난이다.

『夢見諸葛亮』에서도 제갈량이 밀아자에게 탄식하며 당시 일본의 침략 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日本이 馬關條約 第一條에 淸國에 關係된 朝鮮을 獨立으로 確定하더니 近日에 京釜鐵路와 京義鐵路를 建築하야 隱然이 勢力을 擴張하얏스즉 今曰 旅順以東으로 陸地線路가 擴張하흔 同時에 朝鮮이 잇지 其範圍를 特脫하디 하리오 嗚乎라 世間에 所謂 萬國公法이란 것도 亦是 有名無實한 紙上空文으로 淸國에 所宗하흔 詩書經傳과 恰似케 되얏스니 無論何國하고 自家를 自助하야 自強力을 維持치 아니하면 保國지 못함은 現世에 公例가 된 者이라 足下도 亦朝鮮人인 則 今曰 朝鮮이 日本에 羈絆됨을 잇지 痛恨치 아니리오마는 自強力으로 自立지 못하코 보면 何厚何薄이 無할 거시⁹⁰⁾

마관조약이란 1895년에 청일전쟁의 결과, 청국과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에서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청에 속해 있던 조선을 독립시킨다고 명시했지만, 실상은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여 일본에 예속시키려는 기만적 술책에 다름 아님이 드러난다. 철도 건설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와 중국 본토까지 침략해 보려는 일본의 고도의 책략이 숨겨져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만국공법도 유명무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니, 어떤 나라도 ‘自家를 自助하여 自強力을 維持치 아니하면 保國지 못함’은 이제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시경』, 『서경』 등 금과옥조로 여기던 경전까지 휴지 조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

89) 안국선(1908), 앞의 책, pp. 16 ~ 17.

90) 유원표(1908), 앞의 책, pp. 86 ~ 87.

은 유교적 세계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정신적 지배 이념이 될 수 없음을 선언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디구성미리몽』에서는 여타 토론체 소설과는 다르게 천상계와 지하계가 설정되어 있다.⁹¹⁾ 아래 인용문은 원장법사가 망국민의 혼을 불쌍하게 여기며 제음을 윈 것이다.

어어어 불쌍하다 더 창성들 몸 망하고 나라까지 어어어 나라업는 더 귀신들
으으으 참혹하다 더 죄악을 어어어 다치느니 형벌이오 으으으 부르느니 노래귀
라 어어어 심전에 나라 일코 으으으 환성흔들 어디 가나 어어어 어둠침침 염라
부에 으으으 천 년 만 년 기귀로다 어어어 불쌍하다 더 창성들 으으으 어서어서
지식 넓혀 어어어 망국죄인 되지마라 으으으 불쌍하다 더 창성들 어어어 남무아
미타불
(대한매일신보, 1909. 7. 16)

애국하지 않고 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염라부에 갇혀 세상에 다시 환생하지 못하고 평생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망국죄인이 되어 지하 세계를 떠도는 객귀 영혼의 참혹한 실상을 노래하고 있다.

『夢拜金太祖』에서는 나라를 위해 진실로 몸 바칠 생각은 없고 성리학을 익혀 학문 재상으로 자칭하는 자들이 실상은 나라 팔아먹는 데 일등 공신이라고 했다. 일반 대중 앞에서는 애국주의를 부르짖으며 공익의 의무를 주창하던 자들이 모두 매국하는 데 선구가 되었음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興國同體誠이라 하며 自로 性理書를 대하야 學問宰相이라 칭하던 者 | 皆賣
國의 元勳이 되며 社會界와 演壇上에 愛國主義를 高唱하며 公益義務를 설명하던
者가 皆合併贊成의 先驅가 되었도다⁹²⁾

이는 이른바 유학자들이 말로는 애국을 부르짖지만 걸치례에 불과하고, 오히려 매국에 앞장서는 이중적 태도를 질타한 것이다. 백성을 구제하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생각이 그들에게는 애초에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에서 개화기 토론체 소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주제

91) 이에 대해 송민호는 구소설적 요소와 신소설적 요소가 혼합된 작품으로 보았다.(송민호 (1975), 앞의 책, pp. 127 ~ 130 참조.) 여기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설정은 구소설적 요소에 속한다고 하겠다.

(1) 구소설적 요소 : ① 虛頭가 漢文小說의 그것과 유사 ② 題材의 非現實性

(2) 신소설적 요소 : ① 問答式 對話體 ② 象徵的手法 ③ 主題의 現實性 ④ 修辭的 技巧

92) 박은식(1911), 앞의 책, pp. 17 ~ 18.

표출의 강도에 따라 표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 9> 作品 主題表出 強度

作 品 名	主 題		
	時事討論·批評	文明開化	國權回復
향직 담화	++	+	+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	+	+
향로방문의싱이라	++	+	+
거부 오희	++	+	+
時事 問答	+	++	+
病人懇親會錄	++	+	+
絶纓新話	+	+	.
夢見諸葛亮	+	++	+
夢拜金太祖	+	+	++
禽獸會議錄	++	+	+
警世鍾	++	+	.
지구성미리몽	+	+	++
聖山明鏡	.	+	.
天 中 佳 節	+	++	+
天中佳節	+	++	.

이상에서 국권 회복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아 이야기가 전개된 부분을 인용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개화기는 나라 안팎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시기로, 무엇보다 급선무는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지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일신의 영화만 추구하기 위해서 나라의 이권을 외국에 팔아 타국의 속국이 되게 한 자, 말로만 애국을 외치며 실제 행동에서는 매국에 앞장서는 자들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민중들로 하여금 위기 의식을 각성케 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시사 토론 및 비평, 문명 개화, 국권 회복에 대한 내용을 작품의 주제로 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시사 토론 및 비평과 문명 개화의 과제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거론되고 있어 토론체 소설이 지향하는 바를 가늠케 해준다. 국권 회복의 문제도 당시 매우 중대하면서 시급한 해결 과제였음이 위 표에도 나타나 있다. 이로 보아서 개화기의 토론체 소설은 개인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 서사 양식이라기 보다는 국가나 민족 문제와 결부된 집단적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려 했

던 양식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주제들 외에도 이 시기에 여권 의식의 신장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즈유종』⁹³⁾과 『天中佳節』 같은 작품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聖山明鏡』에서는 위의 세 주제들이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았고, 단지 당시 지식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개화와 자주 독립 등의 정치적 관심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처럼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작품으로는 『禽獸會議錄』과 『警世鍾』도 있다.



93) 이해조는 선구적인 여권론자이며 『즈유종』은 여성 해방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선구적 소설로 기록된 것이라 했다. (최원식(1986),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p. 47.)

IV. 文學史的 意義

개화기에 이르러 전시대의 문학과 문학 사상은 더 이상 그 의의가 지속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변화하는 시대 조류와 서구 문화의 충격은 그때까지 폐쇄되어 있던 민족의 시계를 넓혀 새로운 사물,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인간과 세계 인식의 지평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1900년을 전후하면서 우리 민족은 반봉건·반외세의 시대 정신이 내포된 각별한 개화 의지가 당대 사회 전반에 요구되었다. 국권 상실을 앞둔 시기에 실제로 내부적인 개혁과 대외적인 항쟁을 위한 주장을 펴고, 그 주장이 널리 파급되게 하기 위해 많은 글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기도 했다. 토론체 소설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현실 사회 제도를 비판하고, 시국의 위태로움 등을 알려 민중들을 깨우치고자 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체 소설이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를 몇 가지 들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화기 토론체 소설은 민족 문학의 단서를 마련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⁹⁴⁾ 침략주의적 외세에 대해 강력한 저항 의식을 표출하고 문학이 나라의 위태로움과 때를 같이 하여 호흡했다는 점은 토론체 소설이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양식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소설은 민족 주체적인 문학으로 시대적 의의와 사명을 다한 양식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학사에서 그 가치와 존재 의의를 과소 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토론체 소설은 시대적 현실을 문학에 반영하려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창작 당시의 현실을 대상 삼아 이를 민족의 생존 문제와 직결시키려고 했던 데에는 작가들의 확고한 자기 인식이 근거에 깔려 있다. 이 소설은 고소

94) 민족 문학의 개념을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민족의 생존과 존엄 자체가 위협받게 된 상황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개념 - 한국의 경우 주로 일본 식민지 통치하 우리 민족과 민중의 반식민·반봉건적 요구에 부응한 문학 - 으로 다루었다. (백락청(1978),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 비평사, p. 137 참조.)

설에서 신소설로, 또 1920년대 소설로 변화·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적인 작품들이다. 형식 면에서 다소 치밀한 짜임새를 갖추지 못했고, 내용 면에서 주제 지향적인 효용론의 관점이 우세한 작품들이지만, 고소설에서 전형화된 주제인 단순한 권선징악이나 도덕적·윤리적 가치의 옹호에만 주력하지 않은 양식이다. 그런 가치보다는 시대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시대의 소설에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주었다.

셋째, 구조적인 면에서 전대의 고소설이라면 일대기적인 '전'형식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토론체 소설은 이 전형화된 구조에서 탈피한 면모를 보인 것은 소설 구성의 기법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볼 수 있다. 토론체 소설들은 대부분 액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토론체 소설의 액자 형태는 주제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형태 자체는 1920년대 이후의 소설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액자소설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아직은 액자의 구성이 탄탄하게 자리잡히지 못하고 더러 실패한 형태가 보이기도 하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전대의 액자 형태를 다음 시대로 물림 해주는, 이런 계승이 있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넷째, 작중인물 선정의 특이성을 들 수 있다. 이 양식을 통해서 소설에서의 인물 설정 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더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소설사에서 고소설이나 신소설 이후에도 한 작품 속에 同性의 인물들만 등장하는 예는 없었다. 남성만, 또는 여성만 등장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수법은 우리 소설사를 돌이켜 볼 때 매우 특유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인물 설정 수법은 기존의 소설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특이한 사실이다.

다섯째, 토론체 소설의 강력한 풍자 정신은 우리 문학사에 풍자 정신의 맥을 이어 오고 이를 다음 시대로 잇게 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전대의 풍유록이나 우화, 풍자 기법 등의 전통을 계승하여 서민이나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집단적이고 대사회적인 보편 가치 추구에 앞장서서 일익을 담당한, 대중과 밀착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피지배자들의 삶에서 빚어지는 많은 고통들을 고발하고, 이에 연유된 지배자들을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바른 풍토를 건립하고 존립할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토론체 소설은 우리 문학사에서 시대 정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면서 진실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정신사적으로 훌륭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개화 사상과 국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발생했던 토론체 소설은 민족이 처한 현실적 과제들을 소설 속에서 정면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식인 작가들은 그들이 터득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독자들을 자기들의 인식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고자 했다. 이러한 현실 직시의 정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는 후대의 작가 정신의 확립과 직결된 것으로 글쓰는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올바른 작가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에 의한 통감 정치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없어져 토론체 소설은 그 양식적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서서히 퇴조하여 단명하게 된다. 이어서 국가적 위기 의식을 표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유 연애나 주장하고 막연한 문명 개화, 해외 유학, 신문물 수용 등을 주제로 삼은 친일적·상업주의적인 신소설이 성행하게 된다.

이 토론체 소설의 여러 특징은 신소설에서 부분적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 나타난다. 신소설의 많은 부분에 연설 형식이 삽입되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토론체 소설의 영향이 신소설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사구조에서 살았던 액자 형태도 1920년대의 소설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대소설에 온전한 액자 구조가 확립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기법 중 몽유록이나 우화, 풍자 기법 역시 전대의 소설에 있었던 것이 개화기 토론체 소설에 수용되었고, 또 후대의 소설에 영향을 주어 그 요소들이 현대소설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V. 結 論

이 연구는 개화기 토론체 소설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성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나의 문학 양식이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문학의 연구 영역을 확대시키고 심화시키는 일의 부분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 우리 문학사를 보다 온전하게 복원시키는 노력의 일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화기 토론체 소설의 전반적인 면모 곧 장르 개념, 토론체 소설의 범주, 형성 및 유형, 그리고 그 양식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한 바를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개화기 토론체 소설이란 형식상 두 사람 이상이 등장하여 토론이나 연설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고, 내용상 투철한 현실 인식 및 강한 주제 의식을 담고 배태된 것으로, 시기상 신소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성행했던 특이한 서사 양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제형식을 통하여 어떤 주제 의식을 강하게 표출해 내는 일련의 작품들이 이에 속한다. 그 주제나 내용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둘째, 토론체 소설의 형성을 우리의 문학적 전통과 관련지어 그 맥락을 찾아보면, 설화에서의 전승, 한문소설 또는 전대 서사 문학의 영향, 개화기 신문 논설의 영향,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나 그 사설에서의 발생학적 연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시 성행했던 토론회나 연설회의 영향을 직접적인 주요 발생 연원으로 꼽을 수 있다.

셋째, 토론체 소설은 동시대에 출현한 다른 서사 문학과 같은 장르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양식이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토론체 소설은 대부분 단편 서사 양식이다. 이에 비해 역사·전기 소설이나 신소설은 거의 장편소설의 길이를 지닌다. 토론체 소설은 독자들의 흥미 유발보다는 주제 의식 전달에 비중을 두어 창작되었기 때문에 지적 긴장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없어 그 길이가 짧다. 반면에 역사·전기소설이나 신소설은 전대의 '전'형식이거나 흥미와 오락성 위주의 양식이어서 장편의 길이를 유지하

고 있다.

내용상으로 보면, 토론체 소설은 모두 역사적 '지금, 이곳'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역사·전기소설은 역사적 과거 이야기이며, 신소설은 현실에 바탕을 두긴 했지만 토론체 소설처럼 시대적 이념 표출이 강하지 못했고 극히 미미했다. 문체상으로 보면, 토론체 소설은 순국문이거나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전기소설은 대부분 국한문혼용체이며, 신소설은 순국문으로 씌어졌다. 이는 토론체 소설이 지식층 독자와 대중적 독자를 의식하고 쓴 것으로, 국한문혼용체에서 순국문체로 전환되는 중간 단계의 문체라 할 수 있다. 작가의 서명 명기 여부도 토론체 소설은 익명이거나 무서명 소설이 대부분이고, 역사·전기소설이나 신소설은 거의 작가의 서명이 명기되어 있다. 그 차이는 토론체 소설은 당대의 문제점이나 시대 현실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다 보니 외부적 압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작가의 서명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 소설의 범주에 드는 작품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여러 인물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의견 대립을 거치며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토론형이다. 이 유형은 그 주제가 토론 과정을 거쳐 해결되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다음은, 회장과 회원 등 여럿이 모여 회의하는 것과, 회의 형식을 취하면서 연사와 청중으로 나뉘어 한 사람씩 연단에서 연설하는 회의(연설)형이 있다. 이 유형에는 토의 안전을 미리 제시해서 토의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안전 제시 없이 자유롭게 자기의 주장을 토로하는 형태도 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마주앉아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거나 화자나 청자가 설정되어 서로 묻고 답하는 대화(문답)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유형은 주로 2인이 등장하여 일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나 합의점에 이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토론체 소설의 양식적 특징을 서사구조, 작중인물, 기법, 주제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먼저 토론체 소설의 서사구조는 대부분 액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서두 부분에는 작중인물들의 토론, 연설, 대화 등이 시작되기 전에 작가의 진술이 이루어지는 도입 액자[外話]가 있다. 내부 이야기[內話]는 인물들 간의 토론, 연설, 대화 등이 시작되어 끝나는 부분까지이다. 종결 액자[外話]는 작중인물들의 토론, 연설, 대화 등이 모두 끝나고 작가가 개입하여 평설적 가치 판단 또는 노래로 압축된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토론체 소설에 나오는 작중인물은 작가의 의도에 충실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작가 의식에 지배되어 있어 생동하는 인물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의해 움직이

는 유형화된 인물로 그려져 있다. 소설 속의 인물 설정에서 특이한 것으로는 토론, 연설, 대화에 참여하는 대상이 남성만 또는 여성만 등장시키거나 금수들을 내세워 시대의 문제를 제기하게 한 점이다. 이는 작가의 계획과 의도 하에 설정된 인물로 작가의 의도에 충실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토론체 소설에 주로 사용된 기법으로는 꿈이라는 장치를 이용한 몽유록, 동물을 이용한 우화, 언어나 조소라는 방법을 통한 풍자 등이 있다. 이러한 제방법들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주제 면에서는 시사 토론 및 비평, 문명 개화, 국권 회복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표현했다. 시사 토론 및 비평에서는 당대의 사회 현실,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과감하게 다루어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문명 개화에서는 서구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되 무분별한 모방이나 답습은 지양하고, 정신적인 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개화 의식은 내면과 외면의 일치가 되는 것이라 했다. 국권 회복에서는 일제 침략의 심각성, 국가 위기 상태를 각성시키고 자주 자강의 정신 확립을 역설하였다.

개화기는 문학사에서 신·구문학이 교체되는 시기인 만큼 이 때 씌어진 소설 작품 역시 과도기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론체 소설 작품들을 보면, 소설 원론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형식상 결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식은 우리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민족 문학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해내면서, 민족 문학의 단서를 탄실하게 마련했다. 또한, 당시 억압적 상황 하에서 다른 장르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민족의 생존 문제를 문학 속으로 끌어올 수 있었던 점 등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 장르적 독자성을 인정하여 별개의 독립된 장르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화기에 나타났던 각기 다른 서사문학의 제양식과 공시적, 통시적인 차이점 및 공통점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했던 각 서사 문학에 대해 실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그 장르의 특성을 구명해야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후일의 연구 과제로 미룬다.

參考文獻

<資料>

- 유원표(1908), 『夢見諸葛亮』, 광학서포.
안국선(1908), 『禽獸會議錄』, 유일서관.
김필수(1909), 『警世鍾』, 광학서포.
최병헌(1909), 『聖山明鏡』, 황화서제.
이해조(1910), 『조유종』, 광학서포.
박은식(1911), 『夢拜金太祖』, 신문관.
무서명(1913), 『天中佳節』, 유일서관.
『한국 근대문학연구 자료집 1~10』(1987), 삼문사.

<著書>

- 강재언(1981),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김교봉·설성경(1991), 『근대전환기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김열규·신동욱 편(1981),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김영택(1991), 『한국근대소설론』, 민지사.
김윤식(1980),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김윤식 편(1976), 『문학비평용어사전』, 일지사.
김윤식·김현(1973), 『한국문학사』, 민음사.
김재환(1994), 『한국 동물우화소설 연구』, 집문당.
김지원(1983), 『풍자와 해학의 문학』, 문장사.
김천혜(1990), 『소설구조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노드롭 프라이, 임철규 譯(1982), 『비평의 해부』, 한길사.
로널드 폴슨, 김옥수 譯(1992), 『풍자문학론』, 지평.

- 문성숙(1994), 『개화기 소설론연구』, 새문사.
- 송민호(1975),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연구』, 일지사.
- 송민호·김춘섭(1988), 『개화기문학론』, 한국방송통신대학.
- 신근재(1995), 『한국근대문학의 비교연구』, 일조각.
- 윤명구(1986), 『개화기 소설의 이해』, 인하대학출판부.
- 이광린(1979), 『한국개화기사상사연구』, 일조각.
- _____(1986), 『한국개화사의 체문제』, 일조각.
- 이민자(1989), 『개화기문학과 기독교사상연구』, 집문당.
- 이재선(1972),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 _____(1975),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 _____(1975), 『한말의 신문소설』, 한국일보사.
- _____(1996), 『한국문학의 원근법』, 민음사.
- 이재선 외(1981), 『개화기문학론』, 형설출판사.
- 임화(1940), 『조선신문학사』, 형류출판사.
- 전광용(1986), 『신소설연구』, 새문사.
- 전영우(1991), 『한국근대토론의 사적연구』, 일지사.
- 정보석(1990), 『한국언론사』, 나남.
- 조동일(1973),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1994),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 조연현(1966), 『한국문학의 현장』, 어문각.
- _____(1986), 『현대문학개관』, 이우출판사.
- 최원식(1986),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 한원영(1990), 『한국개화기신문연재소설연구』, 일지사.
- 홍경표(1984), 『한국근대소설 작가의식연구』, 형설출판사.
- 홍일식(1980), 『한국개화기의 문학사상연구』, 열화당.

<論文>

- 권영민(1975), “개화기소설의 문체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_____(1987), “대한민보의 애국계몽소설”, 『개화기문학의 재인식』, 지학사.
- _____(1989), “한국근대소설론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芦川哲世(1975), “한일개화기정치소설의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김성국(1984), “개화기 몽유록소설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김원규(1994), “개화기 토론체의 담론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김윤규(1992), “개화기 단형서사문학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김주현(1989), “개화기토론체 양식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김준오(1986), “한국근대문학 장르론에 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김종하(1978), “개화기 토론체소설 연구”, 『관악어문연구』제3집, 서울대 국어국문학회.
 _____(1978), “개화기소설연구(1)”, 『문리과대학논문집』 제17집, 부산대.
 _____(1981), “개화기 단형소설 연구”, 『인문논총』 제20집, 부산대.
 _____(1984), “개화기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인문논총』 제25집, 부산대.
 문성숙(1985), “개화기의 문학담당 계층”, 『국어국문학』 제94집, 국어국문학회.
 백락청(1978),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창작과비평사.
 송현호(1989), “한국 근대소설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신춘자(1987), “신소설에서의 현실수용 양상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안성수(1989),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오현식(1989), “애국계몽기 토론체소설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원미진(1993), “토론체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유양선(1979), “개화기 서사문학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윤명구(1973), “안국선 연구”, 『현대문학연구』 제8집, 서울대 현대문학연구회.
 _____(1980), “개화기 문학장르”, 『한국사학』 제2집, 정신문화연구원.
 은찬기(1987), “개화기 토론체소설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이재선(1976), “개화기 서사문의 세 유형”, 『한국문학논문총』, 형설출판사.
 조남현(1980), “구한말 신문소설의 양식화 방법”, 『학술지』 제24집, 건국대학술연구원.
 _____(1987), “개화기소설양식의 변이현상”, 『개화기 문학의 재인식』, 지학사.
 한강희(1987), “애국계몽기 신문연재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황순재(1992), “개화기 소설의 장르시론”, 『한국문학논총』 제13집, 한국문학회.

<Abstract>

A Study on the Discussion-Style Novel in the Era of Enlightenment

Kim, Kyung-Nim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This study aims to make clear the full aspect of discussion-style novel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enlightenment, to define the concept of discussion-style novel and establish the scope of it, to examine its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and to grope for systematization by classifying the types. To draw out the features that the novel carries, the study analyzes and considers the epic structure, characters, techniques, and the theme in the text; furthermore the study tries to make clear the epic patterns building a unique scop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by establishing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history. The study epitomizes the contents which develop in the main subject as follows.

Discussion-style novel during the period of enlightenment is a unique epic mode prevalent before Shin Sosul(the New Novel) was published, and was published mainly between 1905 and 1910, in which two or more characters exchange their own opinions through a discussion or speech on its form, and which contains a practical reality and a strong theme. It includes a series of works which represent strongly a theme concerning the situation of the period through such a form.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Though there are divergent opinions about its origin, we can consider the effect of a discussion or speech to be the primary cause in that the theme of discussion-style novel and that of the then discussions or speeches in vogue are substantially the same. The scope of this novel, if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according to discussion methods and discourse types, covers the discussion type where various characters assert their own opinions on one topic through debating, the conference type where a president and members get together and consult on a topic, or those who are divided into two parts as speakers and audience deliver a speech one by one, and the dialogue(question-and-answer) type that two people sit face to face and make a dialogue or an established speaker and a hearer question and answer.

If we consider its modal feature, the epic structure assumes the form of a picture frame. It consists of an introduction in which a writer's narration goes on before characters' discussions, speeches, and dialogues start, a body in which characters' discussions, speeches, and dialogues begin and end, and a conclusion in which all characters' discussions, speeches, and dialogues end and the writer appears to reveal a critical valuation or a theme condensed by songs. We can find a particular feature of setting up characters. Characters who make their appearances in a discussion, speech, or dialogue are only male or female or birds and animals are designated to bring up problems of the period, and we can find its significance in that characters established under the writer's plan or intention were faithful. Techniques used in this novel are Morgjurok(the Dream Story), allegory, satire, etc. They plainly revealed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problems, and criticized them poignantly. The themes commonly represent problems of the current events discussions, critics, enlightenment, and the

restoration of national rights.

Above all, we can find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history of discussion-style novel in that it represented a strong sense of defiance against the aggressive power of foreign countries, and fulfilled its mission and duty as a people's literature faced with the danger of a country. There were many Short-Story modes, but they represented the ideology of the period less directly and strongly than discussion-style novel did. In addition, it made us recognize that literature is a mirror which reflects reality by solidifying the fact that novels reflect the reality of the period, and made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forming techniques of novels emerging from a typical structure which is biographic form that could be found in old novels of former generations. And almost all discussion-style novel assume a form of picture frame. It still seems that there are some forms that could not be rooted, but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re was succession which transferred the former frame to the next generation in a transitional situation. It can be surmised that it affected frame novels that appeared frequently in the novels of 1920s. Besides, a strong spirit of satire was inherited from the former on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served as a bridge which connected to the next generation.

附 錄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총 15편의 작품 중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된 작품(『夢見諸葛亮』, 『禽獸會議錄』, 『警世鍾』, 『聖山明境』, 『조유중』, 『夢拜金太祖』, 『天中佳節』)을 제외하고 『향각담화』, 『향로방문의심이라』, 『時事問答』, 『지구성미리몽』, 『病人懇親會錄』, 『絶纓新話』를 부록으로 수록한다.

수록 원칙은 작품 원문의 표기법을 준수하되, 띄어쓰기만 현대 어법에 맞게 고쳐 실는다. 다만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과 『거부오허』는 이재선, 송민호 등의 저서에 이미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실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筆者 -

1. 『향각담화』 / 1
2. 『향로방문의심이라』 / 2
3. 『時事問答』 / 10
4. 『지구성미리몽』 / 18
5. 『病人懇親會錄』 / 26
6. 『絶纓新話』 / 40

1. 鄉客談話, 우시싱, 대한매일신보, 1905. 10. 29 ~ 1905. 11. 7. (4회)

(1) 모처를 지나다가 슈슴 향키이 모혀 담화하는 말들 들은즉 한 사람이 가로디 지금 세계는 좀 휘황찬란한 세계라 우리들의 고루한 소견으로는 엇더타 형언홀 슈 업거니와 만국 통상 약조하야 티서각국 사롭들은 천만 리를 지척으로 만 리 타국 나와서도 거처 범빅 의복 제도 문명국인 괴상이오 언어 행동 처신 범절 주유 권리 비양하야 약한 티도 아조 업시 텨 지 간에 오유하야 학문으로 업을 습고 신의로 근본습야 이국지심 사랍마다 잇것마는 우리 대한 정부 관리 학문이 무엇인지 신의가 무엇인지 이국이 무엇인지 도모지 불계하고 복중에 가득한 경륜리욕 일관 썩이로다.

박탈민지 독한 정스 심령이 어육이오 괴군망상 습한 죄명 죽은들 씨글손가 더신헌판 더 감령감 귀 밋히 옥관즈 금관즈와 각식으로 지은 전복 식술디를 밧고 보니 물식은 조커니와 창우하천 복식이오 스린교 인력거에 구종별비 용위하야 전후로 벽제하니 괴구는 장커니와 외국인의 슈치로다. 관찰군슈 서암홀 제 정치학문 못지안코 문벌이니 세교이니 돌녀가며 차 출하고 불학무식 하등인물 돈을 밧고 미미하야 부임한 후 횡정하면 무죄평민 착슈하고 횡설 슈설 가진 죄명 빅 가지로 열거녀어 스갈의 독한 힘와 사랑의 모진 소리 호령이 추상갓고 악형이 무쌍한즉 어리석은 어둔 빅성 일루잔명 보존츠로 상평던 하평던과 가장 좁물 방미하야 괴천 량 괴만 량에 간신히 탈신힌니(1905. 10. 29)

(2) 부모쳐즈 류리기걸 일조에 되고 보니 원입글슈 김흔 한은 육식기육 생각하나 합계로 민든 정치 어디가 호소하며 호소흔들 쓸디 잇나 그런고로 적당에도 투입하고 의병이라 츠칭 하야 성군작당 횡행하니 성주에서 근심하스 조칙을 나리시고 효유안무 하라신힌들 간신힌이 만 조하니 성주의 김흔 근심 더러닐 자 누가 잇나 한심코 이달울스 기름지고 조흔 강토 습천리 와순하고 어진 빅성 이천만이 당당 대한 주주하야 독립국이 못될손가 간혹흔 모모디관 저 흔 몸의 영육으로 외국인을 부동하야 토지물 허급하며 인민을 구축하며 강토는 줄어가고 인민은 도탄이라 인민을 모라다가 화적당에 너허주고 국권을 빼아서다 외국인을 맛겨가며 부귀를 도모하니 인민이 업게 되면 나라이 엇지 되며 나라이 업게 되면 부귀를 엇지홀가

그런 생각 못하논지 망국티죄 츠취하니 가석코 가통이라 일성장탄에 한습슈니 또 한 스 람 가로디 나라의 흥망성쇠는 천시와 국운이라 인력으로 홀 바리오 우리 나라 지금 형편 사 람으로 비유하면 방병디종 병이 들어 편작이 란의로다 그 죄를 의론하면 관민이 일반이라 정부를 조직하야 시정기선 못하기는 주무더신 칙임이오 사회를 창립하야 일심단체 못하기는 인민의 칙임인즉 왈시왈비 말을 말고 곤히 든 좀 썰여가며 시정신을 가다듬어 시왈부왈 강 산풍월 그만 더져 발여뇨코 기명국 신학문을 렬심으로 연구하여 너정을 발제하면 의모를 면 하리니(1905. 10. 31)

(3) 정부대관 밋지말고 사랍마다 힘을 써서 더한제국 천만 년에 반석것치 곳에 홈은 인민 의 칙임이라 아모 타슬 말지어다 또 한 사롭 강기흔 말 변명하야 가로디 나라 흥망은 천시와 국운에 잇다하니 지공무스 한아님이 천하만국 감찰하스 익증이 업스시니 어이 우리 더한만 국운이 쇠핍슬가 천시국운 허언이오 국가를 망한 죄는 관민이 일반이라 하니 구미각국 녀은 세계 립헌정치 공화정치 습상하는 문명국은 빅성이 크다 하되 우리 나라 압제 정치 디소스물

물론하고 소위 정부기관끼리 잘 되던지 못 되던지 마음대로 시험하야 뵈성은커니와 한 조정
에 벼살하고 한 마을에 녹을 먹는 관리라도 작위가 낮게 되며 흉중에 비록 장조방 제갈량의
도략이 있셔도 쓸 더 업셔 한 마디 못지 안고 한 마디 하지 안아 무엇이 무엇인지 전연이 모
로거든 함을며 정권이 업는 뵈성이 일너 무엇이리(1906. 11. 1)

(4) 우리 나라 미약은 더신이라 협판이라 하는 사람 슈단으로 만든 것시지 그 지츰 국
장이니 과장이니 하는 스톱 더신협판 입민짜라 하는 더 홀썌인즉 즈유언권 조금 업고 스환
니나 다름업셔 가련하기 측량업네 남의 나라 사람들른 즈기 돈을 들여 가며 문명정치 발달
코즈 각국을 유람하야 지식을 기도하고 우리 나라 관인들른 려비를 주어 가며 외국제도 시
출하라 파송하면 아모 생각 도시 업고 갖다왔따 하는 것이 직책으로 아는 모양 갓소 하고
통탄토다 그런 것들른 일즉 죽지도 아니하데 또 한 사람 가로디 여보시오 글씨 지각업는 말
마시오 그 사람들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갈듯하오 필연 썩 속으로 갈 터이지 썩 속은 디부라
하고 디부는 려나국이라 하니 그런 간세비를 달려 가면 더한국은 행복이르 허려니와 려나국
은 우리 모양 될 터인즉 달려갈 리 만무허지 려르국 정부 사람들리 우리 나라 정부 사람의
식견으로 아지 마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성불스 허게 춤 괴막하고 통곡홀 일이로다 허며
일장담화가 모다 시국이 잘못되여 가물 한탄허는 말이더라(1906. 11. 7) 完

2. 鄉老訪問醫生이라, 무서명, 대한매일신보, 1906. 12. 21 ~ 1906. 2. 2 (28회)

(1) 시골 스는 로인 한아이 시국이 소요함을 듯고 관광초로 죽장마해에 도보로 상경하야
각처로 도라단니다가 모쳐 약국에 드러간즉 그 약국 주인 의심이 마져 좌정헌 후 무려 갈오
디 로인이 무슴 연고로 이 삼동에 올라 오섯스며 엇지하야 형식이 저리 초초하은잇가 헌디
로인이 위연장탄에 갈오디 나의 스정은 그디가 다 아는 바어니와 니가 출생 이후로 식육부
귀 팔십 년에 지금 나히 팔십이라 저간에 지닌 바 허다 스변을 말하고져 하면 스스이 낭편
오 축처에 후회로다 일이 잘못된 후에 아모리 후회헌들 쓸디 잇나 그러나(1906. 12. 21)

(2) 더장 설명하야 그디로 하야금 알게 하리라 니 지산으로 말하게드면 멘답이 숨천 석
직이오 우마가 이천여 필이오 돈이 슈퓌만 금이오 문하식식이 뵈여 명이오 가옥이 숨뵈여
간이라 그러헌즉 남들이 부즈로 지목하야 동서남북 물론하고 지나다가 로슈가 핏절하여도
들어오며 잠간 구경하랴 들어오고 기천 량 기만 량을 감언이설로 썩아서 먹으려고도 들어오
매 그 치닥거리 엇던 염의업는 사람들은 숨스 삭 일이 년을 묵어가며 각가지로 썩이기를 아
모 메논을 파라다가 아모 데 작답하면 몇 비 리익이 싱긴다 하며 조부모 선산에 약시헌 회
피가 잇스니 약시헌 곳에 이장을 허면 공명이 난다 아모 산에 기도하면 복록이 무궁하리라
하며 아모 절에 불공하면 즈손이 창성하리라 달달리 굿술 하면 집안이 평안허다 룡신경을
넓으면 슈화의 지앙을 면헌다 하며 뵈 가지로 하던 모계는 지금 생각하니 나를 위함이 아니
오 니 지물 허비하야 저에 낭탁하라는 의사인더 어리석고 미련헌 즈서제질과 처첩비복은 아
모런 줄 모르고 니게 조타허는 것슨 모다 하려 덤병이니 잡용은 점점 늘어가고 지산은 날노
줄어가미 이웃 사람들이 비소도 하고 후 권고도 하야 중론이 불일헌 집안 형세가 거의 위터
헌지라 맛차 친고 한아이 그 형편을 민망이 여겨 너게 말하기를 지물이 잇다고셔 공연이 남

들의 병은 입의 골수에 박였스니 그 병근은 천하장스 항우 힘으로도 빼일 수 업고 옛적 병의 편작의 술법으로도 곳칠 수 업서 다만 텃디조화로 된 벽력화가 맞당하고 일진회의 병은 외양으로는 비록 크다 하나 안으로는 병근이 깊지 못하야 비유컨디 아히들 경풍징과 갖하여 너의 공박을 당홀 썩면 간간이 발죽되나 츠츠 장성하여지면 저절로 업셔지는 모양으로 그 병은 좀 오리가면 부지중에 업셔질듯 하도다

의심 왈 니 생각에는 먼저 치중탕을 먹여 그 가운데를 다스리고 다음에 정괴산을 먹여 그 몸을 발으게 하고 그 다음에 청심환을 먹여 그 마음을 말케 하면 이전 구십의 병정은 업셔지고 시로 시정신 나서 충군 인국의 스상도 싱길 터시오 니 직무 니가 하여 정치 기명의 스상도 잇슬 터시오 관리를 톱츠하야 탐학 불법의 폐단도 업슬 터인즉 즈연 궁금이 숙청하여질 터시오 농공상업을 권면하야 민심을 무홀하며 학교를 확장하야 교육을 발달하며 경용을 절검하야 국직을 정려하야 범획 스위를 모다 열심으로 한게드면 국터민안 하오리니 그 안이 묘방이오(1906. 1. 4)

(9) 로인이 박장대소 왈 그디가 남을 약 먹인다고 하지 말고 주귀벗팀 약 먹을 일리로 다 바랄 거슬 바라지 그러케 되기를 엇지 바라리오 가위 병풍송 성헌 사람의 말과 비져호도 다 그 되지못홀 유를 더강 설명홀 터이니 즈서히 들어보소 디져 갑국과 울국이 잇서 무슴 일이던지 갑국에 리롭게 홀 일이 울국에는 히되는 일이지 엇지 리히가 업다 호리오 이제 일본과 우리 나라 사이에 일본에 리되는 일은 우리 나라에 히되는 일이라 여러 스소흔 일은 그만두고 금번 신조약으로 보게드면 웅당 일본에는 영화롭다 홀여니와 우리 나라에야 그런 낭편가 어더 잇나 그러케로 미루여 보면 지금 당국즈들이 만일 우리 나라에 유용지인 갖흐면 저 사람네들이 그져 잇슬 터인가 발서 면관호라는 권고도 만이 호였슬 터시오 방축향리도 만이 되였슬 터시오 일본으로 쏘국경도 만이 갖슬 터시오 스령부에 갖치기도 만이 호였슬 터이나 그것은 시로혀 순샤 한 명으로 보호를 호야 준다 호니 그런 것 보게드면 소위 정부 더관이라는 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안코 토목우인 갖치 아라 명식으로 더신이라고 정부에 안쳐 노코 저의 일들을 호여 가즈는 의스인고로 언펠칭 숙청 궁금을 호여라 정부 조직을 호여라 호고 권고는 한다 호되 그런 관신적즈를 조정에 두고서 숙청 궁금이 엇지 되며 정부 조직이 무엇인가 말인즉 언정리 순하게 숙청 궁금 정부 조직이라 하나 정부 조직도 다 틀리고 숙청 궁금도 다 틀엿네(1906. 1. 5)

(10) 골륄산에 불이 나매 옥석이 구분이라는 쏴슈로 나라는 그 땃땃 사람들의 슈중으로 이 디경을 만드러 노왓스나 그 양화는 전국 동포가 다 당호니 그를 슬퍼호노라 치중탕 정괴산 청심환이 무엇인가 벽력화가 맞당호네

의심 왈 옛말에 일녇스되 망헌 후에 흥헌다더니 금일 우리 나라 형세로 말홀진디 흥헌다 홀 슈 업는지라 각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 대관들은 망국더부라 지목호고 우리 나라 뵝성들은 망국지민이라 지목호니 그 지목을 엇지 원통타 호며 엇지 면호겠다 호리오 지금이라도 사람사람이 각각 마음을 굳게 호고 정신을 가다듬어 나 한아이 잘 호고 보면 전국이 다 잘 될 줄로 알게드면 거의거의 바람이 잇스리라

로인 왈 그디 말 드르니 극히 유리호야 일변 썩닷는 마음도 잇고 일변 붓그런 마음도

나는도다 니 일노 불지라도 이웃 사람들이 나를 지목하여 망가웁이라 하고 나의 즈질을 지
목하여 망가즈메라 하니 나라 일이 니 일 기인의 집안일이나 다름이 업도다 나도 근일에는
전일을 후회하고 장리를 경계하여 여간 남은 전량과 박토 마지기를 남의게 부탁지 안코 일
일이 간검하며 스스이 분별하여 변화함을 물니치고 안정함을 숭상하며 스치를 께지하고 검
소함을 실시하여 절용절검 하얏더니 전량은 전뵈되고 박토는 옥토되야 여망이 잇서가니 가
스도 그러커던 국스라고 달올손가(1906. 1. 6)

(11) 의성 왈 옛말에 일넛스되 오십에 비로소 스십구 년의 잘못함을 께닷는다 흐엿더니
이제 로인의게 맞친 말인즉 더단 감스흐거니와 조금 늦지 아니하얏는잇가

로인 왈 나는 팔십에 비로소 칠십구 년의 글은 줄을 안다흙이 비록 니게는 느꼈다 흐려
니와 니 즈손의게는 더단이 일은 일이로다 향인 일으기를 즈식을 낮키가 어려운 거시 아니
라 기르기가 어렵고 기르기가 어려운 거시 아니라 가라치기가 어렵다 하니 이제 나의 께다
른 마음은 멀니 즈손의게 미칠 교육상 목덕이로다

의성이 스투하고 같오더 근일의 엇던 친고가 외국을 유람하고 도라와 나라 형편된 것을
보고 강기흔 비회를 금치 못흐야(1906. 1. 9)

(12) 전국 동포의게 권고하는 말노 지은 글이 노리와 방불흐나 스의가 심히 격렬허더니
다

불상하고 익달을스 이천만 동포들이 한편 귀를 기우려서 이니 말을 드러보오 나라이 이
디경에 거의거의 망흐였고 인민은 이 디경에 거의거의 다 죽겠네 더한던디 심습 도에 살기
는 죠코 죠와 여턴더덕 황상피셔 우림스히 호읍시니 회호건국 엇터튼야 강구연월 다시 보네
치평이 오러되면 환란이 이러나든 고금에 동축이오 국가에 상경이라 슬흐고 압흐도다 국운
이 불길흐야 응계디락 간 곳 업고 란신적즈 심겨 나서 만일 그러흐올진댄 금슈만도 못흐리
라 못드렸소 드렸소 파란스적 못드렸소 어린이 절문이를 함부로 잡아갈 제 썩근 밥 썩 죠각
에 굴머서 다 죽엿데 참혹도다 이 광경을 엇지흐면 죠홀손가 사람이 부모되니 이니 말을 드
러보오 오날날 이 디경에 홀 일이 무엇인가 어셔 붓비 시급하게 즈손을 가라치오 한야 알고
두리 아라 차차 썩여 들어가면 국권을 회복하기 무엇시 어려우리 못보앗소 못드렸소 덕국사
귀 못보앗소 법국과 썩흙흐야 성호지약 미졌다가 상하일심 융분흐야 교육에 힘을 썩셔 뻗십
년 아니되야 몰슈히 차졌스니 전감이 소연하야 명뵈하기 물과 갖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부모
되신 동포님네 이 일을 거울습야 자세히 살피시오 부모는 굶더리도 즈손은 가라치고 부모는
칩더리도 즈손은 가라치오(1906. 1. 11)

(13) 밋지 마오 밋지 마오 여간 지산 밋지 마오 타년 타일 불행흐야 급흔 경우 당홀진
디 석습갓흔 부즈라도 쓸 데가 무엇이오 되지 안은 지물 가져 도적의 것 되오리니 멀니멀니
싱각하고 적은 눈을 크게 쓰오 오호통지며 우회비지라 우리 나라 뵈성된 지 뉘 아니 그러하
리 무지흔 동포님네 돈이 만야 무엇흐며 지각업는 동포님네 지산잇서 무엇흐나 그날 그시
죽을 적에 녀넉흔들 엇지 사오 망□□ 경□□ 후에 후회하여 쓸 더 업소 만 량 가진 스람을
낭 만 량 들며 공부하고 천 량 가진 스람을랑 천 元들여 공부하오 냇 성현이 일넛스되 즈손
의게 부지하야 한 가지 지조로서 같아침만 못흐다니 지물노 저아흙은 피즈□는 근본이라 즈

서히 궁구하고 깊히깊히 생각하야 가라치어 가라치오 어서 밧비 가라치오 나라는 업셔져도
빅성은 사라쓰니 잇는 스업 잇는 지조 그릇하게 마르시오 빅성을 교육함은 흥국하는 근본이
라 요만큼 만든 빅성 게으르게 하지 마오 일낙서산 가는 힘은 불원간에 어둡기네 어머니 아
비되야 즈식을 그릇침이(1906. 1. 12)

(14) 당장에 죽기보다 그 죄가 더욱 크며 필부필부 빅성되야 국가 슈치 끼칠진딘 님군
비반 역적보다 무엇이 경홀손가 어서 밧비 갈아치고 어서 밧비 인도하야 공스간 국가스에
죄인되지 말지어다 여턴여히 곱흔 회포 일필노 논기로다 타일을 징험하즈 □□이셔 권고함
이로다

로인이 듯기를 다하고 잠연히 눈물을 흘니며 왈 슬푸도다 이 말이며 두렵도다 이 말이
여 나도 너 일 생각하니 또한 일기 죄인이라 슬푸기도 측량업고 두렵기도 괴지업다 부모된
자 이너 몸이 교육을 모르고서 등흔이 발엿스니 또한 즈손 죄인이라 무삼 면목 들여너여 즈
손을 보즈 하며 무슴 말노 입을 열어 발명을 하즈 하리 언언이 절당하고 스스이 낭피로다
소경스 생각하고 장력사 해아리니 던지가 아득하여 몸들 곳이 바이 업네 부처의 불공함도
즈손을 위함시오 명산에 기도함도 즈손을 위함시오 돈을 모려 익틀 쓰는 것도 즈손을 위함
다 흠이러니(1906. 1. 13)

(15) 이금 소견 생각하니 전일이 후회로다 그것 져것 그만두고 그 돈 들여 교육하면 그
것이 위함시오 그것이 상책이라 이왕에는 몰로그서 지냈다 하려니와 지금에는 알고셔도 모
로는 체 하게드면 즈손의게 잇는 죄가 더욱 크다 하리로다 전일을 후회말고 오는 자를 죠치
리라 자손을 귀하다고 금의옥식 그만두고 그 돈을 움겨다가 서책을 스셔 쥬며 즈손을 먹인
다고 고량진미 생각말고 그 마음 움겨다가 공부를 시겨쥬며 즈손의게 끼친다고 던답을 스쥬
지 말고 그 지물을 움겨다가 학교를 창설하며 즈손을 위한다고 기도 불공 하여가며 명과 복
을 빌지말고 그 정성 움겨다가 교수 고빙하야 학문을 가라치며 지식을 기유하면 그 안이 죠
홀손가 알앗도다 알앗도다 지금이야 알앗도다 교육의 중흔 뜻을 황연이 알앗도다 학문이 업
게드면 무엇으로 사람이며 교육을 아니하면 무엇으로 부모되나 교육 사상 업는 부모 즈손의
게 도적이오 학문 슬타 하는 즈손 부모의게 불효로다 어이 그러흔고 하면 학문업서 무식흔
즉 학문잇는 사람의게 로예받게 못되리라 로예가 되고 보면 압계를 면홀손가 압계를 밧게드
면 룹육이 일올지라 룹육을 당케드면 육급조종 하올지니 육급조종 하게드면 불효패자 안이
되며 교육을 아니시켜 그 지경 되게드면 부모를 원망하야 구슈갓치 알올지니 구슈갓흔 그
부모 도적보다 나을손가(1906. 1. 14)

(16) 지닌 일과 장력스는 그만 더져 발여노코 초일초시 당흔 소조 궁구하여 말홀진디 일
본인과 한국인이 인종은 일야로디 압계와 학터함이 어이 그리 티심흔고 이천만 빅성들을 교
육 안흔 타시로다 룹이른지 하게드면 정부나 인민이나 귀천상하 불계하고 피츠 일반 썩갓흐
니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한탄하리 아모 말도 하지말고 기기의 정신츠려 후진을 권면하야
전정을 짝가쥬며 우리는 죽더러도 청년을 비양하야 국권을 회복하고 즈쥬독립 하게드면 산
자도 영화롭고 죽은 즈도 영화로세 중흥의 일단정신 교육일관 써이로다 바라고 바라기는 이
천만 동포들이 늘은 나를 본을 바다 확연이 씨다르여 써 느꼈다 하지 말고 일심단체 성을

모아 하로 밧비 나가기를 간절이 바라노라 무궁한 이니 회포 정신이 모손하여 더궁 설명하
거니와 다형이 주인 선성 너움을 더신하여 나의 지은 전일죄상 이천만 동포에게 보논 더로
스레키를 산과 갖치 바라노니 부더부더 잊지 마오(1906. 1. 16)

(17) 의상이 듯기를 다하고 공슈칭스 하여 왈 로인의 씨달음이며 장하고 굉장토다 로당
익장이란 말은 로인을 두고 일은 말이어니와 나의 저근 회포를 잠간 들으소서

턴디조판된 연후에 일월이 싱겨 잇고 일월이 싱긴 후에 만물이 번성하고 만물이 성한
후에 사람이 귀했었고 사람이 귀한 후에 가옥을 건축하고 가옥을 지은 후에 동리가 일우었
고 동리가 일운 후에 고을이 일우얏고 고을이 일운 후에 일도가 일우얏고 일도가 일운 후에
나라이 일우얏고 나라이 일운 후에 조정어 일우얏고 조정어 일운 후에 빅관이 설치되고 빅
관이 설치된 후 법률을 마련하고(1906. 1. 17)

(18) 법률을 마련 후에 각도에 감스 니고 각읍에 원을 니고 각면에 면장 니고 각동에
동장 니어 빅성을 다스리매 스농공상업을 숨아 안락티평 호을 적예 그 공을 말홀진디 하나
님의 조화시라 조화로다 조화로다 지공무스 한아님의 억천 년 억만 년이 무궁하신 조화로다
초목금슈 만물들을 너시기도 하날이오 업시기도 하날이오 흥케흙도 흥날이오 망케흙도 하날
이니 존망흥폐가 즈고로 무상하야 력력히 세일지라 복희씨 스농씨와 요순우탕 문왕무왕 하
나님의 뜻을 밧아 만민을 교화하미 인의례지 효제충신 차례로 발달되야 착한 자는 흥왕하고
악한 자는 멸망하니 흥망승쇠는 선악의 근인이라 흥망이 업게드면 선악을 엇지 알며 성함이
업게드면 쇠함을 엇지 알니 하결은 주악한 인군 어이 그리 무도하며 왕망진회는 한 역적 어
이 그리 방조하고 그 나라를 망케흙도 지공하신 하날이오(1906. 1. 18)

(19) 그 몸을 업시흙도 무스하신 하날이라 무도한 자 토멸하야 후세를 경계하고 어진 비
양함은 후인의 모범이라 명명한 가운데로 선악을 감찰하스 보용이 소소하니 전능하신 하나
님은 턴한국 한 분이오 공변되신 도덕심은 의중 업스신디 어이 우리 디한국은 황상폐하
어지시고 이천만 민 순하온디 포학한 이웃 나라 감안이 명령하스 위력으로 압제하고 강포로
학디하야 초잠식지 모진 계교 일취월장 늘어가서 학육이 대발하미 신의를 불고하고 시비를
발계하야 충현을 구박하며 간신을 부동하야 우익을 일우이매 국세는 급업하고 인민은 도탄
이니 명명하신 하나님이 의증을 두시는가 의증이 업게드면 어이 그리 한단말고 황연이 씨닷
게라 빅성들이 용우함과 정부 더신 김히든 잠씨오시는 본의로다 두렵고 두렵울스 이천만 동
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밧아 구습을 썰발이고 신학문 신교육에 어서 밧비 나갑세다(1906. 1.
19)

(20) 나라를 스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는 인국민인 열심으로 기명 목덕 나갑세다 나가지
안이코셔 초일피일 지니다가 턴부상대 하나님이 혁연이 진로하스 나라이 전복되고 인종이
멸개되면 아모리 후회흔들 쓸 데가 무엇인가 호턴통곡 무익하고 쌍을 쳐도 쓸 더 업서 턴디
가 막막하니 어디로 향홀손가

고언에 일닛스되 스스로 지은 죄는 오히려 살연이와 하날게 엇은 죄는 빌 데가 업다 하
니 이 심각 저 심각을 김히김히 헤아려서 게으르던 전일 구습 청년을 권면하야 교육에 열심
하면 한아 돌이 느르가서 괴천 괴만 될 터이오 일 년 이 년 슝스 년에 일취월장 발달되야

농상공학 정치 법률 각기 학문 즈격더로 농민은 농스하고 상민은 장스하고 장식은 제조하며
 벼살할 자 벼살하야 직업을 직히이면 심계가 너덕하야 가급 인족 못될손가 가급 인족 하계
 드면 국티민안 못될손가 국티민안 하계드면 국부민강 못될손가 국부민강 하계드면 독립국이
 못될손가 독립국이 되게드면 조유 권리 업슬손가 조유 권리 잇게드면 압제를 밧을손가 압제
 를 면케드면(1906. 1. 20)

(21) 학다가 잇슬손가 학다가 업게드면 평등 권리 그 아닌? 평등 권리 잇게드면 조유
 활동 못홀손가 조유 활동 하게드면 누구를 고리하며 무엇을 부러히리 정부 더신 재공들은
 전일을 씨다려여 정치를 밧게하며 교육에 마암 두어 후싱을 비양하야 장리를 괴약하오 빅성
 을 교육홈이 농부의게 비유하면 산던슈던 너른 들에 곡식을 심으라고 첫 번에는 거름 주고
 다음에는 종즈 더져 흑을 덤허 두엇다가 식이 나서 즈랄 썩에 잡초를 제히 주며 복을 도다
 비양하야 풍지춤지 각식 지앙 흑시나 잇슬가 날마다 염려타가 오옥 삭에 결실하야 베히 드
 려 노은 후에 비로소 방심하니 그 곡식에 들인 공력 엇더타 일으리오 인지를 비양홈이 이와
 갓다 하오리니 공력이 들지 안코 무엇이 될 터인가 바라고 바라나니 교육을 힘쓰시오 이너
 향적 말홀진디 신농유업 본을 밧아 의서를 비운 후에 약국을 기설하고 빅문동 텃민동과 진
 피반하 강활독활 천가빅지 각종 약을 봉지봉지 달아 늦코 병즈의 징세 보아 이것 저것 기입
 하야 병근을 다스릴제 한 가지 잘못하면 병세가 변홀지니 범연하고 될 터인가 정부에 더신
 들도 의원과 갓흔지라(1906. 1. 21)

(22) 나라의 병들음이 이리케 급흔 썩에 긴요한 약봉지를 차셔 업시 더져노와 화제를 연
 구안코 홈부로 쓰게드면 병이 점점 김홀지니 병근을 돌일손가 국력을 발달코즈 하게드면 민
 력을 붓잡아야 될 터이오 민력을 붓잡으라 하게드면 농공상업 권면하야 될 터이오 농공상업
 권면코즈 하게드면 교육에 힘을 써야 될 터이오 교육을 힘쓰고즈 하게드면 학교를 확장하야
 될 터이오 학교를 확장코즈 하게드면 교스를 턱용하야 될 터이오 교스를 턱용코즈 하게드면
 인지를 슈습하야 될 터이오 인지를 슈용코즈 하게드면 경향을 물론하고 친소를 불제하고 귀
 천을 불구하고 청축을 밧지 안코 순전한 이국 정신 빅절불회 국게 직혀 물의를 치담하며 지
 식을 시험하야 적당한 칙임으로 면면이 맞긴 후에 근티선악 감찰하야 권면홀 즈 권면하고
 죄줄 즈 죄를 주고 상줄 자 상을 주어 각기 직분 다케 하면 무어시 안이될가 텃시가 불행하
 다 국운이 불길하다 텃시국운 타슬 말고 정부 더신 일심되고 더소인민 단체되야 일심단체
 성을 모고 기과즈신 하게드면 문명 진취 이것이오 시정 기선 이것이라(1906. 1. 23)

<누락 가능성 있음 1. 24 ~ 1. 29>

(23) 천창만점 무엇 하며 만리장성 무엇 하나 텃시의 불행홈도 가히 감동홀 거시오 국운
 의 불길홈도 능히 돌너 올 거시오 강련의 포학홈도 가히 제어 홀 거시니 국부민강 아니 되
 며 조유 독립 못될손가 어화 우리 동포들은 끈이든 잠 씨오시오 다 밧갓네 다 밧갓네 동역
 에서 도든 희가 일중이 되얏스니 더명턴디 지금이라 씨오시오 씨오시오 잠잘 썩가 아니로다
 일 중에 일은 희가 석양불원하고 서산에 걸닌 희가 황혼이 불원하니 이 썩을 일케드면 다시
 엇기 어려워라 아모리 권고하나 듯지를 아니하면 그 말이 쓸 디 잇소 열업은 귀담이니 혼갓
 답답홀 썩이라 소용이 바이 업네 나도 너일 심각하야 정신을 가다듬고 마암을 씨오쳐서 후

일을 기다리오(1906. 1. 30)

(24) 로인이 의심이 하는 설화를 듯기를 맞친 후에 그 손을 잡고 류체탄식 왈 우리 량인의 말은 가위 즈탄즈가라 족히 세상 사람을 감동케 할 능력이 업거니와 이천만 동포 중에 엇지 쪼다른 자 업스리오 한 사람이 열을 권면하고 열 사람이 백을 권면하고 백 사람이 천을 권면하야 츄츄 그러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면 불과 몇 히 안에 전국 동포가 모다 화하리니 그러케드면 유의유식 하려는 자도 업서질 터이오 협잡할 생각도 업슬 터이오 아모스업이던지 아니하면 집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줄 알아 이러케 심한 겁운을 버셔 바리고 스천 년 오랜 나라의 독립 기초를 천만 년에 굿게 할 목덕으로 스람스람이 열심하야 이러케 미약하고 이러케 쇠퇴한 나라이 변하야 오디쥬 안에 아세아 데일 극락 세계가 될 줄을 뉘 알리오 엇더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야 피를 토할 듯하고 엇더케 생각하면 춤을 출 듯하니 아모커나 웅식하게 생각지 말고 활발하게 생각하야 각기 즈기 마암과 뜻을 양성하야 유용한 사람이 유용한 일에 쓰이고 무용한 짜흐로 도라가지 안키를 간절히 바랄 뿐이로다(1906. 1. 31)

(25) 의심이 사례하고 주효를 나와 서로 조상하며 서로 하례하며 그 일장설화가 혹 원망도 갖고 혹 하소함도 갖트여 듯는 자로 하여금 슬픈 마암도 나고 깃분 마암도 나게 하야 그 언론이 심히 격절하더라 로인과 의심이 술이 반취하며 강기힌 마암으로 취흥을 못 이기여 단가 일슈로 화답하니 그 단가에 갈았스되

반넘어 늘거스니 다시 점든 못하리라 여보소 더 소년아 빅발 나를 웃지 마라 무정세월 덧업스니 년들 미양 소년이리 늘거 죽어지면 북망산천 도라가서 령혼은 일진넙퐁에 헛터지고 빅골은 구천후혈에 진토가 되리로다 못나니 더 어부야 금울을 둘너 메고 네 어디로 향하냐 만경충헌 널은 물에 아암을 흘리너냐 어별을 흘리너냐 그 무어슬 하라 너냐 상던벽히 잠간이라 벽히가 상던되면 어별은 잇슬손가(1906. 2. 1)

(26) 더기더기 목동은 독기를 둘너 메고 네 어디로 향하냐 만학천봉 김흔 산에 슈목이 참전하니 그 곳은 미록에 노는 바오 평원광야 널은 들에 슈림이 울밀하니 그 곳은 금조의 노는 바라 메고 가는 그 독기로 벌목명당 베지 마라 그 남글 베게드면 금슈를 어이 하리 부탁나니 소년 어부 목동들야 니 말을 웃지 말고 명심불망 하여씨라 동즈야 술 부어라 일비일 비부일비로 장취불성 하여씨라

취흥을 불승하야 단가 일 곡 화답하니 낙지기중 이 안인가 그대는 취하였고 나는 장츠 갈 터이니 훗일을 다시 기약노라(1906. 2. 2) 完

3. 時事問答, 대한매일신보, 1906. 3. 8 ~ 4. 12(26회)

(1) 근일 춘귀 화창하며 엇던 선비 량인이 손을 글고 늙은 곳에 올라 안저 장안도도상 왕리하는 사람을 지점하며 고금치란의 시비를 평론하야 시국의 불평함을 기탄하고 강기힌 마음을 금치 못한다 하니 그 선비의 설명은 한아는 시골 선비의 호문성이오 한아는 서울 선비의 선희성이라 서로 상황이 담화할 즈음에 마참 무슴 령악한 소리 들니는지라

호문성이 늘나 무러 같오디 그 무슴 소리가 그다지 령악한뇨 처음에는 김흔 산골에 폭

포슈 흘으는 소리 갖치 나더니 나중에는 날븐 들에 황소 정각하는 소리 것흐나 극히 굉장하야 그 무엇이 소리라 지덕홀 슈 업거니와 그 소리를 감안이 지음한즉 금목슈화토 오행이 구비하게 된 물건의 소리인 듯호도다

선희성이 미미이 우스며 왈 그디가 처음 들은 듯호거니와 가위 어린 아리가 텃동 소리를 분변치 못함과 갓도다 그 소리는 달은 것 아니라 인천 동리 의주 등지로 리왕하는 털마의 소리라 혼디 호문성이 더욱 의심하야 같오디 털마라 하는 것은 무엇이완디 그 소리가 그다지 굉장하고 선희성 왈 그 털마라 혹은 그디의 일은 바 금목슈화토 오행이 구비하게 된 물건이니 그 물건된 체격을 의론하면 금기로 전체가 되얏스되 간혹 목귀가 셋겼고 토기를 잇그러 슈기와 화기의 힘으로 활동하는 것이니(1906. 3. 8 제162호)

(2) 그 각력은 능히 일일에 천 리를 행하고 그 힘은 능히 한 번에 텃만 근의 중슈를 슈운하나니라 호문성이 더욱히 생각하다가 같오디 니 이제 알앗도다 소위 털마라 혹은 털로 룬거를 일음이 안닌가 그러하나 그것이 엇지 금목슈화토 오행이 구비하게 되얏다 하리오

선희성 왈 니 즈셔히 일오리라 그 물건됨이 전혀 쇠와 남무로 만들었스즉 금목이 분명하고 석탄은 흑에서 나고 화륜통에 물을 붓고 석탄에 붙을 핀 연후에 운동이 되니 슈화토가 구비치 아니한가 그러하나 그것은 전혀 금체로 되었슬뿐더러 우리 나라의 여간 빅동이라 청동이라 하는 쇠쏘각은 모다 그놈의 복중으로 물너들어 가는고로 그놈이 쇠를 만히 먹어서 그러흔지 간간이 질오는 소리가 일단 철성이라 만일 우리 나라 인민이 그디로 어리석고 그놈은 그디로 왕성하면 장차 전국의 쇠쏘각이라고는 구경홀 슈 업슬 터이오 또한 함흥 원산 짜지도 왕리하며 흙부로 집어먹을 터인디 그뿐 아니라 그놈 왕리하는 곳마다 인민이 전될 슈가 업서 던토와 가옥을 부지치 못하며 청산에 못친 빅골짜지도 보전치 못하나니(1906. 3. 9 제163호)

(3) 엇지 두렵지 아니하리오 호문성 왈 그 화륜거가 구미 각국에서 먼저 지은 것이로되 그 나라에 쇠 쏘각이 귀호얏졌다는 말을 듯지 못하고 점점 식리가 되야 부국강민이 되얏스니 그것으로 해야 돈이 업서질 바 잇스리오

선희성이 탄식하야 왈 그런 스업을 우리 국민이 하는 것 갓호면 쇠쏘각 업서질 염려는 시로여 지물을 모홀 근본이 될 터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나라에 반푼 일리도 리익은 없고 다만 민국간 큰 고막인 것시 털도 괴지로 몇천 리 몇백 리 되는 연로 각 디방에 관유지 민유지를 불게하고 털로 괴지라 덩거장 괴지라 해야 갑도 업시 점탈하니 나라에는 강토가 점점 줄어지고 빅성은 던토가 업서 농업을 폐지하니 그 관계가 엇더하며 털로 잇는 각지방 인민들은 룬거사시 빗스니 쓰니 하면서도 보힘으로 왕리치는 안으려 해야 연로 점막에 핑키이 조결하야 로변에서 거싱하는 인민들이 심이가 쓴어지고 전전푼푼이 물여 룬거사전으로 외국인의 낭탁에 들어가니 한 번 들어간 후에야 무슴 지간으로 다시 구경이나 하야 볼 슈 잇나 비록 괴천 리 괴빅 리를 삼시간에 왕리호즉 그 니왕의 신속함과 로비의 감심됨이 당장에는 편리타 홀연니와(1906. 3. 10 제164호)

(4) 감안이 해일이면 그 폐단이 엇더타 일오리오 저 구미 각국으로 말호게드면 무론 무슨 스업이던지 나라에 유익하고 인민에게 편리호도록 어디써지 연구하야 가며 경영하는고로

민국간에 방학됨이 업서 점점 부강한 데로 나아가 그 털로갓흔 것도 너 나라 토디에 너 나라 인민이 부설하야 영업하는 것인즉 지금 만국이 통상하는 판에 한 푼이라도 외국인의 돈 이 너 나라 지방에 써리질 터이지 내 나라 돈을 남의 나라 스람이 가질 묘리가 업서 점점 부국강민이 된다 흐려니와 우리 나라 형편은 그러치 못하야 남의게 괴지도 빌니고 심지어 물지와 역부까지 빌니여 가며 리익을 만들어 주니 무엇이 내게 리롭다 하리오 도시 우리 나라 정부 이하로 지어 뵈성까지 모다 용우하고 혼암하야 초초에는 무슨 경륜으로 무엇을 시작하는 체하다가(1906. 3. 11 제165호)

(5) 필경 성스치 못하고 나중에는 홀 슈 업시 남의게 빼앗기고 마는 지간 썩은즉 가위 발종지 하시는 것이라 츠라리 아모 것도 하는 체 안는 것이 도로혀 상척이니 나라의 전도를 심각하면 엇지 한심하고 통곡할 일이 안일손가 호문성 왈 철로는 그러흐거니와 시계 즈명종 던보줄 던화줄 던기등 갓흔 것은 더단 유용한 것일가 호노라 선희성 왈 유용하게 말하면 어느 거시 유용치 아니홈이 아니나 한갓 탄식할 바는 내 토지 내 물력을 들여 니가 하지 못하고 남의 슈중으로 돌려 보려는 일이 원통하도다 호문성 왈 그 열어 가지 명목의 신기흔 말은 시골 잇슬 썩에 보지는 못하고 남의 전하는 말을 들오미 그 말이 심히 허황땡낭하게 듯고 일호도 맞지 아니하야 심각하기를 진기 글언 것이 잇스면 혹여 신접흔 조화의 슈단인가 하얏더니(1906. 3. 13 제166호)

(6) 금번에 눈으로 친히 보고 심각한즉 이왕에 전하던 스람의 말이 허언이 안닌 줄을 알찌고 쏘흔 신접흔 조화로 되지 안닌 줄을 알앗도다 그러나 저 서양 스람들은 엇더케 하야 달은 스람이 듯고도 의심하고 보고도 알기 열여온 스업을 만들어 너엿는지 참 회한한 일이다 선희성 왈 그 스람들도 습두륙비가 아니오 우리와 갓치 눈 둘에 코 혼아 잇는 인종이 로디 그 제조물의 특별홈은 다른 연고 아니라 다만 무엇이던지 리치를 궁구하야 괴어히 투득하야 니고마는 특성이 잇는 연고어니와 천종만물의 제조홈을 모다 나라에 유익하고 뵈성 의게 편리하도록 점점 연구하야 만드는 것인즉 그것은 모다 인국민하는 스상에서 나오는 비라 화륜거와 화륜선을 지어 사람으로 하야금 기천 리 기획 리를 순식간에 왕리하되 피곤홈이 업게 하고 시계 즈명종을 제조하야 슈야 이십스 시를 평균 이분비하야 스람으로 하야금 그 시간을 맞초아 일홀 썩는 일하고 쉬을 썩는 쉬게 하되 일 년 습뵈륙십 일에 일 분이 틀넘이 업게 하고 던보줄 던화줄을 설치하야 사람으로 하야금 천리밖 일을 삼시간에 알게 하야 멀고 갓가움이 업게 하고 던기등을 제조하야 어둔 것을 발케하니 그 허다 긴요한 것을 일일이 설명할 것 업거니와 우리 나라 사람들은 다만 유용하고 편리한 줄노만 알고 그 리히가 엇더케 되는 것을 아지 못하니 유용한 것이 도로혀 무용한 것만 갓지 못하고 편리한 것이 도로혀 불편한 것만 갓지 못하도다 호문성 왈(1906. 3. 14 제167호)

(7) 무른 무엇이던지 유용한 것이면 유용하게 쓸 터시오 무용의 것이면 무용하게 될 터 인디 엇지하야 유용한 것이 무용한 것만 갓지 못하다 하며 편리한 것이 불편한 것만 갓지 못하다 하는요 선희성 왈 더더 그런 것 저런 것을 물론하고 우리 나라 인민이 초초 쪼다라 혼 가지식이라도 제조를 혼다던지 부설을 혼다던지 하야 나의 제조홈과 부설물이 흥왕하고 남의 것이 쇠잔하면 즈연 중 유용한 것이 유용하게 되고 편리한 것이 편리하게 되려니와 그

리치 못하야 한갓 눈으로 조케만 보고 입으로만 유용한 것이라 말할 뿐 아니라 그 간신히 뵈듯 뵈듯 모아다가 털로 룬선 던거 던보 등속의 소비로 들여보낸즉 그 돈은 외국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런 리익을 남을 주어가며 유용하다 편리하다 하면(1906. 3. 15 제 168호)

(8) 무엇이 유용하고 편리한가 지금 세계는 전혀 학문과 지물로 쓰호는 시디인즉 학문과 지물이 업스면 무엇으로 나라를 보전한다 홀이오 이왕에 그것 저것 없슬 썩에는 우마와 교군으로 화륜거와 던거를 더신히고 들길음과 소길음으로 석유와 던기등을 더신히고 나제는 더 그림즈와 밤에는 달기 소리 등속으로 시계와 증명종을 더신히앗스니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 질든흙과 군식흙은 비록 달으나 기 리치는 일반이라 그러하나 지금 시디는 썩로 달고 날노 변하야 점점 무근 것을 밧이고 식것으로 나아가는 판인즉 우리 나라 스람들도 남의 나라 스람들의 하지 못하신 스업은 초치 물론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숨너라도 니기를 심각하야야 될 터인디 한갓 조포조기하는 마음으로 등한이 밧여두고 입으로만 유용한 것이니 편리한 것이니 혼즉(1906. 3. 16 제169호)

(9) 그것이 일단 병통의 근원이오 완고의 육습이어나와 만일 완고의 육습이 잇게드면 찰아리 말과 교군을 탈지언정 룬거나 던거를 타지 마는 것이 울코 들길음과 소길음을 쓸진정 석유나 던등을 거론치 안는 것이 가하고 달기 소리와 일영을 비준하야 주야의 일소 느낌을 짐작할지언정 시계 증명종을 스지 안는 것이 당연하거날 그 하는 것을 보게드면 완고니 슈구니 하는 즈들도 룬거나 던거를 타지 안는 자이 업고 석유나 던기등을 켜지 안는 집이 업고 시계 증명종이 업는 집이 업슬 썩만 아니라 기타 일용만물에 어는 것이 업서 스소한 리익이라도 모다 남을 주어 전국 지정의 경갈흙이 극항에 일오되 그 병이 어디셔 나지는지 어는 곳에 잇는지 도모지 불계하고 한갓 외면으로만 완고 슈구의 목덕이 잇는 체도 하고 우국익민의 스상이 잇는 체도 하나 실상을 의론하면 아모 경륜도 업고 다만 이전 부패한 육습으로 전일에 지너던 일만 심각하야 혼 문탕이 캄캄한 마음을 능히 기오치 못하니 가워 교쥬고 실이라 할만하고 소위 지간이 조곰 잇다 하는 자는 교스가 무쌍하야 신학문이 좀 잇는 스람을 더하면 즈기도 신학문에 향의하는 체하고 완고의 스상이 잇는 듯흔 스람을 더하면 즈기도 슈구의 터도를 나타내어 항상 말하기를 이전에난 그런 것 저런 것 업섯셔도 오뵈년 승평 세계를 일웠스니(1906. 3. 17 제170호)

(10) 기명 문명이라난 것이 무엇인고 하야 이 스람 저 스람의 눈치 보아가며 그 뜻을 마초난 것을 스스로 임시 체변의 제일 능스로 알고 한 가지 쥬장할 마음이 업스즉 가워 표리부동이라 할만 혼지라 그 허다 병풍 상속의 악습은 이로 른란할 슈 업거니와 더져 상고로 말하면 무슴 물건이던지 우마에 실는 것이 비록 룬거나 룬선에 실는 것보담 부비가 더하다 하려니와 깊히 심각하면 가랑 한 량을 저 스람 쥬고 두 량을 우리 스람 쥬면 당장은 리히가 관계되나 저 스람의 돈 한 량은 영영 업셔지는 모양이오 우리 스람 두 량 준 돈은 항상 내 나라 디방에 잇슬 터이니 속담에 일은 바 쥬머니에 돈을 초갑에 움겨넛는 것 갖다 할지니 초갑과 쥬머니가 비록 명목과 소용이 달으나 필경에 너 괴물되기난 일반이니 그 리히를 교제하면 엇디하다 하리오 그 밧게 여러 가지가 모다 그와 갖흔고로 유용한 것이 무용한 것만

못하고 편리한 것이 불편한 것만 갖지 못하다 흠이로다(1906. 3. 18 제171호)

(11) 호문성 왈 그 리히는 그러하거니와 소위 증명종이라 하는 것은 가위 경세종이라 할 만 하도다 니가 일전에 모처에 간즉 그 썩는 오정에 갖가이 되얏고 그 곳에 었던 스람이 안저는디 맛참 시계가 우는지라 기중에 늘근이 혼아이 시계의 우는 소리를 듯고 잠연이 눈물을 흘니며 왈 저 시계의 돌아감을 보면 세월이 덧업시 흘음을 알깃고 사람이 늙는 줄을 더욱히 찌다를지로다 이왕 나도 소년적에 항상 소년으로만 잇슬 줄로 알고 세월이 한량업시 장구한 줄로 알앗더니 저간에 세월이 츠타하야 귀 밋히 검은 털이 변하야 금일 빅발을 일우엇스니 그 빅발이 다시 검어질 리가 만무하고 얼마 되지 못하야 이내 육신이 북망산 한 줍혹을 보터리니 었지 슬프지 아니하며 금일 금시 이 종소리를 다시 들을 슈 업스리니 었지 조상할만흔 일이 아닌가 하미 일좌가 모다 마음이 감동하야 비창흔 비치 잇는지라 나도 그 말을 듯고 감안이 심각한즉 출성 이후 수십여 년에 유정흔 세월을 무정하게 허송하고 아모스업도 혼 가지 일 업스니 압해 오는 세월을 뒤에 지닌 일과 갖치 우유도일 하다가 한 번 죽은 후에 누가 나를 위하야 조상할 자 잇스며 내가 세상에 낫던 줄을 알 자 잇스리오 그처럼 생각하미 마음이 스스로 울울하야 신괴불평흔지라 드디너 이왕 춘풍화월에 음풍영월로 세월을 허던 구습을 확연이 혁거하고 신학문 신스업을 경영코즈 뜻을 퇴정하얏스나 비유컨디 철야 습경 무지공처에 길을 찾지 못함 갖도다 선희성 왈 경세종이라 흠은(1906. 3. 20 제172호)

(12) 세상을 경계하야 찌오치는 쇠북이라 할지니 그디의 일은 바 시계 증명종은 저근 경세종이라 종현 쌍쌍이니 약현 쌍쌍이니 종로 인경이라 광화문 인경이라 하는 것은 가위 큰 경세종이라 할만 하도다 일전에 었던 곳을 지나다가 본즉 짐지고 가던 스람 한아이 짐을 버셔 로변에 눕코 열어 스람들의 후주로 다토는 것을 정신 업시 셔셔 보다가 오정 치난 종소리를 듯고 놀나 히를 치어다 보며 즈탄하야 왈 발셔 오정이 되얏도다(1906. 3. 21 제173호)

(13) 부질업슨 구경을 탐하다가 한정이 잇는 시간을 허송하얏스니 일에 낭패가 적지아니토다 하고 급급히 짐을 지고 총총이 가는 것을 보니 가히 계론 자를 부즈런하게 인도하난 경종이라 할만 하거날 근일 정계 관인이나 신스 신상간에 시계 자명종을 치레건으로만 걸어두는디 정부 관리로 말하게드면 디신 이하 참셔 판주스씨지라도 스진하고 파사하는 데 더하야 그 일정한 시간이 잇거마난 스진할 썩난 시간에 별노 상관이 업게 알고 파스할 썩난 그 시간을 준행하는고로 가량 상오 열 시에 스진할 자가 십이 시나 혹 하오 일이 시간에 스진하얏더리도 파스할 시간만 되고 보면 공스의 유무와 긴급 지원을 불계하고 허여지난고로 공연이 월급만 먹고 단이난디 심지어 었던 자난 공문을 슈정하다가 파스할 시간이 되얏다난 말을 듯고 쓰던 공문의 글즈를 반자불성하고(1906. 3. 22 제174호)

(14) 나가난 자이 더러 잇섯다 하니 그런 경우에만 경세종이 아니라 학스종이라 할만 하도다 그러흔즉 각부에 관리가 비록 천만 명이 잇기로서 무슴 일을 한다 하리오 그 중에 아모 것도 아니하고 날마다 왔다갔다 하야 버슬즈리를 즈기에 소일자리로만 알뿐 아니라 염치 업시 월급이 박한니 관리의 외슈가 부족하니 하면서 공문이 적체하야도 한 가지를 속히 치판할 심각도 아니하고 한 글즈를 쓰기도 심각지 아니하니 그러케 놀고 단이난 관리난 비록

몇백 명 몇십 명이 잇더러도 일어난 스람 한아만 못할지니 엇지 외국 스람들이 보면 용관이
라 안이하며 감익하즈 아니 하리오 제 나라의 제 일하기를 남의 나라의 남의 일하듯 호야
필경 보호 감독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마암과 핑실을 곳칠 심각이 업고 다만 각박하다 원통
하다 남만 원망호니 그 원망이 쓸 데 잇나 소위 주무호는 디신 이하로 협판 국장 참서관 주
스까지 그러케 일들 하기 슬허하난 짜다에 통신원을 빼앗긴다 외부를 혁파한다 호야(1906.
3. 23 제175호)

(15) 국건이 감삭하고 독립 기초가 업서질 디경이되 오히려 정신을 찰이지 못하고 엄병
하는 슈작으로 시정 기선을 혼다 인지 턱용을 혼다 하되 이떡것 무엇을 실시하였단말을
듯지 못하였으나 인지 턱용은 착실호 인지를 턱용하는 모양인데 그 스람들의 핑적을 의론하
면 관찰 군슈로 탐학민지에 유명한 자 아니면 남북촌 스람으로 도라단이며 아참이나 잘하는
자이니 그 사람 턱용하기도 극관하고 각부 디신이 츠레 거름으로 한아들식 호천하야 서임하
고 공원이 더 즈창하니 시정 기선 다 보았네 그런 스람들의게는 경세종도 쓸 디 업고 디포
알이 나온다 하면 정신이 날는지 호문심 왓 우리 나라 스람도 물건 제조하난 지조가 업다
하지 못할지라 그 훈장 만드난 지조난 어느 틈에 비왓단지 훈장은 잘 만들어 직품짜라 츠고
보니 보기난 홀름호되 실적을 궁구호면 훈장이 앗갑도다 선희심 왓 훈장이란 두 글즈의 의
무가 분명한디 우리 나라에 그 훈장을 츠난 즈난 부장 총장 각부 디신과 기타 고등 관리가
제일이 차고 보니 군부로 의논호면 근리 각처에 봉기호는 화적당(1906. 3. 24 제176호)

(16) 한 기도 잡지 못한 즈의게 무슴 군공이 잇다호며 각부 디신으로 의론호면 나라 결
단난 자의게 일만 핑호난 자의게 무슴 훈로가 잇다 호리오 그 훈장 밧은 자들이 만일 일
분이라도 스람의 마음이 잇스면 엇지 황공코 붓그렵지 안으리오마난 그 심각 저 심각 도시
업고 다만 호기 바람으로 줄에줄에 츠고 단일 썸만 아니라 공문상 성명홈에 훈일등 훈이등
을 디셔특서로 써 노으니 무엇으로 훈일등이며 무엇으로 훈이등인가 나라 망케 호난 일에
디호야 공을 쓰는다 호면 일등 이등을 서로 닳들만 하거니와 그 외에난 한앗도 훈장이 당치
아니 하도다 공원이 국지를 허비하야 훈장을 제조호며 그 일을 관할 츠로 표훈원을 설치하
고 관리를 마련하야(1906. 3. 25 제177호)

(17) 허다 경비가 디 년에 괴빅만인즉 지금 국지가 경갈하야 괴빅만 기천만을 외국으로
차관한다난 판에 표훈원 갖흔 거슴 혁파하였스면 조홀 듯하도다 호문심 왓 일본 스람들□
□□을은 쓸 디 없난니 하며 □□ 만으니 적으니 하야 혁파도 하즈 감익도 하즈 하되 실상
무용의 표훈원갓데난 아모 말도 아니 하난 모양이니 그 스람들이 아즉 그 형편을 즈서히 아
지 못호인가 실노 의혹할 일로다 선희심 왓 그 스람들이 엇지 물으리오마는 그 훈장이 일
본으로 건너가는 것이 절반이나 되니 저의게 일분이라도 리익이 될지언정 조금도 방이될 것
업고 우리 나라의는 무용의 것인즉 무엇에 관계하야 남의 듯기실은 말을 하기 죠아 하리오
지금 한일 량국이 이러케 관계가 엇난 판에 한국의 헐되는 일은 곳 일본의 리되난 일이 만
은지라 우리 나라 국지 소름됨을 관렘할 자 잇스리오 전정울(1906. 3. 27 제178호)

(18) 류통시긴다 호며 농공실업을 발달시긴다 하고 차관하야 주기를 즈청하야 계약을 성
립하얏다 하니 우리 나라 형편으로 보면 심지홀 도리는 업고 여간 잇던 지물이 날마다 외국

으로 흘러 나가니 제 비록 퍽천만 원을 츠관하야 온 디도 그 돈이 얼마 부지를 못홀 터이오 공연이 밋만 되야 비록 몇십 년에라도 갑하 볼 슈 업스리니 차관하는 날은 나라 파라먹는 날이라 그런 일 저런 일을 물론하고 모다 나라 결단낼 일은 혼일등 혼이등의 훈장 찬 사람들 슈중으로 죠차 나오는 터인즉 더관절 표훈원이라는 칭호와 훈장이라는 말이 실히 덕당치 못하도다

호문성 왈 근력 우리 나라 정부 관리나 일반 인민의 소위를 보게드면 한아토 즈유로 하는 일은 업고 모다 남의 지휘를 기다릴 썬만 아니라 당연이 홀만한 일도 무엇을 거리끼는 스단이 잇는 것갓치(1906. 3. 28 제179호)

(19) 쥬져하다가 필경에 남이 먼저 츠슈하는 디경에 일으면 문득 남을 원망하야 즈기의 형치 못흔 험을은 조금도 싱각치 아니하니 그 실스를 의론하면 니가 남을 쥬 것이지 남이 내 것을 썬이슴이 아니라 그러하고로 극히 세미한 일노 말홀진디 근일 한성 오서니에 청결 위성법을 실시한다고 소예군을 설치하야 구루마를 끌고 단이며 각방곡에 쓰인 오예물을 처가난디 그 소예군도 혼즈는 오예물을 처가지 못하는지 일본인 일 명이 그 소예군을 령술하야 끌고 단이면서 일일이 갈아쳐 쥬엇야 그것을 치울 줄 아니 그런 것을 보고 싱각하면 우리 나라 사람의 성질이 우마와 달음이 업서 남의게 쓸여 단이기를 죠히 여겨 그러흔지 남들이 대접하기를 우마와 갓치 하야 그러흔지 남의게 쓸여 단이난 일이 심히 인달도다

선희성 왈 우마라 하는 짐싱은 스람이 끌고 단이지 아니하면 부릴 슈 없는 것인디 사람을 사람이 쓰우고 단이며 천종만물을 모다 입으로 날너서 하고 보면(1906. 3. 29 제180호)

(20) 우마를 부리는 것 갓홀지라 우리 나라 사람이 그런 경우을 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닌즉 그 형편이 우마와 갓다홈이 용혹무괴흔 말이어니와 실정을 싱각하면 가련하고 한심흔 일이 만토다 그 싸썩을 더강 론란하면 첫지는 교육이 업고 학문이 업서 무엇을 엇더케 하면 죠홀는지 방향을 명치 못하야 무슴 일에던지 결단흔 쥬심이 업서 항상 쥬져 미결흔 것이오 돌지난 의퇴흔 마음 썬중하야 자유 권리 무엇인지 모로고 보니 퍽사만스에 모다 어대를 의지하야 할 줄로 아는 것이라 그러흔 중에 니가 알고도 능히 형치 못하는 일도 잇고 압제 세력에 엇지홀 슈 업서 부득이 하야 형하는 일도 잇고 의퇴홀 마음으로(1906. 3. 30 제181호)

(21) 유공불급하게 시험하는 일도 잇고 당장 적은 리를 취하야 협잡으로 형하는 일도 잇는지라 그 소예군 갓흔 것으로 말하야도 그러케 쓸여단이는 것을 질겨홈은 아니라 위성청결의 일체 스무를 경무고문관이 감독하고로 일인 띠장을 너여 그 소예군을 령술케 홈이어니와 우리 나라 인민도 교육만 잘하고 보면 엇지 다른 나라 스람만 못하디 질언하리오 호문성 왈 그는 그러하려니와 교육을 혼즈 하면 학교를 만히 설치하야 홀 터이오 학교를 설치혼 즈면 교스가 잇서야 홀 터인디 근력 경성 니외와 각 지방에 여간 학교 명식이 잇스되 그 교스라는 자는 어로불변흔 삭고교관 갓흔 쥬이 무슈하니 무슴 지조로 교육이 발달되기를 발아리오 선희성 왈 그 싸돔은 달은 연고 아니라 학부 더신이 그 학교 교관을 벼살즈리로 알고 교육은 엇더케 되던지 위선 권리나 부리즌는 경륜에서 나오는 바어니와 그 께단이 여러 가지 잇스니 더강 학교 교스 중에 일본 스람의 월급은 가랑 퍽 원이면 본국인의 월급은

(1906. 3. 31 제182호)

(22) 십오 원이나 이십 원에 지나지 못하즉 디단 억울한 일이다 그 월급의 다소가 학문의 고하를 따라 정한 것 갓흐면이어나와 그러치도 안코 나라 권리로 압제에 고빙이 만은 지라 그런고로 우리 나라 동포 중에도 신구학문을 정통한 자이 업는 바이 아니로디 소위 관법학교에 교관을 불원함은 그 교관을 공명으로 취치도 안코 그러케 박한 월급을 심계로 알슈도 업서 비록 스텝 학교에 가서 명예 교사는 될지언정 학부 관할에는 잇지 아니하라 하나 니 그 근경을 감안이 심각하면 한심한 일이 혼두 가지 아니로다 근일에 일인의 힘수를 보면 어는 썩는 경무 관리를 감익하고 어는 썩는 경무를 확장하라 관리를 증익하나 청치안는 츠관하여 주며 교육 발달 증칭하고 일인 교소 고빙하며 경찰 확장 지칭하고 일인 경무 고용하며 농공상업 실시한다(1906. 4. 7 제188호)

(23) 일인기스 달여다가 츠관한 돈 괴빅만 원 저의끼리 분식하고 불상한 우리 국민 동족도 못보고서 그 돈을 갑조하면 원통한 일 그 안인가 일인으로 말하즈면 저의 돈 저의 먹고 나중에 려체업시 한국정부 다하야서 차관한 돈 변리라고 년년이 독촉하며 괴한이 되얏는이 과한 되얏는이 구축이 막심홀 제 솜씨 조개 계약한 모모디신 저 혼즈 당홀손가 그 양화 그 여독은 전국 인민 당홀지라 그디와 날지라도 이천만 중 한아이니 우리인들 편안홀가 그러홀리 만무호지 호문심 왓 근일에 잔채는 잘덜호데 통감부 기청식의 원유회라 모디신의 만찬회라 날마다 낭조하니 시화세풍 금일이오 국티민안 금일이라 아모 근심 다 업고져 독악낙이 데일이지 선희성 왓 근일 잔치 의론호면 일인의게는 낙성연이오 우리 나라 디관들의게는 푸닥거리나 달음이 업도다(1906. 4. 8 제189호)

(24) 낙성연 일흠 조아 흥치 운치 잇거니와 푸닥거리 의론호면 우환잘고 못견디여 슝부득 호는 바라 일흠은 잔치이나 정황은 각각인디 어리석은 디신들은 이 마음 저 마음이 모다 비거석양풍이라 어느 잔치에 빠지는 데 한 곳 업시 유공불급 참석호야 뵈쥬 한 잔 어더 먹고 천세 만세 부르면서 반점슈터 업고 보니 얼골도 썩썩하고 뵈 속도 편안호지 회회낙낙 웃는 일은 무슴 조흔 일이 잇나 천치 중에 상천치라 입을 버려 우슬 썩에 개똥이나 너어쓰면 비위에나 역홀는지

호문심 왓 디방 소문 들어본즉 화적당은 붕괴호야 뵈쥬칠야 불계하고 칼을 들너 시위하며 총을 노아 횡횡할 제 부요한 자 빈흔한 자 늘근이 절문이가 불우지변를 당하여서 창황망조 분류하야 풍비박산 허여지미 옥석이 구분이라 일동이 공허하니 화적당의 득의로다 지산의 유무더로 썩을 따라 탈취한 후 총화도 하고 가며 살허도 하고 가니 화광은 총턴하고 호곡지성은 진동호야 정황이 참혹하니 소위 디방 관찰 군슈 제 아모리 무도회도 마음에 측은이 알터로디(1906. 4. 10 제190호)

(25) 측은지심 고스하고 화적당의 뒤를 조차 도적을 기포한다 순교순졸 니여노아 화적의 접쥬이니 즉시 알게 아니히다 가진 죄목 얼거가며 구지타지 악한 형법 화적보다 우심하고 돈을 쥬지 아니호면 무죄 평민 결박호야 착입 관정 하계드면 군슈라 하는 즈는 먹을 차비난 줄 알고 불문곡직 호옥호야 빅단으로 공갈하니 가련한 이 빅성이 누구를 밋을손가 그 중에 밋친 선비 일본을 비척한다 창의통문 발행호야 의병을 모집한다 괴빅 명 괴심 명을 성군

작당 할아가며 빅성을 요동흔죽 일흠은 의병이나 형위는 화적이라 모모쳐로 도회할야 거스
 홀 일 의론홀 제 일헌병 일순스가 이슴 인만 가고 보면 스산분주 도망할야 그 중에 슈스는
 즈 몇몇만 포착되던 취초봉초는 초할야 무고 심령 흡희 하니 이란격석 가소롭고 앙급지어
 원통도다 선희심 알 실지을 의론하면 화적이 디치흠도 정부에서 정부 노릇 못하는 짜닥이오
 의병이 창궐흠도 정부에서 정부 노릇 잘못하는 짜닥이오 심령이 도탄에 들어 심명지산 보존
 치 못하고 스방으로 유리흠도 정부에서 정부 노릇 잘못한 짜닥이라 소위 화적당도 이천만
 중에 든 인민이오 소위 의병도 이천만 중에 든 인민이라 당초 정부에서 지방 관리를 턱쳐하
 고 돈을 bat지 아니하야 박탈민지 아니하얏스면(1906. 4. 11 제191호)

(26) 인민이 각기 제 지산 제가 보하야 각안기업 할 것인데 정부에서 먼저 큰 부란당은
 각도에 혼앗식 저근 부란당은 각군에 혼앗식 내려 보니여 제각기 제 슈단더로 민지를 탈취
 하되 누가 금혈 지 잇스리오 그런고로 여간 잇는 지산을 큰 부란당 저근 부란당의게 몰슈히
 췌앗긴 후 부모쳐즈 류리하야 기한이 도꿀흔 농공상업간에 귀속이 업고본즉 스세 부득이 도
 적이 되는 것이니 이는 정부에서 양민을 모라다가 도적을 만드려 슈미오 의병으로 말홀지라
 도 정부에서 일을 잘하야 국권을 손상치 아니하고 독립을 유지하야 일본 압제 업서스면 의
 병인들 잇스리오 도시 정부의서 시긴 비라

다시 할 말 무엇 잇나 하며 호문심 선희심이 서로 허회장탄하고 일어서니 이 췌 석양은
 서산에 걸여 잇고 게으른 시는 슈플로 도라가더라 인할야 구양용의 지은 바 석양지산에 인
 영이 산란하고 금조는 지산림지이부지인지낙의 글귀를 울푸며 산에 내려 각기 집으로 도라
 가니라(1906. 4. 12 제192호) 完

4. 소설 디구성미리몽, 대한매일신보, 1909. 7. 15~8. 10. (19회)

(1) 우세즈는 단군 이후 스천여 년 시디 사롭이라 일즉 교화가 붉지 못하고 풍속이 아
 름답지 못한 것을 근심할야 혹 청년을 교육하며 혹 지스를 권고하고 혹 완고를 경성할기 위
 할야 세상에 도라 돈든지 몇 회에 혼 사롭도 지듯는 자 업고 도로혀 지목할기를 광패한 자
 라 하며 조롱할기를 허황한 자라 할야 인류로 디접지 아니 할거늘 우세즈 | 즈탄즈가
 하고 일반 동포에게 권고할라던 일체 잡지와 월보를 다 집어 던지고 니러서니 그 형장을 불
 작시면 청려장 덩개와 석시 집신을 일 쌍이며 조고마흔 보스짐 뒤에 소라 표즈 혼 개를 돌
 었더라 십 리 빅 리 천 리를 덩쳐 업시 돈니다가 혼 곳을 다다르니 산명슈려 더 동턴이 별
 유턴디비인간이라 폭포슈는 빅룡포가 돌려 잇고 무림슈죽은 청포장을 둘러 잇는디 우느니
 임무 원앙이요 조으느니 노루 사슴이며 춤추느니 빅학이요 기화요초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
 할던 바 | 라 우세즈 | 홀노 방황할며 스면을 도라 보니 각식 식물과 동물은 괴괴괴괴한 중
 에 동물 중 2장 령귀한 사롭은 즈기 일신 외에 할나도 못볼너라 보스짐에 돌었던 표즈를
 떼어 들고 폭포가에 나아가서 회고 맑은 물을 두세 번 췌 마시고 괴엄괴엄 췌 혼 고기에 올
 나가니 층암절벽은 버려잇고 빅운은 막막한디 뵈이느니 청턴이요 들니느니 물소리라 구비구
 비 긴 등을 도라 상상봉에 올라가서 전후좌우를 느려다 보니 동서양 낯연고는 눈 압해 느죽
 하고 태양태음과 모든 별이 머리 우헤 멀지 안타 금잔되는 스면에 평포하고 천년 늙은 회화

나무는 록음이 울울하니 오썩오썩 괴석이오 번뎃뎃 반석이라(1909. 7. 15)

(2) 우세즈 | 괴석 우해 보스짐을 버서 노코 반석으로 옮겨 안즈 시원한 바람을 쏘이더니 홀연 인적이 나며 한 늙은 중이 머리에 치포 곱질을 쓰고 억기에 오쇠 가스를 메이고 손에 석장을 들고 발에 퓌운리를 신고 휘적휘적 올라 오더니 한숨쉬며 관세음보살 주저 안지며 남무아미타불 곱히 사람을 보는 듯 못보는 듯 다시 긴 소리로 계음 일 장을 부르니

어어어 봉헌일판향 으으으 덕용관스 외이더니 어어어 근반진스에 으으으 염주오슈미이더니 어어어 불상하다 더 창성들 으으으 극락 세계 어더두고 어어어 칼산디옥 왜 찾습나 으으으 방아질 작도질 더 형벌을 으으으 압허흔들 뉘 말닐가 어어어 불상하다 더 창성들 몸망하고 나라까지 어어어 나라 업는 더 귀신들 으으으 참혹하다 더 죄악을 어어어 닥치느니 형벌이오 으으으 부르느니 노래귀라 어어어 심전에 나라 일코 으으으 환성흔들 어더 가나 어어어 어둠침침 염라부에 으으으 천년 만년 깰귀로다 어어어 불상하다 더 창성들 으으으 어서어서 지식 넓혀 어어어 망국죄인 되지 마라 으으으 불상하다 더 창성들 어어어 남무아미타불

그 소리가 처량 감개하야 청산이 참담하고 류슈가 오열하니 원기가 눈물이 옷깃을 적시더라 우세즈 | 손을 들어 길게 읊하고 무르더 대스는 어느 명산에 잇스며 어디로 향하며 범호는 무엇이라 하느뇨 그 중이 합장하여 공근히 답례하고 닐으디 쇼송의 칭호는 원장법스 | 라 하옵는디 지금 총령을 넘어 천 리 정허를 지나 이곳에 왔거니와 이 산은 우리 불가의 유명한 슈미산이라 선심은 뉘신지 엇지 이곳에 니르시뇨(1909. 7. 16)

(3) 우세즈 | 왈 나는 대한데국에 우세즈 | 라 칭하는 광기이니 우리 민족의 부패함과 국제의 빈약함을 근심하야 월보와 잡지를 발간하야 세상 사물을 지도하기로 일을 습더니 하나도 찌뎃는 자는 업고 점점 비참한 디경에 빠지미 내 비록 불긋흔 열혈이 쓰르나 한 손으로 건질 수 업는고로 주연 화에 띄어 세계에 멀리 놀어 흥회를 펼가 하다가 우연히 이 곳에 왔거니와 나도 이왕 불경을 대강 열람하여 계음과 인도를 만히 알엇스나 지금 대스의 부르는 계음은 이왕에 보도 듯도 못하엿스니 그 계음은 무슨 뜻이며 소리는 엇지 그리 비참하뇨

법스 | 왈 쇼송이 이번에 옥경으로 가다가 염라부에 잠간 들녃더니 염라부 스무가 뵈여 년 이리로 분담하디는디 참혹한 형벌을 당하는 자도 무수하고 슈치되는 욱을 당하는 자도 무수하야 광경이 슈참하기로 경관에게 그 소이연을 무른즉 눈쌀을 썩기며 더답하디 뵈여 년 전에는 스무가 이다지 번국하디 안터니 근력에는 더 망국민족들을 처치하기에 대단히 골몰하야 안비를 막기하디 또 이전에는 사물의 상벌을 처결하야 동서양 각국에 룬회 환성케 하더니 지금은 망국민족 중에 죄업는 자를 환성케 하고져 하나 다른 도흔 나라에 보내려 하면 그 곳 산천신령이 다 슬회여 하고 제 나라로 보내려 한즉 그곳은 타국 식민이 이의 구역마다 7득이 찾스니 다시 변통 무로요 쏘는 환성케 홀만한 조격도 몇 개 못되니 이럼으로 염라부가 장춃 터지게 된지라(1909. 7. 17)

(4) 인금 인도 파란 월남 여러 나라의 몇 억만 인종이 오는 디로 다시 가든 못하니 이런 좁은 구역에 모라 두기만 하면 몇 히 못되어서 염라부는 망국민족의 세계가 되겟스즉 그 아니 걱정이뇨 이 일노써 부중에서 날마다 회의를 하나 지금까지 결말이 업스니 혹은 제 나

라를 제가 망하고 갈 곳이 없으니 여기 두어 무엇에 쓰리오 아모리 참혹할지라도 더욱 몇만
 간을 더 지어 그 속에 모라 너코 그 문을 영영 봉쇄하면 모르나 좀 정결하리라 하고 혹은
 망국 인종이 희마다 늘고 돌마다 더하니 더욱을 짓는 데로 차면 땅도 한덩이 있지 현금 세
 계상에 빈약하고 우미한 나라이 간간히 있스니 그 나라들이 차례로 망하면 우리 부중은 더
 욱 곤난치 아니리오 찰하리 더 인종들을 소나 물이나 개나 도야지로 환싱케 하여 더 빈약한
 나라에 보내여 우리 부중을 안정케 흠이 도타 하고 혹은 모라다가 불에 터오자 하고 혹은
 물에 띄우자 하며 혹은 모다 방아에 바슈자 하고 혹은 밧들에 갈자 하여 공론이 불일하나
 나는 보건더 더 망국 인종이 짐짓 작죄한 자도 있고 모르고 작죄한 자도 있스나 7장 무죄
 하고 불상한 자는 나라를 위하여 몸을 도라보지 아니 하다가 힘이 미치지 못하여 조살하든지
 혹 덕인의게 죽은 사름들이야 있지 망국인으로 디우를 흐리마는 환싱할 곳은 또한 없스니
 그 아니 참혹하며(1909. 7. 18)

(5) 또 그 사름들이 이결복결하며 우리 민족을 살너 달라 우리 민족을 구완하여 달나
 우리 민족을 실노 더 디경에 모라 너흐면 우리는 몬져 가갸다 하여 무수히 상지하니 그 정
 경을 춤아 팔시할 수 업고 그 춤지를 과연 박터할 수 업슴으로 아직 결정치 못하였스나 장
 촛 별 방침을 쓸 터인디 더 춤군이국하든 사름을 고타 두고는 춤아 거조하기 어렵기로 상대
 의 주달하여 모모계씨는 텃당으로 가게 흘려 하니 쇼승이 그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하여 도
 라오던 츠이라 이 곳에 니러러 본즉 동서양이 눈 압헤 버려 있스니 더 속에 또 몇 나라의
 망국 인종이 있슬지 알지 못함으로 우리 불가의 대즈대비한 므음으로 계음 일 편을 새로 지
 어 불너터니 선싱이 무르시니 감히 은취치 못하노이다 우세즈 | 그 외오는 소리를 듣고 이
 의 괴식이 비참하든 츠에 또 이 설명을 드르니 있지 감동치 아니리오 인하여 방성대곡 하다
 가 맞춤니 불성인스 하거늘 법스 | 만 단위로 하되 청컨디 선싱은 정신을 찰혀 쇼승의 말슴
 을 드르소서 그 광경을 목도한 쇼승도 견디는디 남의 나라 흥망성쇠에 그리 슬허할 일이 무
 엇이니잇고 우세즈 | 한 손으로 금잔디를 씻으며 또 한 손으로 반석을 두다리고 민족민족
 하고 부르니(1909. 7. 20)

(6) 법스 | 왈 인도 임금은 망한지 백 년씩이나 다 되엇고 파란 월남은 또한 니웃 나라
 이 아니라 있지 선싱은 이곳치 과도히 슬허하시느노 우세즈 | 일항 아모 말이 업고 이고 하
 느님하느님 소리뿐이라 법스 | 홀 일 업시 잔디 밧헤 물너 안즈 혼숨을 쉬고 남무아미타불
 을 외오더라 우세즈 | 법스를 향하여 왈 여보 대스 내 말슴 드리 보시오 나는 인도 임금의
 민족을 슬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 민족을 슬허하며 파란 월남의 국스를 슬허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 대한 국스를 슬허하노라 우리 신성하신 단군의 조손의 디옥이 목전에 잇도
 다 여보 대스 우리 대한에 절스한 민영환씨를 혹 맛나 보았는지 과연 대스의 말슴과 갓홀진
 디 민충정도 환싱할 기한이 묘연하리로다 법스 | 왈 선싱은 참으시오 쇼승은 염라부에서 대
 한국민 엇더타 하는 말은 못드르스나 설령 대한이 위티한 디경이라도 민지가 기명되야 정치
 법령이 붉어지면 극락 세계 있지 못되오리잇가 우세즈 | 눈물을 씻고 니러 안즈 가스 삼 장
 을 부르니(1909. 7. 21)

(7) 데일 장 불상하디 민충정은 춤국이민 그 아닌가 세세심심 도흔 짜에 부귀영화를 누

리런만 아마도 환상은 무귀하니 텃당에나 데이 장 신성하신 우리 민족 단군후에 그 아닌가
 레약문물 더 의관으로 털문디옥이 웬일인가 우리 동포 어서 지오 김흔 잠을 데삼 장 더귀
 가는 더 기력아 빅두산이 어더미노 원장법스 이 말슴을 전히 주소 우리 국민 텃당 디옥을
 다 브리고 세세싱환 그 소리 장림단림과 평성상성이 처쳐절절하야 심양강상 밤돌에 비파성
 을 듯는 듯 연남시 가을 바람에 격죽성을 맞난 듯 남오의 강흔 창즈라도 거의거의 슬어질
 듯 함미 법스 | 듯다가 석장으로 싸을 두다리면서 방성대곡하여 왈

물낫세라 물낫세라 국민 관계 물낫세라 우리 시님 석가세존피서 천송지국 브리시고 발
 이써 한 개와 석장 하나로 텃당에 주류하섯스나 나라의 관계는 말슴 업섯스니 우리 불도의
 목덕은 텃당도 불관시오 국가도 불관시오 다만 일신이 청정흔 짜에서 양싱하다가 텃당에 오
 르기가 매일 발원이러니 지금 선싱의 말슴을 드른즉 일신도 여소오 텃당도 불관하고 언필칭
 국가라 민족이라 하니 선싱의 도가 참 광계창싱하는 본의라 국민 관계가 이러투스 지중하도
 다 우세즈 | 왈 대스는 스리로 슬허하거니와 나는 진정으로 슬허하노니 방즈 우리 한국 형
 편이 달니 못되엇스니 준준무지 더 창싱들 엇지하면 구원하리오 법스 | 왈 나도 쏘흔 진정
 으로 슬허하는 일이 잇스니 더 망흔 나라 중에 인도는 곳 우리 조국이라 그 나라 폭원이 광
 대하고 물산이 풍부하야 동양에 매일 락토 | 라 하더니(1909. 7. 22)

(8) 그 빅성의 지식이 몽미하야 일개 영국 상디의게 망흔 바 | 되어 그 민족이 염라부
 디옥에 가서 더 고싱을 당하니 그 아니 가련흔가 이번에 염라부에 갓슬 썬에 그 참혹흔 정
 경을 보고 다만 보통 즈비흔 모습으로 불상하다 하엿더니 지금 선싱의 말슴을 드른즉 진품
 관계가 이곳치 소중하고 쏘 텃당의 락이 환싱하는 락만 못하다 하니 소송도 환싱하라면 갈
 곳이 전혀 업고 비록 텃당에는 왕리하나 망문투식하는 과기과 다른 것이 업스니 털학 박스
 의 말에 전문학이 보통 지식만 못하다 하더니 나의 몇십 년 전싱하던 우리의 지식으로는 지
 금 선싱이 말슴이 아니면 국민 관계의 진리를 썬듯지 못하엿스리로다 불상하다 우리 인도
 이역만 민족이여 갈 더 업시 털문디옥이로다 물낫세라 국민 관계 이러하가

우세즈 | 왈 대스는 이왕을 슬허하고 나는 장리를 슬허하니 피츠가 다 당장 슬음은 아
 닌즉 이왕 슬음은 회복하기를 싱카하고 장리 슬음은 면하기를 싱카함이 가하니 우리 현현흔
 팔척남오가 엇지 으너즈의 티도로 울고 세월을 보내리오 광국 형편을 토론하야 선후지침을
 연구함이 엇더하뇨 법스가 가사사자락으로 눈물을 씻고 니러 안즈 혼숨 쉬며 관세음보살 남
 무아미타불(1909. 7. 23)

(9) 우세즈 | 왈 우리 나라는 황희와 일본히 스이에 들출흔 삼천 리 반도국으로 몇빅
 년 지나에 관계가 잇슴을 인하여 텃당대세에 어듭고 쏘 국민의 지식이 몽미하야 고식지계로
 만 구차히 지내다가 현금 더 디경이 되엿거니와 인도갓흔 대국은 면적이 천여만 방리오 인
 구가 이억여만이니 가령 인도인 수십 명이 영인 일 명을 대덕홀지라도 족히 더당홀 거시어
 놀 엇지하야 버들스입 만흔 적은 영국에 더러듯 참혹흔 디경을 당하노뇨

법스 | 왈 우리 나라 이억여만 민족이 더 이천여만 인종에게 이 학대를 당하는 것은 다
 름 아니라 민심이 희산하야 단테가 못되엇스니 비록 다수흔 국민이라도 소수의 단결된 더덕
 을 더당치 못함이로다 우리 인도의 망흔 연원을 궁구하면 우리 불도의 죄라 하는 지목은 면

치 못할지라 전국 남녀 중에 총명하고 영민하다는 자는 다 고상하다 조침하야 국스이니 민족이니 하는 거슨 언론도 업고 일신만 닦으면 극락 세계로 도라간다 하고 혹 두문불출하며 혹 명산에 드러가면 민족 대세는 상관이 업시 일편향을 봉헌함으로 세월을 보내니 나라 일은 누가 하며(1909. 7. 24)

(10) 또 그 다음에 조금 지식이 있다 하는 자는 허황한 비괴만 밋고 운수만 기다려 외국에 장창대포는 쓸 더 업고 때만 도라오면 더희가 즈멸한다 하야 두 손 쏙 밋고 안갯스니 나라 일은 누가 하며 그놈아 줄줄무식한 자들이야 비록 몇 억만이라도 쓸 더 업거니와 영국인이 드러올 때를 당하야 문정도 하고 답판도 하여 약도를 흐든지 항거를 흐였으면 엇지 이디경이 되었스리오마는 더희는 외국인을 한 번 보미 턴신을 맞난 듯 아귀를 본 듯 일시에 쥐구녕 개구녕을 차차 훗허섯으며 그 중에도 데일 가쇼 탄홀 일은 한 농부가 밋출 갈다가 석함을 엇어 열고 본즉 그 속에 참서가 잇스되 모년 모월 모일에 턴신이 강림하야 외국 사름을 다 죽인다 한지라 그 농부가 그 참서를 전국에 전포하미 전국 사름들이 영국의 압제를 괴로와 하야 괴반을 벗슬 도리를 서로 연구하고 분발홀 즈음에 이 글을 보고 다 희불즈승하야 서로 말하되 더 영국이 아모리 강성하어도 필경은 망홀 날이 잇도다 우리 나라 사름은 아모도록 몸을 조심하야 독스궤고 옷밋치 궤흔 영국인과 겨르지 말고 싸홀 달나든지 집을 달나든지 걱정말고 다 주고 모년 모월 모일만 기다리면 그 때는 우리 하늘님이 더희들을 다 죽이실지라(1909. 7. 25)

(11) 아모리 더희들이 모든 거슬 다 덤령하야도 필경은 우리 인도사름이 일을 하여 주는 것이라 하야 아모 계획 업시 토디 가옥 외에도 각항 물건을 청구하는 데로 무슈 명영하며 다만 기다리노니 모년 모월 모일이라니 그 희를 당하미 전국 사름들이 농상공업을 다 폐지하야 영인에게 맞기고 그 날이 니르미 큰 경절이나 맞난듯이 곳곳이 노름노리하는 정황이 대단하며 하늘만 쳐다 보더니 그 날이 다 지나고 그 밤이 도라오미 청턴명월에 철업는 돛은 한해 두해 울도록 턴신이 누리기는 고사하고 디귀도 오지 아니하니 전국 사름이 그제야 허황함을 깨다르나 후회막급이라 엇지홀 수 업섯고 또 영인이 방곡을 엄히하야 일두곡도 매미가 업스니 불상한 인도 사름들은 농스 한 포기 못짓고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넘으리오 아모리 인종은 만으나 더 병덩량족한 강덕을 엇지 항거하리오 가워 불망이 즈망이라 그 참서는 엇더한 못슬놈이 든드러서 인도 전국 민족을 속이고 영인은 움 안에서 썩을 밋게 하였는지 그 아니 분하고도 통곡홀 일이뇨 또 이상한 말 한 마디가 잇스니 대한 말노 번역하면 설마라 하는 말인더 인도 전국 사름들이 설마설마하는 말이 압뉘 끈치지 아니하야 큰 바람이 부러도 설마 큰 비가 와도 설마 언필칭 설마하더니(1909. 7. 28)

(12) 영인이 처음에 변방을 침노하미 설마 엇더하랴 니디에 드러와도 설마 엇더하랴 지정을 관할하야도 설마 가옥을 썩앗겨도 설마 한편으로 죽으면서도 설마설마하야 쥐에게 쫓기는 돛과 궤치 먹통에 거의 올라오도록 알지 못하고 설마스소리 한 마디에 천여만 방리요 혼 강산이 다 썩나 갯스니 엇지 아니 원통하리오 대한민국에도 만일 이곳혼 비괴와 설마스소리가 잇스면 필경은 더 인도의 전철이 멀지 아니 하리로다 우세즈! 왓 그 비괴나 설마는 오히려 혈후하도다 우리 나라 형편은 창졸간에 다 말홀 수 업거니와 비괴로 말홀지라도 도

선비결이니 정감록이니 토정비결이니 하는 여러 가지 말이 하나도 실디는 업고 어리석은 사람 밋출만한 책이 몇 권이오 또 설마보다 심한 말이 잇스니 혹은 아니된다 혹은 할 수 업다 하여 세상에 할 일은 하나도 업시 견디다가 지금 더러한 어려운 디경을 당하여 진개 아니된다 진개할 수 업다 하여 교육을 하여도 아니된다 양병을 하여도 할 수 업다 화륜선 압해는 아니 되겠다 대포 머리에는 할 수 업다 내지 몇백 년이라도 아니 되겠다 몇천 년이라도 할 수 업다 하니 그 빅성이 정도로 엇지 된다는 일과 할 수 잇다는 말이 잇스리오(1909. 7. 29)

(13) 나는 드르니 인도국이 지금은 보통으로 중등 학식이 된다 하니 비괴라 설마라 하는 지각이야 늙어 잇스리오 불원간에 상등 지식이 되면 외면으로라도 문명 정의를 주장하는 더 영국이 엇지 상등 인민의 즈유를 허락지 아니하며 설혹 허락지 아니할지라도 즈유는 내게 잇는 것이니 북미합중국을 보지 못하는가 그와 갓치 필경 독립이 되는 날에는 더 염라부에 갖치여 잇는 사람들까지 속량하여 환싱케 하려니와 우리 대한은 국민의 보통 지식이 잇는 차도 몇 사람이 못되니 어느 때에 중등이니 상등이니 하는 것을 바라며 수백 년 이리로 소위 정치니 법률이니 군대이니 교육이니 하는 문구를 말하진디 춤아 붓그러워 말을 못하겠노라

법스! 왓 인도와 대한 형편을 말노는 다 하기 어려오니 우리 동행하여 옥경에 가서 그 형편을 자세히 목도하는 거시 엇더뇨 우세즈! 왓 나는 속인이라 옥경에 엇지 임의로 가며 간들 엇지 그 형편을 목도할 방법이 잇스리오 법스! 왓 선심이 비록 속인이나 잠시 나의 뒤를 쓰라 가면 옥경에서 굴 더가 업슬 터이오 또 옥경에 원찰 터가 잇스니 그 곳에 올라 보면 다만 인도와 한국만 볼뿐 아니라 텃하민국 형편이 모다 눈 압해 잇스니 선심은 동행하기를 사양치 마르쇼서 우세즈! 왓 내 이의 형역을 앗기지 아니하고 이 곳까지 왔다가 하늘이 지시하샤 고명한 대스를 맞앗스니 동행함은 불감청이언명 고소원이로이다(1909. 7. 30)

(14) 법스! 바람에서 실과와 차를 내여 늦코 돌 우해 촌관을 걸고 옥갖은 새암물을 써다가 붓고 술사방울노 불을 때여 차를 다리어 괴석 우해 그러안즈 각각 혼 표즈를 짜라 마시고 실과를 먹으니 정신이 쇠락하여 표현히 인간 벗기 나온 듯 하더라 다과를 맛친 후에 신음물에 손을 씻고 각각 형장을 단속하여 압서거니 뒤서거니 빅운가으로 서서히 나아갈시력으로 구경한 명산대찰이며 문답한 리설학설은 이로 다 괴록할 수 업더라 혼 곳에 이르니 가든 길이 끈치고 전후좌우가 다 절벽이라 명스는 비단갓치 둘러 있고 고석은 빅옥갓치 버러 잇는디 놀증승 귀증승은 영향도 업고 다만 괴화이초가 스이스이 만발한디 두 사람이 들우에 안즈 두어 시간을 쉬고 다시 바위틈으로 도라가니 동학은 점점 좁아지며 다시는 접촉할 곳이 업고 다만 천장만장 되는 석벽 우에 쇠스슬을 느리고 교즈 하나를 돌았는디 자세히 치어다 보니 그 모체가 영국 런던에 지하철도를 통하는 길과 갓치 썩개를 덮고 황금대즈로 씻스되 옥경남문이라 하였는지라 우세즈! 왓 옥경문이 더러갓 크게 닳치엿스니 엇지 열며 또 천장만장을 엇지 오르리오 법스! 왓 선심은 넘려 마르쇼서 이 문이 본력 즈시로부터 유시까지 열여 두고 그 다음에는 닳치느니 우리가 더더 와서 시간을 어긌엇스나 쇼승은 익히 왕리흔고로 무상시라도 능히 출입하는 도리가 잇스니 다만 선심은 쇼승의 뒤만 짜르쇼서

(1909. 7. 31)

(15) 두 사람이 그 털스 교즈에 안즈서 털스를 두어 번 흔드니 홀연 들문이 절노 열리며 기계 돌리는 소리가 나더니 털스가 점점 썰너지며 교즈는 짜라 올라 가더라 문에 니르러는 문지힌 자가 법스를 영접하여 경례하고 우세즈의 명첩을 받아 이윽히 보다가 말하되 이 사람이 성명은 심소하니 잠간 잊서 텃명에 품흔 후 명령을 기다림이 가흔가 호노라 호거늘 법스! 바람을 열고 지필을 내여 보증서 일 장을 써서 주니 호엿스되 우세즈 주지 디구성 동반구 한국 직업 독서 우인이 옥경에 유람하기 위하야 남문에 임홀 시에 츠 증서를 청흠 연 월 일 보증인 원장법스 쓰기를 맞초디 슈문장을 주며 두어 말노 설명하니 슈문장이 받아 슈데에 너코 흥기를 돌너 허입하느니라 량인이 드러가다가 한 언덕에 올라 바라보니 과연 빅옥 세계라 구천 팔퓌 방리썸 되는 들에 고루거각이 준비하야 그 체도는 양옥긋치 칠팔 총혹 십여 층인디 모다 빅옥을 싸아 지엇고 중앙에서 스방으로 통홀 대로와 방방곡곡에 쇼로는 모다 금강석긋흔 돌을 짜라 틱솔 한 점이 업고 은빛긋흔 큰 하슈는 중심을 띄여 흐르는데 무지긋긋흔 털교는 곳곳에 써쳐 왕리하는 사람이 락역부절하더라

우세즈! 평상에 처음 보는 장관이라 법스를 불너 널으디 썸에도 심각지 못하던 옥경을 눈으로 보니 가위 촌계관청이라 청컨디 대스는 조세히 그르치쇼서(1909. 8. 1)

(16) 법스! 왈 선싱은 드르쇼서 디구성 가온디 조고마흔 파리쓰 피득보 론돈 워성돈이라 하는 쇼위 대대회도 몇 히 동안에 다 구경하기 어렵거든 호물며 옥경을 낫낫치 말하리오 그러나 그 거처와 음식이나 대강 말하리이다 성 중에 허다흔 가옥은 동양 온돌과 서양 란로긋흔 것은 업고 태양성의 도스수를 맞초아 스시 한온이 평균하며 쥬야도 업스니 등촉이 쓸디 업고 각식 물화는 각 성신에서 조공밧아 이용하미 술과 츠와 과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진슈성찬과 일용잡물이 다 본 곳 소산이 아니라 디구 각 경성에 외방 물건이 모혀들 듯 각 성신에서 진상하느이다 우세즈! 왈 각 성신에서 조공한다 하니 우리 디구성에서도 필연 조공하는 물건이 잇스리로다 법스! 왈 디구성에서 소산하는 용상하는 물건이야 엇지 옥경 소용에 합당하리오 츠츠 이곳 경황을 보시면 조연 알니이다 우세즈! 왈 우리 이피 이에 니르러스니 청컨디 법스는 슈고를 앓기지 말고 끌고로 인도하여 구경케하여 주쇼서 법스! 왈 이런 광디흔 세계를 낫낫치 구경하기 심히 어려우니 워선 텃당브터 가스이다 호고 의관을 정제하 후에 손을 서로 닛쓰올고 대로로 좃츠 가다가 하슈를 건너 동편으로 수십 리를 횡홀시 길에 든니는 사람들이 무른 남너로쇼호고 낫낫치 의복이 선명하고 용모가 단정하여 혹 스슴도 타고 혹 학도 타고 혹 청려장으로 보형도 하미 기상미 무비춘풍화피니 짐짓 성인 사회이나 신선총중이러라(1909. 8. 3)

(17) 홀연 한 고대 광문을 당하니 머리를 들어 볼 때에 광치가 눈을 쏘는 빅옥 현판에 큰 글자로 보선문이라 썼더라 보선문 안에 들어서 보니 덩던은 십여 층인디 장광이 각 수빅 미돌이오 동서 횡각은 광이 십여 미돌이오 장이 수빅미돌을 써쳐스니 각식 진쥬 보옥으로 꾸며서 휘황찬란한 것이 사람이 정신이 현황하더라 우세즈! 문 왈 더 더각은 무슴 집이노 법스! 왈 덩던은 보선당이오 동서 횡각은 보선지니 다연향하는 집이라 명절이나 혹 경절을 당하면 상대피서 스찬하샤 대성인 대츰신과 효즈 절복을 덩당에 모호고 그놈어 철인 군즈는

동서 행각에 모호고 이상한 풍악과 여러 가지 식물도 더접하니 이는 다 인간에 업는 바
 니라 우세즈! 왈 즉금은 그 여러 스롭들이 다 어디 잇는뇨 법스! 왈 평상시는 각기 쳐소
 가 잇는니 더 북문 밧그로 나가면 즈연 알니이다 하고 우세즈를 인도하야 견각과 후원을 다
 구경한 후에 북문 밧그로 나가니 그 곳이 극히 광활하야 슈석이 청결하고 립천이 유수한디
 초가도 있고 와가도 잇스니 그 체도가 극히 정쇄하야 혹 괴이한 쏫나무로 취병을 틀어 문도
 내고 혹 더를 심어 음도 습고 혹 바위를 쏫어 길도 내고 혹 석간슈를 더여 련못도 프고 각
 식 화초와 괴석이 일망무제한디 틈틈이 스통오달한 길이 거미줄 얼키듯 하엿더라 이리 더리
 두루 구경할 제 혹 죽림 속에서 거문고 소리도 나며 혹 덩즈 우에서 이삼 로인이 바둑도 두
 며(1909. 8. 5)

(18) 혹 쏫가지를 썩거 들고 쏫밭해서 왕리하는 부인도 있고 혹 처식 옷을 입고 피리도
 불며 풍도 차는 옹희들도 잇스며 엿던 사람은 관을 버셔 석벽에 걸고 돌을 의지하야 글을
 보논디 학은 춤을 추고 솔방울은 절노 떠러지니 운치가 이긋치 청한하더라 법스가 우세즈를
 다시 인도하야 조고마흔 석교를 건너 혼 집을 차져 가니 그 집이 7장 정쇄한디 문 압해서
 스승이 놀며 소나무 가지에 거문고를 걸고 괴석 우에 차관을 노왓스디 첨하에 주렴을 드리
 워 노코 적적히 사람은 업더라 법스! 중문 압해 나아가 부르니 혼 동즈! 나오는지라 법스
 ! 왈 너의 시님이 계시냐 동즈! 왈 우리 시님은 어제 요지연에 가섯다가 오늘 아침에 도
 라 오셔서 지금 취침하섯는이다 법스! 왈 나는 원장법스!라 하는 사람인디 너의 시님과
 동문 슈업흔 계분이 잇스니 귀침하시기를 기다려 나의 음을 고히라 동즈! 드러가더니 이윽
 고 혼 로승이 나오거늘 법스! 합장비례하니 로승이 답레하고 곳 인도하야 안으로 드러가며
 반갑게 슈작하되 그 동안 어디로 유람하시다가 지금이야 오시뇨

법스! 좌당후 후에 날으디 쇼승은 근리에 디구성에 유람홀시 인도국으로브터 총령을
 넘어 염라부에 잠간 들녓고 지금 이 곳에 왔기로 대스를 심방하노이다 로승 왈 차차 오시니
 감사하오이다 동행하신 손님은 뉘시니잇가 법스! 왈 손님은 디구성 동반구 한국에 사는 우
 세즈!라 하는 사람인디 중국이민하는 모음이 근절하야 민지를 발달하기로 즈임하더니 스불
 여의하미 세계상으로 도라돈니며 유람하다가 슈미산에서 쇼승을 만나 그 뜻을 말하논디 쇼
 승으로 더브러 지귀가 상합하기로 이 곳까지 동행하엿는이다 로승이 다시 문 밧게 나아가
 우세즈에게 합장비례하니 우세즈! 답레하고 무르디(1909. 8. 8)

(19) 대스는 누구시완디 나긋흔 속귀을 이긋치 판대를 하시는뇨 로승 왈 선성의 성화를
 일즉 듯지 못하엿슴으로 즉시 영접지 못하엿스니 선성은 용서하소서 쇼승은 희월존즈라 칭
 하논디 더 법스의 늑흔 일흠을 듯스온즉 쇼승이 무슴 복력 잇셔 오늘날 선성이 왕림하시니
 폐호에 성식이 적지 아니하여이다 우세즈! 존즈를 짜라 당상으로 올라갈식 스면을 숭혀보
 니 수뵻 권 경문은 문갑 우에 싸혀 잇고 벽랍가스는 화사대에 걸여 잇고 고짚은 연상 우에
 녘쥬로 늘너 노앗논디 각식 문방제구는 7장 정결하야 그림 속과 방불하더라(1909. 8. 10)

<以下 脫落>

5. 諷刺小說 病人懇親會錄, 轟笑生, 대한민보 1909. 8. 21 ~ 1909. 9. 14

(一) 인생의 슈명이 백 년에 지나지 못하나 그러나 사는 동안에 비록 하로라도 그 생명을 편안히 보존코져 하나니 생명을 편안히 보존코려면 결단코 혈연히 호올로 서서는 되지 못홀지라 그럼으로 정치가에는 정치회가 있고 법률가에는 법률회가 잇스며 상업가에 상업회며 공업가에 공업회며 농업가에 농업회가 차대로 잇슬 뿐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회까지 잇서 친목회를 한다 간친회를 한다 환영회를 한다 립사회니 특별회니 각색 명목으로 회를 조직코야 밤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혀 잇고 업는 것도 서로 분배코고 알고 물오는 것도 서로 밧고야 호올로 서 잇서 혈연히 외로움을 면코니 장코도다 사회의 업지 못홀 것이어

귀한 자 천한 자 늙으니 절무니 홀 것 업시 류를 짜라 각기 상당한 회가 의례히 잇거날 류에 석기도 못코고 회에 참여도 못코야 일신이 령당코고 생애가 참담한 자들은 오작 불상코고 칙은한 각색 병신들이라 병신으로 말코면 배내 병신이던지 초년 병신이던지 중년 병신이던지 언의 뉘가 병신되기를 즐겨 되얏스리오 조상의 류전이나 본인의 죄일로 하늘이 명코심이니 박절코 생각지 못코는 말로 코면 그 벌을 감슈코고 다만 죽기를 기대릴 썬이라 홀지나 그리고 보면 회과자신흔 길이 막히고 동병상련의 의가 업슬지라 이에 성내 성외에 잇는 각색 병신들이 간친회를 발코코고 취지서를 각처로 발송코얏더라(1909. 8. 19)

(二) 병인간친회 취지서

슬푸다 우리 룩테가 완전치 못코 병신 동포 데써여 만민이 서로 합코면 힘이 잇고 헤여지면 약코며 힘이 잇스면 편안함을 었고 약코면 위태함이 생김은 덩코 리치라 벌은 미물이로되 무리를 일우어 저보다 사나은 날버레의 침로함을 방어코고 이리니 짐생이로되 께를 지어 더보다 날낸 사심을 잡어 먹나니 만물 중 가장 신령한 사람이 되야서 었지 미물과 짐생만 못코리오 그런코로 현금 이십 세기에 동서양 사람들이 각각 사회 단테를 조직코고 여러 힘을 합코야 편안코 근기를 세우나니 이는 병신 안인 동포의 일이어니라 우리 룩테가 완전치 못코 병신 동포는 일즉이 문견도 넓지 못코고 학문도 었혀 단테의 조직을 생의치 못코엿도다 불지어다 더 서양 문명코 나라에는 우리 갓흔 병인을 위코야 각색 병인원을 설립코야 지식을 넓히어 쥬노라고 학교도 설립코고 생계를 붓잡아 쥬노라고 실업도 장려코거날 우리 나라에는 보통 병신들은 고사코고 맹아원(盲啞院) 한 곳도 이즉 업스니 이갓치 풍조(風潮)가 위험코고 경쟁(競爭)이 극렬코 시대에 장차 두 손을 목코 죽기를 기대림이 가홀손가 남을 의뢰말코 스사로 쥬장함은 인생의 힘쓸 바라 우리도 한 단테를 조직코야 환난질고에 서로 불상히 녀이고 서로 붓드러 쥬며 썬코 서로 토론코야 지식을 교환코면 었지 몸은 완전해도 마암은 헤여진 무리를 붙어코리오 이에 우러러 공포코오니 쥬량코신 후 모월 모일 모시에 훈련원 압으로 계기왕림(屆期枉臨)코심을 경요

다만 행신 난잡히 코야 매창으로 콧병신된 자는 립장을 허락지 안이코오 발코인 아모등(1909. 8. 20?)

(三) 그 통첩이 나는 듯이 사면팔방을 돌아단니더니 회일이 당도코닛가 멀고 갓갑고 적은 병신 큰 병신들이 구름되듯 물밀듯 훈련원벌 더구니가 썬썬코게 되여 들러 차례로 느러안진 후에 발코인 중 한 사람이 썬 나셔며 시계를 내어 보더니 시간이 다 되엿스니 개최함

시다 사무를 처리하자면 불가불 임시 회장이 잇셔야 되겠스니 임시 회장 한 분을 어서 추천 하시오 그 말이 썩 떨어지자 엇던 사람이 벌떡 니러서더니 지금 회장 한 분을 추천할 터인데 잠깐 설명할 말이 잇소 우리회가 아모리 병신이 모여 호는 회라도 방청이 혹 잇슬 터인데 녀오 현저호 병신으로 회장을 추천호면 남의 우습을 빗기 쉬오니 자기는 비록 병신일지 언딩 남보기에는 관계치 안이호 천맹관 아모씨로 천히소

발기인이 소리를 높히여 그러면 가부를 못겠소 청명관 아모씨가 임시 회장이 가호 줄 아시거던 손을 들으시오 하나 둘 셋 넷 부는 무를 것도 업소 전슈 가결이오 회장 승석하시오

좌중이 일시에 손뼉을 짹짹 치더니 회장이 발길을 더듬더듬 승좌를 호야 사선상 압에 가 웃썩 서니 엄연호 풍신이 제법 병신갓지 안이호데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모다 의몽으로 일을 호더라

(회장) 회록을 기초하자면 불가불 임시 서기가 잇셔야 호겠스니 서기 한 분 천하시오

(회원) 서기는 언론 가부에 참여호 겨를이 업스니 병어리 아모씨로 천호오

(회장) 가부 못소 임시 서기를 병어리 아모씨가 피천되얏스니 가타 호시거던 거슈하시오..... 또 부타 호시거던 거슈하시오..... 그러면 아마 가결되얏나 보오 임시 서기 이리 출석하시오(1909. 8. 22?)

(四) 엇던 회원이 니러서며 회장 우리가 회를 이리케 설립호얏스즉 립시로 잠판호는 일이 안이라 영구히 유지호야야 호 터이니 부득불 규칙을 제정호야야 호겠스즉 규칙 제정 위원 두 분만 추천하기로 동의호얏소

또 호 회원이 니러서며 회장 그 동의 재청호얏소

(회장) 지금 규칙 제정 위원 두 분만 추천하기로 동의 재청이 되얏스니 의견 말삼하시오

(회원) 의견 업소 가부.

회장이 가부를 물어 가결이 된 후 추천호 방법을 회중에 물은즉 구두 공천호야 반슈되 거던 지천호자 특청이 되야 의의가 업스니 엇던 사람은 반병어리를 천호고 엇던 사람은 체머리장을 천호는지라 회장이 두 사람의 가부를 무른대 한 회원이 회장을 크게 부른다

회장 사회의 규칙이라는 것은즉 정부의 법률과 일반이라 대단히 신중호 것이오 조리가 분명호고 항목이 종상호야 일호라도 모호호 점이 업셔야 호 것이어날 지금 피천된 두 회원으로 말호면 그 지식과 학문이 부족호다는 것이 안이라 아모리 지식이 석부호고 학문이 고명호더라도 규칙 제정호는 일에 당호야서는 절대덕 못될 줄로 생각호오 엇지호야 그러나 호고보면 물론 엇던 사람이고 곳치기 어려운 것은 습관성이라 자기 마암에도 번연히 잘못되니 지 짐작호면서호 습관에 버셔나기 어려워서 종종 일을 그릇드리나니 반병어리 아모씨로 말호면 말을 얼버무려 듯는 자로 호야곰 동서물 불변케 호던 습관으로(1909. 8. 24)

(五) 규칙도 얼버무려 조리를 모호호 호 것이오 체머리장이 아모씨로 말호면 평생에 남의 말과 일의 시비곡직을 알아볼 여부 업시 반대호기만 도화호야 체머리를 흔들든 습관으로 규칙도 반대 방향으로만 항목을 고집호는 것이니 나는 두 회원이 다 불가호 줄 아호고로 다시

호천호기로 동의호오

엇더헌 회원이 로기등등호야 회장 그 회원의 말이 대단히 무례호오 남을 그러케 경할호는 법이 엇의 잇소 가량 그 회원의 말과 갓홀 디경이면 물 흐르듯 호는 구변으로 룽국을 달 내던 소진(蘇秦)이와 상투를 들보에 매야 머리를 싸쌌도 못호게 호던 손경(孫敬)이는 규칙 제당 위원으로 썩혀 단것겅소구려 또 룽답으로 말호면 입살이 얄판호고 혀가 길쌌호야 남신 남신 짓거리기를 잘 호다거나 퇴후종이 목침만치 나서 고개를 조곰도 못돌니고 털장 때 한 가지로 썩호한 사람이라야 규칙을 썩 잘 짓겅소 그가 반병어리 말고 원병어리라도 체머리 말고 몸덩이까지 뒤흔든대도 규칙 제정호는데 흠점될 것이 무엇이오 썩 무든 개가 겨 무든 개를 남으리다고 그 회원이 얼마나 출중호면 하필 우리 병인간친회 회원이 되엿스릿가 그러 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병신 하나 고은대 업다는 별명을 듯심넌다 어서 피천헌 위원 두 분의 가부를 무리주시오(1909. 8. 25)

(六) (여러회원) 올소 올소

회장이 교수방망이로 사선상을 짹짹치며 이리케 서로 변론홀 것 업소 지금 가부를 무를 것이니 가호게 생각호는 회원은 가편으로 손을 들고 부호게 생각호는 회원은 부편으로 손을 들엇스면 자연 귀결이 될 것이오 안이 거슈로 가부 결당호는 것이 일상 모호합더이다 나는 보지는 못호나 그만 일이야 몰오릿가마는 멀니라던지 구석에 안지신 회원은 거슈호는 것을 접경 보지 못홀 것이니 이 다음부터는 가부간 대답으로 작당을 호십시다 자 장황이 또 설명 홀 일 업시 두 분 위원이 가호 줄 알으시거던 네 호시오

네 네네네네네네네

또 부호 줄 알으시거던 네 호시오

네네네네

회장이 가결됨을 공포호니 

반병어리가 벌터 니러서며 회장을 불너 자기의 재국이 능히 규칙 제당의 임무를 감당치 못홀 줄로 구두 청원을 호고 체머리장어도 그와 갓치 청원을 호니 회장이 두 회원의 청원을 밧는 것이 가호나 봉환호는 것이 가호나 회중에 무론대 엇더헌 회원이 회장 사면 업소 우리 가 공공단체를 조직호야 순전한 의무로 엇의찌지던지 복종호는 터에 위임호는 사무를 이리 케 사면호고 보면 누구는 그 괴로운 일을 맞하 홀 사람이 잇겅소 아마 청원호신 두 분으로 말호면 위임호 사무가 괴로와서 청원호신 일이 안이고 엇던 회원에게 리치에 갓감지 못호 른박을 당호고 존 사면호는 청원인가 보오 그러나(1909. 8. 26)

(七) 그가 잠시 오해호 말이지 무슨 악의로 나아온 말이 안일 썩더러 위원 두 분이 격 당호 줄로 우리 다슈 회원이 일치 가결호 일을 한 사람 반대로 청원을 호니 이는 한 사람의 말은 무겁게 너이고 다슈 회원의 결의는 가뵈엿게 아는 것 갓소 그러닛가 그 청원은 봉환 여부 업시 당초에 밧지도 말자고 동의호오

(회원 회장) 그 동의 재청호소

회장이 의견을 무른 후 가부를 무리 가결이 되엿더라

엇던 회원이 회장을 부르며 니러서더니 오늘 우리회가 발기회닛가 아마 별로 처리홀 사

건이 업슬 뜻호오 목덕을 세우는 것이라던지 강령을 배푸는 것이라던지 임원을 선명호야 사무를 분장케 호는 등사는 이 다음 언의 날 총회가 되던지 그 때에 규칙을 통과호 연후사이 낮가 오날은 간친(懇親)호는 뜻을 발표호기 위호야 한 가지 의견을 진술호입니다 우리 일반회원이 던지만물 중에 다행히 금슈는 면호고 사람이 되엿소마는 룩테가 남과 갖지 못호 병신이 되어서 평생의 가슴에 셔려 잇는 원통호 회포를 누구를 향호야 하소홀 곳이 업더니 하날이 도으심으로 오날 갖호든 고회를 주시사 우리가 이리케 단취호엿스니 각언기지(各言其志)(즉 각각 그 뜻을 말호다는 문데)로 토론을 호야 우리회 발기호된 기념을 삼기로 동의호오

(회원) 그 동의에 대호야 재청을 호는대 잠깐 부연을 호야 두어 마디 호겟소 억울호는 사람의 언론은 매양 과격호야(1909. 8. 27)

(八) 법률 범위 바치게 나아가기가 쉬우니 아모조록 공평정대호야 듯는 자로 호야곰 감정이 니러나지 안이 호도록 토론호기를 바라오

(회중) 울소- 울소-

(회장) 지금 동의 재청되기를 각언기지라는 문데로 토론호자 호얏스니 의견 잇거던 말삼을 호시오

(회중) 업소- 업소- 가부

회장이 가부를 무르니 전슈 가결이 되엿는지라

(회장) 자 그러면 토론호기로 의결이 되엿소 누구던지 먼저 나아와 말삼호시오 그 소리 가 썩 곳치사 맞참 엷더케 그리 등대물 호엿던지 회장 호 번을 크게 불으며

엷터호 회원이 한편 어깨를 방아질 호듯 울오내리고 불기씩을 너른 세상에 저 호올로 잇는 듯이 해해 내들으며 연단 우으로 가 셔더니 회중을 향호야 경배 한 번을 쏙텍호고 나눈 여러분이 보신 내로 김작호시려니와 혹 물으시는 회원이 계신대도 알으시도록 말삼을 호니다 넷 글을 보오닛가 사람이 반댓이 스사로 업슈히 녀인 후에 남이 업슈히 녀인다 호얏스니 나 역시 스사로 단취의 말삼호 필요가 업기에 장처로 말삼호오 나는 바른편 다리가 외인편 다리보다 좀 긴 사람이오

회중이 박슈

우리 절늚발이 려사를 먼저 말삼호을 것이니 드리 주시기를 바라오 넷날 평원군은 죠나라 공자 왕손이언마는 우리 절늚바리를 상객으로 대우호야 루우에서 내려다 보고 웃던 총첩을 참호얏고(1909. 8. 29)

(九) 죠슌(姚崇)이호는 어진 정승으로 우리 절늚바리 숨내를 내어 소인의 참소호를 면호얏스니 그 안이 두 다리 멀정호고 남의 턴대바는 무리보다 몇칭 높지 안이호오 본래 마암들이 고상(高尚)호야 사환에 뜻이 업고 강령(綱領)이 분명한 망건쓰기로 생애를 호며 각도 방백의 준민고택호는 것을 평생에 타매호거날 악소년배의 험구로 우리의 별호를 전라 감사라 호니 그런 가통호고 분호는 일이 다시 엷이 잇겟소 그러나 공부자 갖호신 성인으로도 동자의 죠룡을 밧으섯거던 그짜짓 경박호는 무리의 말을 족히 가를거 무엇 잇소 다만 힘쓸 바는 다리는 비록 절지언정 행세는 절지 말아 근래의 소위 대신이니 협판이니 호시는 양반들 갖치 두 다리가 갖추 잇서 주야를 불계호고 갈대 못갈대 합부루 싸단이며 대신의 자나 협판의 자를 잉

임을 흐라던지 도득을 흐라고 애걸복걸흐야 행세에 절늬바리되듯 흐지 말기를 바라오 구변 업는 말을 더 흐고 보면 여러분 드르시기에 지리흐실 뜻흐야 그만 굿칩니다

또 한편에서 회장 불은 소리가 년이어 나더니 한 사람이 연단 우에 가 서슬있게 올라 서며 이 편으로 고개를 돌녀 이 편을 보고 더 편으로 고개를 돌녀 더 편을 보며 늬흔 음성으로 나는 눈 하나 못보는 사람시오 내가 비록 남과 갖치 두 눈으로 보지는 못흐나 한 눈만 가지고도 크나 적으나 머나 갖가오나 일호 차착업시 남볼 것 다 볼 썬더러 잇다금 두 눈 가진 사람보다(1909. 8. 31)

(十) 오히려 날 편이 잇소 이런 말삼 드르시면 아모려니 한 눈으로 보는 것이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나을 슈가 잇나 더 말은 역설로 본인이 스스로 위로흐는 슈작이어나 흐실뜻흐나 여러분 드르시는데 분명한 징거를 말삼흐오리다 옛날 상동왕(湘東王)이 아마 나와 한 모양으로 한편 눈을 못보던 갑디가 소릉왕저(邵陵王諸)가 칭찬흐야 글을 지었스되 꺾게 바라보는데 온전한 공이 잇다(望直有全功) 흐얏스니 그 한 가지로 말한대도 두 눈으로 굿게 보는 니보다 외눈으로 꺾게 보는 것이 얼마 낫소 또 성현의 말삼에 눈으로 간사흔 빛을 보지 말나(目不視邪色) 흐섯스니 두 눈이고 보면 간사흔 빛을 보는 동시에 외눈보다 갑절을 더 볼 터이니 비록 병신이라 홀 범해도 한 눈만 보아 성인의 훈계를 절반은 직히니 그런 다 행한 일이 또 엇의 잇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개록흔 실효가 잇는 줄은 알지도 못흐고 가장 저의는 두 눈이 잇서 얼마썬 우리 보는 것에서 더 보는 것만 기능으로 알고 우리를 지목흐야 개화된 이후로 다 썬어 업서진 별살죽 쇠쌀휘기나 해먹던 통제사라고 별명을 지으니 여러분 보시다싯히 우리가 열 번 죽기로 무변질을 해먹기로 옛적 각 영장신이나 자래륙군 참장은 무엇이 막혀서 못흐고 통제사 부스럭이를 그리 대단히 복존 언의 대관의 총리 대신 엇어 맛보라고 썰덕썰덕 흐듯 홀 줄 아는 것인갑디다 나는 한 눈만 가지고도 정당히 볼 것만 보닛가 눈이 한가홀 썬가 만디습다만는(1909. 9. 1)

(十一) 시속 자들은 두 눈을 가지고도 당연히 국가 사회에 리로울 것은 하나 못보고 밤 낮 본다는 것이 기생 삼패 골패 투전 화투 등물보기로 엇더케 썬 밧분지 눈이 둘 갑절 넷이 백엇드래도 오히려 부족홀 모양입디다 이 일로 밀어보면 세상만사를 가히 썬다를 일으오 지금 진술흔 바는 내가 눈 하나 못보는 것이 불행 중 다행흐야 두어 마디 흐 말삼이오마는 가량 잇스면 사람이 살고 업스면 사람이 죽는 재물로 잠깐 비유흐오리다 갑(甲)은 탐관질을 흐얏던지 토호질을 흐얏던지 루거만 재산을 거 누구 모양으로 모아두고 대대로 제 물건된 줄 알고 피천대푼 공익에는 쓰지 안이 흐다가 란봉의 자식이 나던가 의외에 재변이 나서 푹 푹 맞치는 일이 의례히 잇스니 이는 즉 보배시러운 두 눈을 가지고 볼 것 못보는 것과 일반이오 을(乙)은 변변치 안이흔 재산을 가지고 밥먹을 것을 죽을 썬어 먹고 두 썬어 먹을 것을 한 썬어 먹어가며 민족에 리로운 일이라던가 나라에 빗날 일이라면 썬차 단이며 보조를 흐야 적은 것 가지고 큰 사업흐는 것은즉 외눈으로도 정당흔 것만 보는 것과 일반이 아니겟소 장시간 흐 말삼이 굴영이 제몸 썬듯 내 자랑만 흐 모양이오마는 평생에 분히 녀이던 일이기 에 여러분의 지리흐심을 감히 돌아보지 못흐였사오니 용서흐시기를 바라오며(1909. 9. 2)

(十二) 다만 한 가지 부탁흐을 바는 다시 통제사라고 우리로 지목흐는 자가 잇거던 엇

의 짜지던지 변명하야 주시는 바이올시다(만장이 박슈)

또 한 사람이 회장을 불으는대 자기 생각에는 매오 쪽쪽이 소리를 혼다는 것이 남 듯기에는 회장이 왜장으로 들을만 하더라

회장 나는 언청이오 지금 두 분 회원의 말삼을 드르니 나보다는 썩 나오시오 우리 갓흔 병신들이 무슨 슈로 벼살을 해보겐소 그러케나 높은 택호를 엇어 보지 너모 도화요 전라 감사나 통대사가 엇더흔 벼살이오 하나는 민정을 관찰하야 애민여자하는 성상의 뜻을 대량하는 벼살이오 하나는 룡군을 통솔하코 외적을 방어하는 벼살이어날 근래 그 벼살흔 사람들이 직분을 다홀 줄 몰오고 시위소찬으로 국록만 도적질흔 짜닭에 사람을 미워 벼살까지 천히 녀임이라 나는 그런 벼살을 혼 번헝기곳 헝면 간뢰도디(肝腦塗地)토록 직무를 다하야 벼살의 광채를 내고 일흠을 후세에 날니기가 소원이라 여러분 나를 보시오 인물이 엇더흔가 열모로 썩어 보아도 일새이라 홀만 헝지마는 다만 코밋 썩여진 것이 흠이라 헝겐스나 그만 공명이야 당연히 홀만 헝거날 세상 사람들이 별명짓기를 썩님썩님 하니 썩님의 칭호가 썩원님이라는 말의 축음(促音)된 말이 안이오 그러면 내가 소과종장에 입적을 헝앗소 썩님이란 칭호가 열토당키나 헝가요(1909. 9. 3)

(十三) 또는 근래는 서양 의사가 내 디에 와 만히 잇서 언청이 곳치기를 두러 누어 썩 먹듯 인슈 잘 합디다 그 무엇이 대단흔 불치의 병신이오 썩님이라 별명듯는 일로 생각헝면 이 길로 썩중원이나 대한의원에 드러가 몇칠만 치료헝스면 이 병신을 면헝고 나오리 령감 대감의 칭호를 타슈가득 헝겐소마는 내 곳이 안이 곳치고 잇기는 운동비니 비밀이금나 하고 남 몰으게 은근이 쳐먹고 인물 갓갓게 시침이 썩 썩는 놈들을 평생 가통하야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나 먹는 것을 남이 다 보도록 썩여진 입살을 곳칠 생각을 안이홀 썩의라 몇 군대 더라도 썩여놋코 심습니다(만장이 갈채)

또 한 사람이 회장을 급히 불으고 한편 활게만 부즈러니 치며 연단으로 올라가더니 남 헝던 전례로 경례 한 번을 회중에 대하야 썩텍 헝고셔 나는 곰배팔이오 곰배라 헝는 별호가 언의 썩부터 잇던 것인지 알 슈는 업스나 보통 나와 갓치 한팔을 못쓰는 사람을 지목헝는 별호올시다 사람이 세상에 생겨나매 룡테 중 손 들을 마련흠은 생활상에 긴요흠을 위한 것이라 그런고로 옛적 한고조(漢高祖)가 소하(蕭何)의 업슴을 보고 좌우슈를 일은 듯(如失左右手)이 녀엿다 하니 이 말로 밀어보면 일신은 손을 나라의 정승과 일반으로 알앗거날 나는 무삼 죄일로 인연흠인지 그갓치 중요흔 손 하나를 팔이 곰배가 되야 쓰지를 못헝오니 그 안이 원통헝오 더구나 지금 이십 세기 경쟁시대(二十世紀競爭時代)를 당하야 국권을 확장헝던지 민족을 보호헝던지(1909. 9. 4)

(十四) 모다 완력(腕力)으로 헝는데 남보다 팔이 두셔너 개 더 잇셔야 이 빈약흔 나라를 붓들고 이 멸망헝는 인민을 구홀 터인대 본래 잇는 두 팔도 남과 갓치 다 쓰지 못헝니 엇지 원통치 안이 헝오릿가 나는 세상사람들이 곰배라지 말고 개나 듯이라고 헝대도 조곰도 로여 올 것 업소마는 자나깨나 생각하코 또 생각홀사록 썩헝고 불상헝기는 두 팔 두 발이 멸쟁하야 썩갓 사용을 모다 헝면서 썩 괴디를 남이 침탈헝거나 썩 가옥을 남이 웅거헝거나 썩 아비를 누가 능욕헝거나 썩 자식을 누가 학대헝거나 썩계 물닌 놈 모양으로 열 손가락 헝 번

삿땃 못호고 처분만 바랍니다 호는 그 위인들이오니 아모조록 우리 회원 여러분은 사람마다 붓들고 권고호야 하날이 마련해 주신 두 팔을 속절업시 썩여 내버리지 말고 물러 덤뵈는 범과 죽이러 오는 사자를 힘써 막아 생병신 노릇들 말게 호시기를 엇의까지던지 바라고 또 바랍니다 구변이 너넉지 못호야 이쁨호고 나아갑니다(일테로 박장 또 엇던 회원이 회장은 소리를 질너 불오고 한편 구석에 슬로 파고 박은 듯이 안져서)

회장 본인은 안진방이오 연단을 거러 올라가는 재조가 업스니 이 자리에 그대로 안져서 말삼을 호겟스니 특별히 허락호야 주실는지오(1909. 9. 5)

(十五) 회장이 손을 들어 가라치며 관계치 안이호오 여서 말삼호시오

안진방이가 가래침을 세너 번 곤도올니더니 임의 언권을 주시니 되지 안인 말삼이나 여러분 드르시게 호오리다 나는 아는 것은 별로 업사오나 발바당에 흑 안이 못치게 팔자를 타고나서 무사 분주히 거 누구 모양으로 돌아단이지 안이호고 존중시럽게 한 곳에 잇는 터이오 그러케 안졌는 나도 경륜 배포가 다 잇는 줄은 몰오고 좌슈좌슈 별명을 짓더니 이 근래에는 일절이 심어 일절로 향장향장 함되다마는 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도 탄호지 안이호오 옛날 급압(汲黯)이는 회양을 두러누어도 다사렷다는데 안져 잇는 내야 더 말호를 것 업술 것이오 관녕(管寧)이는 엇지 오래 안졌던지 무릅 다앗던 탐이 뿌러졌다고 사기에 칭찬을 호앗스니 나처럼 일상 안졌는 것시 무슨 흥될 것이 잇소 보시오 안져 잇지 안이호고 거름 잘 것던 사람들 무엇이 도훈가 옛날 과보(夸父)는 엇지 거름을 잘 거러던지 능히 넘어가는 해를 쏘차갓고 디종(戴宗)이는 신행태보라는 아람다운 별호까지 엇엇스나 그 두 사람이 다 엇더케 되엿소 하나는 재 거름을 장가만 너여 힘을 헤아리지 안이호고 다라나다가 목이 말나 죽엿고 하나는 그 거름을 자뢰호야 양산박이라 호는 도적에 당이 되엿다가 장숙야 손에 멸망을 당호지 안이 호앗소 그만 보아도 내 안진방이 도훈 것을 알으시오리다(1909. 9. 7)

(十六) 또 현금 목도호는 바로 말삼호오면 엇던 차는 함경도서 반일 동안에 서울을 왔다 하로 동안에 려주 이천을 사오 차 래왕을 히다 호는 리치에 갓잡지 안인 말을 쏴여디여 분슈뵈 부귀를 혼턴동디호게 호다가 필경은 언의 디경이 되엿소 죽은 뒤에 몇천 년이라도 용납지 못호를 죄얼을 지어 사람마다 침 안이 배앗호 리 업시 되엿스니 참으로 거름을 잘 것지도 못호고 잘 것는다 거짓 말솜 쏴여대고도 그런 양화를 밋지 안이호앗소 또 요사이 향곡 소문을 드르넉가 소위 의병이라는 도당이 동리마다 돌아단이는데 일본군사가 그 종격을 탐지호라고 들어가면 거름 잘 것는 장명배는 제 거름만 밋고 달아나니 인정 습속을 자세 알지 못호는 일본 군사가 다라나는 것을 보고 더것이 무슨 혐의가 잇기로 겁뵈이어나 호야 총으로 노코 환도로도 질이지 안이호겟케 차라리 모양으로 다라나지를 못호엿스면 그러케 참혹호 일을 안이당호를 쏴더러 얼마썸 통정을 호야 죄업는 동포의 발명도 호야 줄 것이니 여복 쫓겟소 요사이 주셔 드른 문자로 진보(進步)진보호며 두엿이 썸만호 식견을 가지고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나 외에 또 누가 잇스리 호고 함부루 싸단이다가는 가랑이만 썩어지리다 다른 회원의 도훈 말삼을 듯기 위호야 고만 굶칩니다

또 한편 구석에서 회장을 부르고 연단으로 올라가는데 안져 가는지 서서 가는지 딱바라진 몸덩이에 목은 자라 모양으로 움치라지고 머리는 쓸방망이 방뵈호게 생긴 사람이 사선상

에다 턱걸이를 하며 본인은 남들이 난장이라고 칭호하는 사람이고 고초도 작아야 맵다고 (1909. 9. 8)

(十七) 내 키가 비록 쥐고 고초장 썩을 대 업고 줄나뻛은 방어토막만뻛게 못호으나 키 크고 소견 업는 놈들은 불지 안이호오 여러분게서는 변변치 안인 말이나 아모조록 자세 드러주시압소서 자고이래로 키 적은 사람의 력사부터 진술호오리다

제나라 정승 안영(晏嬰)이는 키가 엇지 적은지 초나라에 사신을 갔더니 개구멍을 호야 노코 마작스되 능히 제국으로 호야곰 패업을 세우게 호얏고 순우곤(淳于昆)이는 제국 사신으로 초국에를 갔더니 초왕이 키 적음을 업슈히 녀여 제국에는 사람이 업도다 그대의 장치가 무엇이뇨 혼대 순우곤이 대답호되 신은 아모 장치가 업고 다만 허리에 칠척장점이 잇서 무상호 왕을 참호라 호나이다 하야 초왕으로 호야곰 사죄케 호고 제왕의 명령을 욱되지 안케 호얏으며 곽해(郭解)는 키가 적어도 위인이 정한(爲人精悍)호고 안연년(顔延年)은 키가 적어도 위인이 민첩(爲人敏捷)호고 루호(婁護) 리신(李紳) 등은 모다 키가 적어도 위인이 정긴호고 용맹호얏스니 키 큰 사람 부러호를 것이 무엇 잇소 남의 나라 일은 그만두고 우리 나라로 말삼호대도 오리 리정승이 키 적기로 유명호 터이로대 그 량반 사업이 첫 손가락을 곱올 만호니 이런 일로 밀어보면(1909. 9. 10)

(十八) 키가 적을사록 자룩호 사람이 될 줄로 아오 근일에 아모아모 호시는 분네들 감아니 보면 키는 우리에게 왕존장 벌이나 되게 커서 그 코를 쳐다보라하면 뒤통슈가 등에 가 붓도록 고개를 젓치겟슈디다마는 그네들이 나보다 나은 사업호 것이 무엇이오 나는 아모리 키 적은 적어도 마암은 커서 평생에 아모 대를 가던지 허리를 곱혀 비루호 태도를 혼적이 업거니와 그네들은 키는 칠척장신이라도 사상은 아조 고상치 못호야 아모 문하에를 가던지 체 몸 용납호기만 요구호야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곱혀 구구호 상태를 지으니 자기로 호야곰 자기의 신세를 생각호기로 엇지 붓그럽지 안이호오릿가 또 지금 시대는 이왕 어슈록 호던 제와 달나 경제를 도더호 잘호기 전에는 생활호기 어려호대 우리는 키 큰 사람보다 의식쥬(衣食住) 세 가지 중 첫재가는 의복차가 반절뻛게 안이드니 텃연덕(天然的)으로 그 경제가 엇더호오 이갓치 되지못호를 말을 장시간 번거호게 호음은 여러분이 몸은 큰 체 말으시고 마암만 크게 가지시기를 간절간절히 바라압니다(만장이 갈채)(1909. 9. 11)

(十九) 그 사람이 연단에서 내려오는 앙을 보더니 예서 데서 닷호아 회장을 불오고 언권을 청호는대 한 사람이 회장을 그중 나중 불으며 잡담 제호고 연단으로 올라가니 먼저 회장 불오던 사람들이 회장을 다시 불으며 회장 언권이 늑개 잇소 더 회원은 그중 나중 회장을 불오고 연단에는 먼저 올라가니 그런 회규가 잇슬 리가 잇소 더 회원은 퇴단(退壇)을 명호시키고 순서대로 언권을 지덕호야 쥬시오

그 사람이 그 말은 드른 데도 안이호고 자기말만 련해 호다

나는 눈도 남과 갓고 입도 남과 일반이로대 다만 남의 말을 알아듯지호를 못호는 귀먹어 리오

그 모양으로 남의 말은 못들은 데호고 자기의 말만 호는 것을 보고 닷호아 공박을 호던 회원들이 귀먹어리라 호는 말을 다 드른 뒤에 회장이 고슈방망이로 사선상을 썩썩치며 여러

분이 특별히 용서할 바는 지금 말씀하는 회원이 이렇듯이 있어서 여러분의 박론을 듣지 못하는 모양이오니 순서에 비록 도착이 되오나 특이 언권을 허락하여 시비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머리가 눈치는 남보다 빠른 법이라 회장이 연단 앞에 서서 입이 병싯병싯하는 양을 보고 무슨 말하는 줄로 짐작하여 우드커니 기대리고 말 업시 섰다가 회장이 교의에 돌오 안진 후에야 다시 말을 하는대(1909. 9. 12)

(二十) 자기 귀에 안이 들니갓가 굶금하여 그리하는지 소리를 목통이 써어지도록 질으더라

오늘 우리 일테 병신들이 간친회를 한다고 공합하신 것을 귀는 먹엇셔도 눈은 밝으갓가 능히 알아보고 회석예를 참예하였사오나 여러분이 이 때까지 무슨 공론을 하는지 한 마디 못알아 드릿사오니 소경 단청 구경하나 일반이오

엇던 회원이 소리를 버럭 질으며 규칙이오 우리가 오늘 모이기는 간친회자는 일인대 소경 단청이라는 불경한 말즉 암 못보는 병신을 조롱하는 말을 이 회석에서 하니 이는 우리회 본지와 위반이오 더구나 지금 승석(降席)하여 계신 립시 회장이 청맹이신대 그런 무례한 말이 엇의 잇소 그 회원 언권을 주지 말으시오

회장이 손짓을 해해하며 그 회원이 못드는 탓으로 아모리 규칙으로 말씀한대도 물을 것이니 역시 용서하고 그 말을 더 드릅시다

회중이 다시 정숙한대 귀머리가 여전히 연단에 놓혀 서서 굶칠 줄 몰고 말을 한다

세상 사람들이 귀머는 사람을 웃고 조롱하나 봄되다마는 자괴들 귀 밝아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오 비밀운동이나 협잡사건이나 쥬주야야로 슈군거리는 말을 데일 잘 드러 제 집 패하고 제 나라까지 결단내는 그 귀 찰아리 절벽갓치 어두엇으면 저 하나만 병신으로 지낼 짜름이지 집에나 나라에는 아모 해가 맞치지 안이홀 것이오 그런고로 옛날 할관자(葛冠子)는 귀 어둔 것을 다행히 녀여 항상 말하기를 나는 허유(許由)의 귀 쫓는 슈고를 면하였노라 하였고 두미(杜微)는 이렇징으로 폐문불출하고(1909. 9. 14)

(二十一) 잇더니 재갈 선생이 선주에게 특별히 천거하여 간의대부를 식엿고 서적(徐積)은 귀가 어둔던지 짜홀 그어 글자를 써서 비로소 뜻을 통하여도 동파 선생이 청도하기를 옛적 왕숙(王肅)과 일반이라 하였스니 이 몇 사람만 보아도 귀 어둔 것이 엇줍지 안케 밝은 자보다 낫지 안이호오 길다케 말씀할 것 업시 자고이래로 현인군자 중 귀는 밝으면서도 거짓 귀머는 체한 사람이 얼마나 되오 만일 귀 어둔 것이 괴악할 것 갓고 보면 그네들이 근쳐 나갈 듯 호오 근일 각 사회를 대강 구경한즉 정직한 일에는 귀가 어둡고 허탄한 일에는 귀가 밝으며 청년 자매들을 살피본즉 학문에는 귀가 어둡고 계집 노름에는 귀가 밝으나 그 귀들 다 두엇다 무엇에 쓰잔 말이오 이와 갓치 여러 말씀하기는 결코 나의 귀 어둔 것을 스스로 넘혀 말씀이 안이오라 일반 우리 동포들의 밝은 귀를 어둡게 쓰는 일을 개탄함이 올시다. 넘어 지리하여 고만 굶칩니다(일시에 박장갈채)

또 한사람이 일어서며

회장 나는 배가 남보다 유명히 불음으로 별명지어 부르기를 배부장이라 호오

하며 연단 우에가 배를 되시고 잡아죽이 서서(1909. 9. 23)

(二十一) 여러분 보시오 나는 사지백테에 한 가지 부족한 곳이 업것마는 이 배가 범상한 사람보다 뛰어나게 큼으로 생병신 행세를 하니 그 안이 원통호호 그러나 내 배의 큰 것이 해롭지 안이한 리유를 잠깐 말삼할 것이니 옛날 리태백이라는 문장이 글을 지었스되 푸른 하늘 한 장지(青天一張紙)에 내 배 속에 글을 쓴다(寫我腹中詩) 하였스니 이로 밀어 보건대 리태백의 배는 내 배보다 몇 갑절 더 큰 모양이오 엇지호야 그러나 하면 내 배는 이만치 커도 그 속에는 소지 한 장 지을 글이 간신히 드렸는데 리태백같은 문장의 글이 그 넓은 하늘에 쓸만치 드렸을 제는 그 배가 얼마나 크겄소 또 왕도(王導)라는 사람은 슈백인(周伯仁)의 무릅을 비고 누어 자기의 배를 가라치며 하는 말이 이 가운데 족히 자네 갓흔 무리 슈백인을 용납한다 하였스니 아모리 적더라도 사람 슈백 명이 용납할만 하니 그 배가 여간 넓어서 될 일이오 그것컨만 왕도다려 병신이라 지목한 말이 업고 내 배가 아모리 커도 들지는 어린 아해 하나도 드리 안졌지 못호겄거날 왜 배부장이니 무엇이니 별명을 지으시오

혹 오해하시는 이는 내 배 큰 것을 보고 먹기도 남보다 몇 갑절 더 먹는 줄 짐작 호시 오리다마는 내가 호로 밥 삼시 남과 일반으로 먹는 외에 피천대뿐 더 먹는 것이라고는 과연 업소 근일에 가마니 보닛가 배 홀족한 엇던 량반은 외양인즉 솔득이 존장치게 말났습되다만은 남 못먹을 재물을 함부루 만히 먹어 자룡이 창 쓰듯 쓰기도 잘하고 은근히 가대도 잘 작만호나 봄되다(1909. 9. 24)

(二十二) 그나 그 뿐이오 날마다 만찬회니 다과회니 하며 분주불가히 돌아 단이면서 먹어대는 것을 보면 아마 그 배가 무소대로 재조흔 자루 모양으로 늘대는 함부루 커지고 줄대는 우리 배시생 항렬씀 되어나 봄되다 비단 먹기만 썩 잘 홀 뿐 안이라 먹는 물건이 소하도 매오 잘 호는 것이 그 량반 호는 생애가 밤낮 생사람 먹어 넘기기로 종사를 호것만은 체징 호 번 안이나고 온전히 삭아 내려가는 것을 보시오 여보 별호도 세력보고 낮가려 보아가며 짓소 비장비장 하니 비장이라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비록 걸고 쓰러지게 되엇서도 디체는 남의 밋혜 과히 들지 안이호야 비장이라고는 득성 이후로 단여본 적이 업소 내 배가 지금은 남의 별명을 듯나 보오만은 이 다음에 생광시럽게 쓸 날이 잇스니 드리 보시랴오 우리나라의 국세가 오늘날 이와 가치 빈잔호기는 국민의 량이 좁고 담이 크지 못호 연고가 안이오 내 배를 보시오 심상호 배보다 몇 갑절 더 큼으로 도량은 팔구운몽(八九雲夢)갓치 넓고 담은 동의덩이 갓치 커서 룽룩호 시속 무리로는 언감생심 비교도 못해 볼 것이니 그만하면 국권(國權) 회복을 나 혼자기로 쥬션 못해 보겄소 나는 이 배를 삼시로 드러다 보고 은근히 혼자말로 부탁호는 일이 잇소 나는 배 너를 저버릴지언딩 배 너는 나를 저버리지 말고 널지호 구석에 아모조록 호흔 경륜을 배포호앗다가 나라 일을 위하여 한 번 힘쓰게 하여라 하오 이 다음에 또 말삼하시 리가 만히 계시니 그만 굶칩니다(박슈성이 사면서 짹짹)(1909. 9. 25)

(二十四) 회장 불오는 소리가 또 나더니 엇던 회원이 목덜미에 뒤웅박 갓흔 것을 달고 연단에 가 서며 나는 흑부리오 여러분 말삼하시는 것을 드르니 과연 유식들 호서서 고급 사람의 징거를 모다 들어 말삼호시오마는 나는 본래 글을 배오지 못호야 아는 것이 별로 업스나 남의 말삼만 듯고 무식호다고 변변치 못호 말삼이남아 업스면 도로혀 가호다 홀 길 업서

두어 마디 룩담을 훔칠 것이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내 훔칠 보고 웃기도 하고 흉도 보며 혹 씌여 보라 권고도 합디다마는 시속 말에 혹을 씌러 갔다 붓쳤다 호오니 훔친 개 잇는 것을 남의 말에 못익의여 찌라 호다가 한 개 더 붓치면 엇지호리 겁도 나고 일변 생각하면 내가 벌서 굴머 죽엇을걸 이 혹이 복이 되여 조반석죽 먹고 지내는지 알 슈가 잇소 내가 이왕 드론 이악이 호 마디가 잇스니 여러분 드르시게 호오리다 옛날 엇더호 사람 이 과거를 보러 서울을 올라왔는데 남문밖에 점 잘치는 사람이 잇다는 소문을 듣고(1909. 9. 26)

(二十五) 이번 과거에 참방을 호겠나 못호겠나 무르러 안이 갖겠소 급기 복차를 후히 쥬고 문복을 호죽 점장이 말이 금번 과거는 호기는 호겠소마는 과일날 아침에 장기를 두어 야 되겠다 호으로 과일을 기다려 막 밟으며 나셔서 사면 장기 둘 곳을 차자 단여도 장기 두자는 사람이 도모지 업스닛가 호 일 업시 유건을 쓰고 거적 한 립을 말아 지고서 김춘문을 차자 가노라잇가 황참의 다리 넘어 병문에서 막버리군 룩칠 명이 돌아 안져 장기를 두는지라 과거호고 십흔 욕심에 염치를 불게호고 썩 드러안지며 이 량반 장기 한 판 돕시다 장기 여러 판 진 차가 갖득이나 분이 나는 차에 압다 이 량반아 과거를 보러 가면 장중으로 드러 갈 것이지 유건순 더 화상이 엇의 안져서 장기를 두겠다 호오 그 말은 드른 체도 안이호고 지근지근 한 판 두자고 졸으니 분난 차가 분이 더 나셔 장기 판을 번쩍 드러 이마를 썩 쟈리니 장기도 못두고 혼이 나셔 그들로 장중에를 드러가 명지에 글을 써 들고 현대판 근처에 가 빙빙돌며 글장을 밧치라 호는데(1909. 9. 28)

(二十六) 엇더호 병거지 쓴 구 종호놈이 분쥬히 설포장을 들치고 휘휘 둘러 보더니 셔방님 벌서 오섯습닛가 글장을 여셔 이리 쥬시오 그 선비가 엇진 꼭절인지도 물오고 얼덜결에 글장을 쥬어 보냈더니 과연 그 과거에 놉닥케 참방을 호앗드라오 여러분 그 사람 과거호 것이 무슨 덕인지 알으시오 그것도 나 모양으로 혹 생긴 덕이오 당초에 글장 밧으러 나아온 구 호놈이 저의 상던 그날 시관대감의 현대판 아모편 설포장을 들치고 살펴보면 이마에 혹이 내여민 량반이 잇을 것이니 그 글장을 급히 밧아 오라 호는 분부를 듯고 한 거름에 썬여 나와 불 쟈에 마참 그 선비가 장기 판에 맞져 이마가 툭 불거진 모양으로 글장을 들고 썩스닛가 구호은 급흔 바람에 이마만 보고 글장을 밧아 갖고 시관 그는 어련호리 호고 놉닥케 장원급예를 식엿다는 시속 리약이가 잇지 안이호오 그까지 징거 업는 야담을 족히 들어 말삼할 것은 업스나 좌우간 남의 잇는 것이 업는니보다 남의 업는 것이 잇셔선 큰 흥될 바가 무엇이오 나는 시골 태생이라 나무 묘리도 대강 아오 다른 나무는 다 고만두고 물푸레 나무 호 가지로만 말합시다 아모 병 업시 맏맏호게 잘 안 것은 불기채 독과 자루 소용밧게 못되 되 나 모양으로 혹이 생긴 것은 중감을 쥬고 닷호아 사다가 호흔 집물을 데조합디다(1909. 9. 30)

(二十七) 그것으로 보면 사람도 중감 나아가기는 혹 생긴 우리네가 데일될 줄로 확실히 아오 우리 동리 학도 하나가 이 동안 대학을 공부호는대 한 번 지나다가 그날 배은 대문 뜻을 무러본즉 몸을 닷가 부국평천하하는 일까지 밧친다 합디다 성현의 말삼이 여복 정당하 시겠소 지금 개명호 시대에 부국강병하자면 나라 령디를 만히 엇어야 도더히 될 것이니 나

는 주야 축슈하고 웅망하기를 우리 대한도 남의 나라갓치 오대쥬 각처에 령디를 내 혹 일반으로 사면 엇어 붓췌시면 데일 강국되기가 어려울 것 무엇이 잇소 그럼으로 나는 내 몸의 잇는 혹을 밀어 나라에 혹 생기를 주야 축슈하고 웅망하는 것이오 이췌 말삼하고 나아감니다(일시에 갈채)

말석에 안췌던 회원 하나이 붓채로 반차면을 하고 니러셔며 분난 사람 모양갓치 불민소리로 회장을 불오고 금사오죽 집행이를 버듬하게 잡고 이리 쭈덕쭈덕 더리 쭈덕쭈덕하며 연단을 차자가 서서 고개를 번쩍들어 두리번두리번하더니(1909. 10. 1)

(二十八) 픽 혼 번을 웃고 혼자말로 흥 내가 경은 잘 읽지만는 연설을 해보았셔야지 하며 다시 무슨 궁리를 하는지 혼동안 말이 업시 눈만 휘번적거리고 섯스니 혼 사람이 벌떡 니러셔며

회장 더 회원이 연단에서 책문을 짓고 섯나 보오 단축한 시간이 다 진하야 가니 어셔 말삼하라고 하야 췌시오

회장 어셔 말삼하시오

연단에 섯던 회원이 그 동안 배포를 다 하얏던지 픽 혼 번을 췌 웃더니

회장 내가 벌셔브터 변변치 못흔 말이 남아 두어 마디 하고 십사오나 나는 압 못보는 장님이라 우리 회장이 청맹관이신대 말 싯해 혐의시러온 구절이 업지 못홀 뜻하야 지금까지 말을 못하얏드랫소 오날 여러 유지하신 일반 회원 첨각흔의 유리하은 말삼을 듯자오니 이 눈으로 보는 듯 력력히 알겡습니다마는 한갓 섭섭하은 바는 우리 압 못보는 동포의 사정은 혼 마디 설명을 안이하야 췌신 일이올시다 그럼으로 회장 각하 드르시기에 얼마췌 췌촉되올 혐의를 무릅쓰고 두어 마디 말삼을 하오니 용서하야 췌시기를 바라오 세상에 병신되고셔 엇던 병신이 도흐릿가만는 이 사람 생각에는 눈먼 것이 데일 원통흔 줄로 녀킵니다 무엇이 그리 원통하냐 혼변(1909. 10. 2)

(二十九) 우리가 눈은 어둡고 벌어 먹고 살도리가 업셔셔 룽효 사과 단시 등 점방셔를 웬금으로 대강 배와 가지고 문복하라고 소리를 질으며 남북촌 골목마다 샷사이 돌아 단이다가 슈가 도와 문복하은 사람 혼 둘을 맞나면 나 아는 대로는 말 해췌고 돈량을 얻어다가 입에 풀을 하고 지내더니 요사이는 그 장흔 생애도 홀 슈 업는 것이 장안 각처에 예슈교인이 날마다 늘어서 우환질고가 잇스면 자기네끼리 기도를 하고 우리는 목통 터지도록 문슈소리를 질너도 췌 외 보듯 지날결에도 찾지를 안이하니 이 노릇을 장췌 엇지하며 췌는 설혹 혼 집 걸너췌 찾는 사람이 잇다 혼대도 적이 오장이 잇고는 안이췌야 그 노릇은 못하겡습디다 근래 아해놈들은 지식은 늘지 못하고 어룬 육하은 췌동이만 짜노아서 문슈 소리만 드르면 노란 강아지 바자 구멍에서 나오듯 골목마다 췌루루 췌여 나아와셔 장님장님 불으기에 처업에는 더의 어룬의 심부름으로 불으는 줄 알고 대답을 하얏더니 령락업시 불알이 몇 쪽이나 물으니 고런 호레아들놈들이 췌 엇의 잇소(1909. 10. 3)

(三十) 이일 더일 심사가 사오나와 그 생애를 고만두자 혼대 아모리 생각하야도 췌 굴머 죽을 모양이오 서양 각국에서는 우리 갓치 압 못보는 맹인을 위하야 특별히 학교를 설립하고 지성것 교육을 하야 녀너히 생활할 방침이 잇도록 하야 췌거니와 우리 나라에서야

눈썹도 상당한 학교가 아주 갖추었지 못하야 가라치지 못하는대 언의 거를에 눈썹 눈
가라쳐 보겠소

동양으로 말한대도 지나에서는 음악을 배오게 하얏고 일본서는 암마법으로 생애케 하거
날 우리 나라에서는 혼갖 경문이나 일거 버러 먹는데 그남아 못해 먹고 살나고 었던 사람은
비방하기를 눈썹 눈이 눈썹 눈 속이러 단닌다고 하니 그 안이 원통한 일리오

여보 이 세상에 눈썹 눈들 다 보앗소 눈만 쓰면 무엇하오 매사를 나라이 망홀지 인민이
멸홀지 단 두 썹을 못내다 보고 눈 안에 리익만 취하라다가(1909. 10. 5)

(三十一) 국세를 요묘양썹 만드러 늦는 그 눈 무엇에 쓰잔 말리오 내 발사에 잇는 썹
만도 못하지 여보 속앗다는 말을 입이 두리광질이 갖기로 었지 하는지 몰오갓습디다 눈썹
제가 얼마나 변변하면 눈썹 우리게 속드란 말리오 속은 제가 못생겼지 속인 우리는 조금도
탓할 것 업소 이 말을 여러분이 었지 드르실는지 알 슈 업소마는 나는 일상하는 말이 근래
세상 형편되는 썹 내 눈이 성희드래도 화셔로 썹시어 벌너 노을 번 히다고 하오 오장은 멀
썹흔 눈이라서 눈으로 남의 경치보고 내 경치보면 속이 상해서 잠신들 견대갓소 옛날 장적
(張籍)이는 눈이 멀엇셔도 한창려(韓昌黎)선생이 말하기를 장적은 눈은 멀엇셔도 마암은 멀
지안이하얏다 하였고 황노직(黃魯直)은 실명을 하얏셔도 소동파(蘇東坡)선생의 지어준 글에
하얏스되 실명은 하얏셔도 능히 글은 짓는다(失明能著書) 하얏고 가전에도 자하(子夏) 좌구
명(左丘明)이 갖흔 사람이 모다 내 눈과 일발이 되엿스되 그네들 명예가 천고에 썹다오니
눈썹고 명예 업는 무리와 었지 혼 날 말이나 하오릿가 다시 혼 마되 부탁하을 것은 우리 나
라 이천만 동포들이 아모썹록 학문을 힘쓰고 지식을 넓히어 번개갓흔 눈으로 텃현대세를 살
히어 리해를 투철히 내아다 보아 만전불패홀 길로 행하교(1909. 10. 6)

(三十二) 망인이 눈썹 말을 타고 밤에 깊은 못가에 지나듯 우태호를 행하지 말기를 바
람으로 여러분의 지리하심을 불고하고 되지못한 말을 횡설수설 하오니 폐회하고 여러분이
각각 나아가시거던 물론 누구던지 만나시는 대로 이 사람의 붉은 마암에서 썹차 나아온 말
삼을 전하야 주셔 다시는 눈썹 소경이 업게 하압기를 간절간절이 맞습니다(울소 울소)

그 다암에는 대머리, 무턱이, 룩손이, 룩발이 형형색색 괴괴괴괴한 병신이 차례로 회장을
불오고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장황히 하는대 손바닥치는 소리가 회관이 썹나갈 썹하더라
맨 나중에 었던 회원 하나이 연단을 올라 섰는데 머리가 놀난 자라다쟁이 모양으로 움치
라갓고 등은 썹라는 새우갓치 솟으라지고 가슴은 썹는 백로갓치 특 내여밀엇는데 썹구멍에
서 썹어 잡아당기는 목소리로 연설을 장황히 하는대 텃하에 장관이라 여러 회원들이 우슴이
절로 나아와 문란히 우슴 소리가 나니 었던 회원이 소리를 버러질너 규칙이오 현화썹 금해
주시오 회장이 고슈방망이로 사선상을 짝짝 두다리며 정숙하시오(1909. 10. 7)

(三十三) 연단에 올은 회원이 회중을 향하야 압으로 었드러질 듯이 움 혼 번을 하교

나는 안팎 썹사등이 올시다 일신을 굶도 썹도 못하교 일상 요만하교 잇는 병신이온대
막버리를 해먹자니 지계가 등에 붓지 안이하교 행세를 해보재도 발등 혼 번 굶어볼 슈 업스
니 이런 기막힐 일이 썹 었의 잇갓소 의복을 해 입어도 압뒤가 내미러서 필목이 갑절이나
더 들고 잠을 잔대도 평생에 모로나 누엇지 이리뒤척 더리뒤척 마암대로 편하개는 생전 못

해보고 두리 누은 모양이 텅연히 마암심 자 갓소 사라셔 고생도 지극하라니와 사후에도 혼 가지 큰 걱정이 남의 눈보임을 혼대도 거적 송장으로 감악갓치 밥 만들 슈는 업고 그래도 여보 나는 전생에 무슨 죄일이 잇던이 배내 병신으로 요모양썸 되엿소마는 지금 세상에 사람들을 모다 살펴보면 사지룩테가 현현장부르대 그 행동인즉 나보다 덜미치는 안팎 습사등 이가 만습되다 말삼 드르시오 현금 정부 대관으로 말을 하면 ○○○○○○○○하자니 ○○ ○ 호령이 무섭고 ○○○ ○○○○ 하자니 ○○○ 반대가 성가시러워 굽도 접도 못하고 등 살이 쫘쫘한 모양 봄부채에 그러시면 동전 오 푼 안이면 칠 푼은 착실히 밧겿습되다 또 근 일 각 사회 유지한다는 여러 사람으로 말한대도 ○○○○하는 일 혼 가지 말 혼 마디만 한다는 ○○○ 맛을 경각에 볼 것이오(○은 覆字 이하 같음, 1909. 10. 8)

(:14) 그러치 안코 ○○○○○○ 될 터이면 그 사회는 잇서 무엇에 소용이오 그 역시 안도 셔도 못하고 엉거쭈춤한 모양 사진이나 박아 이 다음 시대에 경계할 기념품이나 만들엇으면 똑 알밧겿습되다 이것은 대두리로 말삼이지 기 외에 어른 어린이에 량반 상놈 검동이 셤동이 귀한 자 천한 자 안진 놈 선 놈 자는 것 셤 것 하나 빼놓치 말고 모조리 손가락을 곱아가며 살펴보면 능히 제 자유로 사지를 활동하는 인물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미에 뒤섯기니 만치도 업스며 그 자격들이 내 병신을 보고 우셔요 이 다음에 또 웃는 쌀을 보기 곳 하면 웃는 그 입에 쏙이나 퍼 넛켓소 지금 누구누구 몇몇 분은 아즉 아모 하자업시 기개가 되낙하고 지조가 견확하야 관명색을 하여야 홀 터인데 다른 사람들은 의례히 자두치 자가웃 판이면 넉넉하거니와 나는 즐잡고도 두 자 두셔너 치 되는 나무를 큰매흠지 가음 모양으로 둥그스름하게 작만하여야 홀 것이니 그 안이 극난한 일이오 쓰러져가는 집을 붓들 열심과 물에 드러가는 적자를 건질 자선심이 아즉 보기에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 왕망(王莽)의 겸공(謙恭)한 것이나 안인지 일후를 더 두고보아 시종이 변치를 안이하고 보면 그 때 가서 그 량반에게는 비로소 우습을 밧을 터이닛가 나의 번개갓흔 눈을 밝게 뜨고 살히는 중이오 시간이 부족하야 고만두게습니다(회중이 일시에 갈채)(1909. 10. 9)

(:15) 엇던 회원이 회장을 불으더니 우리회를 임의 설립한 바에 요사이 무슨 회 회회회 모양으로 일흠 도흔 혼 울타리나 빗 도흔 개살구 되지 말고 일변 학교를 창기하야 교육을 힘쓰고 일변 공장을 설시하야 실업을 발달하여야 회된 본지를 관철하겿스니 사귀신속으로 오날 아췌 의론 결정하기를 바라오

또 혼 회원이 니러서며

안이오 안이오 회장 그 회원의 데의가 올치안은 바는 안이나 아모리 일각이 밧분 시대로 순서 업시 일을 엇지하오 이 다음 회에 본회 규칙이나 통과하고 회장이혼 일반 임원을 선명헌 연후에 사업을 진행하자면 급선무는 그 회원 말삼하신 두 가지 문데가 자연 될 것으로 알읍니다 그러닛가 오날은 여러분 고명하신 토론을 그만치 들어 퇴슈 속에 부패한 물건이 거진 업셔지고 새정신이 드럿사오니 즉 우리 일반 회원이 이 세상에 잠을 비로소 썸 모양이 올시다 이만치 경사시러운 일이 다시 업사오니 첫재는 나라를 위하야 업스나 일반되던 국민이 새로 생김을 축하하고(1909. 10. 10)

(:16) 들재는 우리 병신 동포도 나라 일을 다른 국민에 못지 안이하게 하야 볼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만세를 불고 폐회함시다

또 한 회원이 니러서며

회장 그 회원의 말씀이 장이 쫓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의결할 사건이 잇소 이 다음 회
일과 집회할 처소를 아조 당하는 것이 가할 줄 아는고로 지금 동의를 하겠습시다 이 다음
총회 일자는 래토요일로 처소는 오늘 개최한 훈련원으로 당하기로 동의하오

또 한 회원이 회장 재청하오

회장이 동의에 의견을 무른 후 가부로 무려 가결이 된 후에

(회장) 인제는 별 사건이 업나 보오 만세를 불읍시다

만세 만세 대한대국 만세

만세 만세 대한민국인 만세

만세 만세 병인간친회 만세 完(1909. 10. 12)

6.滑稽小説 絶櫻新話, 白痴生, 대한민보 1909. 10. 14 ~ 11. 23

(一) 샌님 엇의 갑시오

「오 너 덩병이나 장에 좀 간다」

「량반이 되셔서 댁 사랑에서 공자왈 맹자왈 글이나 읽지 장에를 가시다뇨」

「이에 별소리를 다 한다 양반은 장에 못가니」

「장에는 무엇하러 가심닛가 떡 사 잡스러 가심닛가」

「량반이 말지 못하야 장에는 가기로 썩어야 불성 사오납게 사 먹으라」

「예 그러면 술츄넘 가십니다 그려」

「웅 술잔은 너의 갓흔 아해들이 사주면 부득이 하야 먹을 터이지」

「상덕이 잇지 하덕이 잇습닛가 샌님이 저의 갓흔 상놈을 더러 사주십시오」

「어허 이놈 맹낭하다 량반다려 술 사달라고 너 술 사줄 돈이 잇스면 흥성 한 가지라도
더 해가지고 가겠다」

「흥성은 무슨 흥성을 하시랴닛가 돈을 이리 주시면 제가 해다가 드리오리다」

「오냐 흥성은 내가 할 것이니 댁에까지 저다나다고」

「제가 밧부지만 안이하면 갓다드리다 썩이오릿가마는 지금 서울까지 가는 길이닛가 황
송하와도 할 슈 업습니다」

「서울가는 놈이 흥성은 엇디케 해다 준다고 히터냐」

「흥성 닷해 로자량이나 찌퍼러질까 해서 엇준 말이올시다」

「이런 어림업는 놈 내가 흥성하고 내 로자 보태쓰지 안코 너 맛겨 흥성하고 네 로자 보
태줄 뜻하랴」(1909. 10. 14)

(二) 「대관절 흥성은 무슨 흥성이오닛가 말씀이나 하시오」

「너 부정하 지나 안이하나 부정곳 하면 말을 못하겠다」

「부정은 제가 부정해요 엇저녁에 어린 놈이 품 속에서 똥을 싸서 우래통을 훔신 벗고
목욕을 멀정히 하고 새옷까지 입었는디요 이것 봅시오 때 한 점 잇나」

「안이다 목욕은 고만두고 세수를 보름이나 안이하야 때가 소상반죽 눈박이듯 어롱더롱
하야도 관계업다」

「그러면 무슨 부정 말삼이오닛가」

「부정이 썩 여러 가지다 너 드러보라나나 눈으로 본 부정 입으로 먹은 부정 귀로 드른
부정 손으로 만진 부정 발로간 부정 너 다 물오나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섣님 견해 셋기도 황송합니다 눈으로는 오날 아참에 이웃집 어
린 아해 쏙 싸는 것을 보고 입으로는 아짜 술집에서 쏙 싸고 잇던 쇠천엽회를 먹었고 귀로
는 엇저녁에 머슴놈 먹은 것이 체하야 설사하는 소리를 드렸고 손으로는 그저께 쇠두엄을
쳤고 발로는 지금 개똥을 밟았습니다」

「너는 쏙으로 두루말이를 하얏나나 웬 쏙이 그리 만흐나 그것은 다 부정될 것 업다 눈
으로 송장을 보았거나 귀로 부음을 드렸거나 입으로 비린 것을 먹었거나 손으로 살생을 하
얏거나 발로 문상예를 갖거나 이런 것이 부정이란 말이다」(1909. 10. 15)

(3) 「예 그러면 아모 일 업습니다 제가 섣님 말삼하신 그런 부정은 보고 듯고 먹고 만
지고 밟은 지가 스무아흐래 올시다」

「오나 그러커던 하로만 지나면 한 달이 될 것이니 래일 데으로 오너라 리약이를 훔 것
이니」

「섣님 리약이 듯자고 빗비 가는 서울 길 중지하고 하로를 묵어요 섣님이 동행삼아 슬슬
가시다가 첫닭만 울거던 그 리약이를 하시고 환대하십시오」

「내 리약이 너 들니자고 장도 못보고 하로 길을 공연히 갈가 네가 하로만 장에서 나고
갖치 묵었스면 그 안이 도켓나나」

「섣님 부정에는 크고 적은 달도 안이 봄닛가」

「왜 그리냐」

「만일 적으나 크나 달만 차면 관계치 안이하올 것 갓홀진더 이 달이 적어 오날이 그믐날
이올시다」

「오나 참 그러코나 진작 그 말을 하지 거괴 안져라 내 리약이를 훔 것이니」

「섣님 리약이 문열기를 대단히 거래도 하십니다 난산정에 아기문 잡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러」

「이놈 난산이라니 방슈에 그리게 방정마진 말도 한다」

「무슨 방슈에 그려오」(1909. 10. 16)

(四) 「잔소리 말고 드러 보아라 내가 탁지대신이나 내부대신이나 혼 번 하야볼 경륜으로
지금 정성을 드리는 판이다」

「예구 섣님 욕심보시게 대동배도 짜라 가갸네 정성말고 더흔 것을 하기로 민머리로 대
신도 훔닛가」

「참 상놈의 말이로다 요사이 개화가 되야 백두로 무엇이든 막혀 못하는 줄 아나나」

「그러면 저도 경륜 좀 해보게 방법을 가라쳐 줘시오」

「어허 이놈 영큼하다 그러면 량반하고 벗하러 덤뵈게」

「천만 의의 말삼도 하십니다 우리 나라 량반 상놈은 판에 박아 노앗는데 아모리 대신을 하기로 생심히 벳을 하올 가망이 잇습닛가」

「괴특한 말이로다 세상놈이 다 심장이 변하기로 너야 그럴 리 만무하지 리약이 드러라 내가 대신을 엇더케 운동하논구 하니 제슈씨 되시는 아씨게서 지금 태중인대 래월이 산삭이다」

「그래오닛가」

「내가 장에 오기는 달은 일이 안이라 산팍과 산미를 흥성하러 오는 길이다」

「산팍 산미 흥성하러 오시기는 당연하신 일이올시다만은 대신 운동이라는 말삼은 알 슈 업십니다」

「네가 그런 리치를 다 알겠나냐 네 쪽쪽이 드러 보아라 슈씨 아씨게서 이번 해산에 턴 우신쥬야 불알 달닌 놈을 낫치 안이 하시고 달뽕이 갓흔 찔 하나만 나셨스면 쏘다노코 말 오말이지 나의 대신이야 엇의를 가고 날이 새겟나냐」(1909. 10. 17)

(五) 「여보 샌님 망령나섯소 집안이 되라면 아드님이 번성하게 나아지 찔만 나면 무엇 하자고 손가락을 곱아가며 기대리십니가 아마 샌님 아씨게서 당삭을 하섯스면 찔 날잡아 겁을 내시지요」

「이에 너는 남의 속 물으는 말 작작해라 아달을 나면 그놈이 썩 재조가 잇더라도 제나 벳살낫 엇어홀 뿐이지 제 삼촌 대신 식여주겟나냐」

「찔님을 나시면 샌님에게 대신 차례가 엇더케 음닛가」

「그 찔을 길오되 잘 먹이고 잘 님회여 범백사는 별로 가라칠 것 업시 다만 태도나 나무에서 쪽 편 듯하게 몸을 가지고 아양이나 남의 간을 보통이썩 녹이게 가라쳐 요새로 말하면 엇던 량반갓흔 유세력한 대신의 집 며나리로 식집을 보냈스면 고 태도 고 아양으로 무슨 별 별 무궁무진한 쥬화를 못부리겟」

「샌님도 독장사 헛구 구하듯 싹도 하시오 그런 경륜을 하시라면 세력이 며나리로 쥬어셔야 무슨 쥬화가 생겨요 재가 각 맥 풍속을 더러 보앗소마는 며나리 되시는 니가 석아바지에게 쥬석 문안이나 홀 뿐이지 고개를 들고 말삼 한 마되 바로 고히야 톱더닛가 샌님이 그 생각이 잇거던 며나리로 보내지를 말고 그런 량반의 마누라로 보내십시오」(1909. 10. 19)

(六) 「네가 무엇을 알니 며나리도 며나리 나름이지 마누라만 못지 안이흔 까닭 슈가 다 잇나니라」

「예 그런 량반의 맥 내에 까닭 슈야 저의 갓튼 상놈의 집안에서야 알 슈 잇습닛가 그러치마는 샌님 운동이 목덕대로 된대도 간신히 암량반뵈게 못되시겟습니다 그러」

「암량반이라니 량반도 암컷 슈컷이 잇더란 말이냐」

「잇고말고요 저는 아즉 상놈 노릇은 훤니다마는 걸고 스러져도 슈량반 운동을 하는 중이올시다」

「이놈아 량반 육하면 귀향가는 것도 몰오나냐 암슈라는 것은 쥬생다려 하는 말이지 암량반 슈량반이라니」

「며나리 사돈은 암사돈이라 사위 사돈은 슈사돈이라 하는 것도 몰오십닛가」

「샤돈은 암슈가 잇스려니와 량반이 암슈가 잇슬 이유가 엇의 잇단 말이나,
 「그 리유를 드러 보십시오 쌀의 덕에 잘된 량반은 암량반이라 호고 아달의 덕에 잘된 량반은 슈량반이라고 혼답니다,
 「오나 잘만 되면 상책이지 암량반이 관계 잇나나 그러나 너는 무슨 썩족흔 슈로 슈량반 운동을 혼단 말이나,
 「체 운동하는 속을 듯고만 보면 씹씩 놀나시지요」(1909. 10. 20)
 (七) 「이놈아 놀나기는 내가 어려서 경의 혼 번 안이호고 자라난네티 여간 네 운동바람에 놀날 듯 심흐나 걱정말고 리약이나 어서 호여라 갑갑하다,
 「샌님 거괴 좀 편히 안지십시오 제가 리약을 흘 것이니,
 「압다 그자식 리약이 좀 호기에 거레도 대단히 혼다 안져야 듯고 서서는 못듯네티 말이나,
 「체 리약이가 호도 길죽스름 호닛가 오래 서 계신게 황송해서 그리웁니다,
 「황송이고 누렁소고 잔소리는 고만두고,
 「샌님 저는 이번에 서울 가기는 합하나 사러 갑니다,
 「합은 인제는 농사 안이호고 옛장사로 나셔라냐,
 「샌님도 짝도 호십니다 옛장사가 새 합 사 지고 단입더닛가,
 「딱하면 부러지지 너 언제 새 합 사라간다고 헛더냐,
 「그러면 누가 헨 합 사라간다고 헛슴닛가,
 「오나 고만두어라 누가 드르면 시비호는 줄 알겠다 그래 합은 사다 무엇에 쓰라나나,
 「우리 동리 상호가 다 알으시다심히 제가 이 때까지 돌아비로 지내지 안이호닛가,
 「그래서 네가 돌아비로 지네티」(1909. 10. 22)
 (八) 「그렇더렁 장사를 호야 전천이나 모았습지요」
 「아모렴 네가 그 동안 착실히 모았지 그리기에 나는 이번에 순산홀 족하쌀 혼인홀 때 네가 혼 모통이 당호게 부조를 흘 줄로 단단히 밋고 잇다,
 「샌님택 부조를 혼다 썬이오닛가 그러나 부조라 호는 것은 오고가는 것이올시다 샌님택 송아지가 서너 마리 되니 위션 한 바리만 재게 먼저 부조를 합시오,
 「부조도 까닭업시 호더냐 글지라도 나 모양으로 집안에 혼인 경륜을 호거나 허다 못호야 초상이 아차차 호아호더면 부정흔 말을 흘 번 헛고,
 「여릅시오 샌님만 부정타는 줄 알으십시오 저도 부정을 샌님만치나 보는 일이 잇슴니다,
 「네가 무슨 일로 부정을 본단 말이나,
 「고만두시오 리약이도 흘 슈 업소 당장 부정흔 말을 입 바게만 안이 내보네티 목구멍 이쪽까지는 다 나왔썬는 걸 샌님다려 리약을 해요,
 「압다 그놈 부정 대단히 본다 말 혼 번 혼 것이 부정이 되면 부정에 걸녀 아모 노릇 못호겠다」(1909. 10. 23)
 (九) 「부정 보기를 누가 먼저 헛슴닛가 상탁호부정이라니 샌님이 호도 부정을 보시닛가

저도 시험 곁하야 부정을 보러들니다,

「이에 그만만 해도 부정은 다 가시었다 함 사라가는 곡절이나 드러보자,

「샌님이 호도 죠르시니 마암에 썬림호지만 리약이 호오리다 제가 지나간 달에 상처를 안이 했슴닛가,

「그랬지,

「이 동안 중매아비가 혼쳐 혼 곳을 이르기에 재취를 장가를 들자고 흙을 사러 갑니다,

「홀아비 되야서 장가들기가 의전례에 홀 일인대 그것이 무슨 슈량반 운동이란 말이나 시럽에 자식이로다,

「남의 말을 채 듯지도 안이 호시고 육부터 호시네 샌님도 딱호시지,

「흙 사가지고 장가 갓스면 네 목덕이 다 되었지 또 무슨 남저지 말이 잇단 말이나,

「장가만 들고 고만일 것 갓호면 삼대 홀아비로 늙기로 장가를 애세 들 밋친 놈이 잇더란 말삼이오,

「그러면 장가든 뒤에 또 무슨 일이 잇단 말이나,

「잇고 말고요 이밥을 먹자면 눈 작만호고 물 먹으라거던 우물을 파고 집을 지라면 식목을 호고 슈의를 입으라면 누에를 치고 계란을 먹으라면 암탉을 노코 달마중 호라면 초저녁에 나셔라는 격답이 안이 잇슴닛가,

「압다 그자식 구변도 좃타 작작 느러 노코 리약이나 어서 해라,

「구변이오 제가 구변이 썬 좃치는 못해도 중썰썰은 녀넨호지오,

「네 구변이 엇더캐 중썰썰 호단 말이라,(1909. 10. 24)

(十) 「저거번 독립관 연설 구경을 갖더니 아모씨 아모씨가 차례로 나아와 연설호는 것 드르니 그네들이 손꼽아가는 변사라고 함되다마는 나도 그만치는 호라면 호겠습디다,

「연설은 흙부루 호는 줄 아나라 나는 대동날 공포홀 말을 두어 마디 일으라도 발뒤꿈치가 절로 쓰고 가삼이 울렁울렁호야 목소리가 절로 덜덜 썰니더라,

「그는 해보지 못호앗스닛가 알 슈 업습니다마는 남 호는 것을 드러보닛가 별 슈 엇의 잇셔오 목덕이니 준덕이니 자연덕이니 텃연덕이니 구체덕이니 추상덕이니 애국덕이니 자선덕이니 말 몇 마디를 호자면 덕자 두루말이를 합되다,

「너는 정신도 좃타 나는 덕자인지 셔자인지 기억 못홀너라 이에 연설 리약이논 고만두어라 누가 그것 듯자나냐 네 운동호라는 사건이나 마자 리약이 호여라,

「신부가 나이 차면 혼이 말머리에 태기가 안이 잇슴닛가,

「그러치 그리기에 아해 나 가지고 신부례에 오는 신부가 더러 잇는걸,(1909. 10. 26)

(十一) 「지금 저 장가드는 신부가 울에 스물 네 살이라닛가 녀넨히 아해를 배스겠지오,

「녀넨호지 택 마님은 열일곱에 첫 아달을 낳섯는데,

「저는 은근히 손가락을 곱아가며 기대리기는 신부가 말머리에 슈태를 호야 옥동갓흔 첫 아달 낳키를 고대고대 합니다,

「누구는 자식 낳코 십지 안타더냐 아달만 나면 무엇호니 활장사 아달은 활을 들오 만들고 키장사 아달은 키를 들오 만든다는 말과 갓치 네 아달이 너 들오 되지 개천에서 튕날 줄

넉이나나,

「샌님은 짝도 흐십니다 시골서 살으시며 농사하는 리치도 몰오심닛가,

「짝하면 불어지지 이 자식이 농사 리치를 내가 몰나 이 사람의 밭 더 사람의 눈을 생찌
그렁이로 엇어서 해마다 병작이 남아 슈십 석식은 무려히 썩러드린대 농사 리치를 몰오고
될 뜻하냐,

「샌님이 논농사를 지어 보섯다며 모내는 리치도 몰오셔요,

「모내는 리치를 몰오다니 모자리에서 그대로 추슈홀 줄 알앗더니 비방울만 썩 썩러지면
동리 놈의 소를 내 소갓치 끌어다가라도 선등 모를 냇지 중등도 안이혔다,

「그러면 모를 제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과 달은 눈으로 옮겨 심는 것과 엇던 것이 잘
뉘더닛가,(1909. 10. 27)

(十二) 「너 나다려 농리를 몰은다더니 네가 참말 몰은구나 모 안이 내교야 배가 잘되
는 것 보았냐 비단 모뿐이라 각색 과실 나무도 모를 내거나 접을 붓치거나 하여야 무성하
게 잘 되지 안이 흐느냐,

「에그 더것 보아 샌님이 물을 것 업시 다 알으시기는 하시면서 말삼은 절벽갓치 하시네
곡식이나 과목의 모내고 접붓치는 것만 그러코 사람은 모 줌 못내고 접 줌 못붓치는 줄 알
으심닛가,

「이에 별소리 다 드렀다 사람을 엇더케 모를 내고 접을 붓친단 말이냐,

「사람 모내고 접붓쳐서 무성하게 잘 된 것을 말삼홀 것이니 제 말이 거짓말인가 드려보
십시오,

「엇의 드러보자,

「가랑 시골 자식을 서울로 대려 가면 모내는 것 안임닛가,

「그와 방사하지,

「이 사람의 자식으로 더 사람의 자식을 삼으면 접붓치는 것과 일반이 안임닛가,

「그래서 어지간한 말이거니,

「제가 이번에 장가를 들어 아달 하나를 썩 낳커던 날마다 분 세슈 식이기로 한 일을 삼
아 득거은 가족이라도 외점백이 대모퉁듯 색깔이 말숙하게 길너 내어 남의 눈에 아모쥬록
공명골로 보이도록 홀 터이올시다,

「올치 웬만치만 생긴 자식이라도 잘 비다듬어 주면 향결 낮게 보이나라,

「그리고 서울을 슬쩍 올라 가서 지금 일으면 ○○○대감 ○○○대감갓치 아달이 업셔
양자 구하는 니를 듯보아 송아치 발이나 업셀 세움잡고 은근히 사면 련줄을 노아 양자를 하
라 흐거던 괴어히 내 자식이 술양하야 가도록 주션을 홀 터이올시다,

(十三) 「양자만 주면 무엇하니 네게 무슨 곡괴 잇술야 네 말드러라 복촌 언의 대감은
안성골 생원님 아달로 심여 세가 되도록 가가뉘사다리 한 자 못배오고 날마다 뒤동산에 올
나가 등걸 파오기로 생애를 삼는데 얼굴의 눈물코물 흘은 자리가 줄줄이 잇고 목아지가 솟
건이 마들 존장치게 되고 복두 갈고리 갓흔 두 손은 감아귀가 사촌 계모라고 홀만치 추하더
니,

「그래서요」

「별안간에 생수가 썩어 썩어 흐노라고 ○○대감이 아달이 업서 항렬만 취하야 양자를 해다가 광통 다리에서 연계되듯 자두자족을 멀것케 씻기고 비단 의복을 철 갖초아 입혀 가며 독선생을 안치고 글을 가라쳐 서사통정은 반반이 흘만치 되었는데 지금판에 종이 잇는 문동이라도 세력만 도르면 못홀 청환업시 다하는 터이라고 자식을 과거를 식인다 당상을 식인다 불만 삼십여 세에 직품이 아경까지 되고 형세가 갑부가 되었구나」

「그것 보십시오 좀 좃습닛가 양자 보내는 것이 달은 일 바라는 것이오닛가 그러케 잘되는 자미 보자고 보내지요」(1909. 10. 29)

(十四) 「글세 잔소리 말고 말을 드러 그러케 잘 되었으면 제 생가 아비나 형을 잘 살도록은 못하남아 온정이나 보존하야야 홀 터인데 그 자식은 오날 개고리만 알고 어제 올창이는 몰오는지 제 생아비가 보러 오면 의관 범절이 초라한 것이 창피하야 시골 먼 촌일가 왔다하고 제 형이 오면 저는 비단 발막을 죽죽 두고 신으며 제 형은 석새 집신을 신고 단이게 내버려 두며 내려 간다 하면 밥 한 상 거리 간신히 될만치 백전 서 품쯤 주고 불량한 말로 서울은 무엇하러 필적 올라와 핀잔을 주어 내리 쫓더라 그것이 매오 재미도 잇겟다」

「그런 자식이 그러치 다 그러하남더닛가」

「너 또 드러 보아라 강원도 었던 사람은 자식을 경제 상가에 양자곳 보내면 생수나 털럭날 줄 알고서 좌청우촉하야 보냈더니 그 자식이 한 때 될 팔자로 세도 재상에게 썩 긴히 뵈야 벼살을 사다리 올으듯 하였구나」(1909. 10. 30)

(十五) 「그것 보시오 그런 슈가 업지 안아 잇답니다 쌀 식집 보내고 묘화 생기기 바라는 것보다 여복 도흠닛가」

「이에 철업는 말 말고 내 말을 더 드러보아라 그 자식 잘 되었으면 제 생가도 잘 되게 하야야 도리상에 당연홀 터인데 세력을 빙자하야 제 생가 불알 슈효대로 벼락 감투를 씌워서 여간 박토 마직이 송이지 바리를 모조리 할타 먹으면서도 생색은 비마진 룡대고 내어 세듯 하기를 인제는 토반이 사부되었나니 더 드릴 것을 덜 드렸나니 하고 시골서 근농하고 포실히 지내던 제 생가 대소가 기동 뿌리를 썩 솟쳐노아 다 빌어먹게 만드려 노앗스니 그것이 그리 소원이나 너도 그런 일 거울삼아 철업는 경륜말고 쌀이나 낫기를 기대려 호색하기를 ○○대신갓하니 첩이나 주어 오장을 북재 썩아 내야다가 한 밋천 잡아 보아라」

「생님은 하나만 알고 둘도 몰오십니다그러 아달 양자 주고 잘 된 사람은 다 몰오시고 결단난 것들만 알으셔요」

「이에 양자 주고 덕본 사람이 누가 잇더란 말이냐」

「잇다 뿐이오닛가 생님이 북촌 재상의 리약이를 하섯스니 나도 북촌 재상의 일을 말삼 하오리다」

「북촌 누구란 말이냐 었의 좀 드러보자」

「지금 썩썩우는 ○○랑반 몰오심닛가 그가 어려서 형제가 동문밖 었의서 살 때에 엄동 설한까지 배중의 적삼을 썩입고 동리집 나무 바리 말 곱비를 끌어주어 밥술을 었어 먹으니 그 쌀이 오작 하였습닛가」(1909. 10. 31)

(十六) 「아궁이에서 굴너 다니던 불땀이 모양이더니 ○○대감 혼참 세도 당년에 족자로 양자를 훔쳐 왔는데 오늘날 엇더케 되었습닛가,

「잘 되었지 벼살도 분수에 업는 청환을 훔쳤고 근래는 누어 먹을 팔자로 적지 안인 월공을 독집이 팔이 잡아먹듯 넘신넘신 잘 먹고 지내는 모양이더라,

「그 덕에 생가는 엇더케 되었습닛가 개 본 괴양이 화상갓흔 그 아오도 대신 혼 방석 맛을 제법 보았스니 양자 쥬어 슈나지 안이 힘습닛가,

「그런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 사람마다 그럴 줄 아나나,

「또 말삼 드르십시오 사동 근처 ○○대관은 성을 잘 타고 나서 세도 량반의 집으로 양자를 오더니 자기도 첩을 들식 셋씩 두고 세상 호강을 다 훔쳤스려니와 그 생가 썰거지를 초사 혼아식이라도 다 식이고 밥덩이를 어더 먹을만치 다 작만하게 훔쳤스니 그는 엇더흠닛가」(1909. 11. 2)

(十七) 「이애 네 말을 드르니 엇구슈 하다는 아달을 하나 나서 양자를 쥬라 혼대도 맥마님이 단산혼지가 십 년이나 되었스니 될 슈가 잇서야지,

「샌님 지체는 썩 도호신 량반이시지요,

「내 지체가 남 불지는 안이 하나 근래에 벼살은 못하고 시골 구석에서 푹푹 썩엇지마는 ○○공 사손으로 그 사당을 내가 뵈시고 잇는 터이다,

「그러면 샌님 생슈가 나시라면 어렵지 안이 하시겟습니다,

「이애 엇더케 하면 생슈가 나겟는야 족하팔 식집 보내고 도화 생기기를 기대리는 것보다 나올 도리가 잇겟나나,

「낫고 말고오 족하사우 덕에 잘되라 하는 일은 대경대법이 못되는 일이니 만에 하나 되기도 극난홀 썩더러 텨우신쥬하야 거 누구 모양으로 소원성취된다 해도 입 가진 사람은 지어부지간에 모다 욕을 홀 터이지마는」

「그야 욕하는 저의 입 드립지 욕먹는 구멍 엇의 잇더나 그러나 나 역시 사세부득이혼 경륜이다 그보다 나은 일이 무엇이란 말이나 드러 보아서 뵈듯만 하면 래일은 갑산을 가더라도 시험하야 보고 말겟다,

「샌님 이 일은 성사곳 하면 업던 자손도 생기고 간구하던 가세도 부요하고 못해본 공명도 훔실 것이올시다」(1909. 11. 3)

(十八) 「이애 덩녕 그럴 일이 잇단 말이나 어서 리약이 해라 드러보자,

「그런 리약이를 홈부루 해요 술 한 톱을 톱톱이 먼저 하십시오 가라쳐 드릴 것이니,

「술 한 톱을 하다 썩이나 택으로만 가자 내 친기에 쓰자고 버리 혼 되 버무려 녀은 것이 거진 괴엿겟다 웃국으로 몇 사발 걸너서 모자 쟈고 양껏 먹어 보렴으나,

「제가 몸은 이러해도 입은 다방골이 되야 참살 체바지 안이면 입에 대본 적이 업는 대 버리 탁박이 엇어 먹으러 가던 서울 안이 가고 택에를 내려가요,

「압다 그놈 입은 데오 되다 잔소리 고만두고 리약이나 진작해라 드러보자,

「샌님 톱은 고만두고 이 다음 잘 되여 가시더라도 저를 잊져 바리지나 말으시랴오,

「잇줄 리가 잇나나 우리 사촌 룽촌은 잇줄지언뎡 너는 명심불망하지,

「그럴 터이면 가라쳐 드리시오 샌님 ○○○ ○○○가 엇더케 되었습닛가」
 「혼줄나게 되었지 그 사람들이 본래 미천한 사람으로 세력도 도쿄 벼살도 기막히게 잘
 하였는걸」
 「그 사람들이 그뿐 안이라 량반도 독서실 갖치 도화질 줄 알으심닛가」
 「이에 그것은 안이될 말이다 제가 몇득이 혼 철로 부루되기는 하였지마는 량반이야 근
 본 업시 생심되여 불 슈가 잇겟니」
 「○○는 아모 자손이 되고 ○○○는 아모 자손이 되야 제법 혼다 혼는 사태 후 량반님
 네와 네나드리를 홈부루 혼답니다」(1909. 11. 4)
 (十九) 「이에 ○○○는 아모 자손으로 양자를 드러가고 ○○○는 아모 자손으로 양자를
 갖던가 그리치만은 내야 나이 만아 양자 갈 슈도 업고 쏘는 양자 안이 가기도 내 량반이야
 너도 알다십히 엇던 놈 밋헤 들겟나나」
 「누가 샌님다려 양자를 가시람닛가 양자보다 혼칭 칫드려 양부를 가보십시오」
 「에이 시럽슨 자식 양부 가는 일이 레법에 엇의 잇더냐」
 「압다 레법은 데차즈심니다 ○생원은 아모 명현 사손으로 불철지위 그 사당을 행담 쪽
 에다 집어 너어 시렁 우에다 언져두고 일 년 일도 괴신이 돌아와도 거풍 한 번 못 식이고
 쇠옹도리 울녀 먹듯만 혼던니 ○○○가 량반에 허욕이 쑹구멍에서 목구멍까지 치뺏쳐서 양
 부루 되셔다가 큰 사랑에다 올케 되셔 두고 일변 초사를 식인다 일변 가자를 식인다 지금은
 대감까지 되었습니다」
 「그것 참 생슈 낫구나 아달 엇고 벼슬하고 이에 그러면 재물도 자괴 것갓치 쓰라면 쓰
 겐구나」
 「여부가 잇나요 생슈가 단 벌로만 날 줄 알으심닛가 몇 해를 두고 밥내 국내 한 번 못
 쏘야 보고 솔독이 모양으로 말으기만 혼던 몇 대 신쥬가 사망일과 괴신에 느러지게 재를 밧
 아 먹는데오」
 「한 가지 일 잘되는 서실에 세 가지로 세 음평이 피엇군 첫재는 조상이 풍년을 만나고
 둘째는 재 몸이 룡이 되고 셋재는 자식을 슈고 안이하고 엇엇구나 이에 나도 그럴 자리만
 하나 잇고 보면 발빳토 드러서 보겟다 그때 가서야 형슈 마님은 아달을 낫커니」(1909. 11.
 6)
 (二十) 「쌀을 낫커니 낙태를 혼거니 누가 알뻬대이 잇너냐」
 「샌님 심사도 말삼 안이올시다 돌아만 가시면 되실 것 혼 가지가 꼭 잇습니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된단 말이나 학타고 단이는 신선이 되겟니 비쥬러 단이는 룡이 되
 겐니 나는 신선도 실코 룡도 실코 그져 살아 생전에 잘 먹고 잘 입고 호강이나 실컷 해 보
 앓스면 도켓다」
 「아모렴 잘 잡숯고 잘 입으시고 팔자 도깨 호강하실 것 되시지요」
 「너 불기 만이 맛겟다 그제 무엇이란 말이나 그러면 나는 오늘이라도 죽겟다」
 「제가 본래는 아모리 상놈이라도 것목 량반은 되어가는 터인데 초록은 일색이라고 동시
 량반에 불기를 때려오」

「네가 량반될 운동은 하나 보다마는 아주 망에도 울리지 못했슬 뿐외라 량반은 량반이
불기 때리지 못하느 줄 아나나,

「량반되고 었던 못생긴 것이 불기를 셋달 그믐께 흰떡 치듯 철석철석 맛고 단이드란 말
삼이오,

「지금은 개화판이 되야 동지팍죽 쉬듯 아쥬 썬서 드러 안젧다마는 남촌 ○○○씨는 선
비 때부터 북촌 당시 권문예를 단이면서 주인의 보비위를 호노라고 별별 천루흔 짓을 다하
다 못하야 밧삭말은 엉덩이를 싸고 업드려 전반불기를 시시로 맞더니 그 덕에 벼살을 엿어
하야 일품재상까지 되엿단다」(1909. 11. 7)

(二十一) 「량반은 불기를 맞져도 운동 속으로 맞습니다그려 저의 갓흔 상놈이야 불기를
맞지 말고 때여내기로 소용잇습닛가 더구나 샌님에게 불기를 맞즈면 한갓 내 살 압홀 뿐더
러 원만치 하던 행세가 혼칭 더 띨러질 터인데오,

「이에 내가 시럽슨 말이다 꺾자는 너를 불기 때릴 리가 잇나나 그러나 네가 괴왕 이번
에 서울을 간다니 나와 성 갓흔 사람 중 근본은 개백영일지라도 지금 판에 잘된 자를 듯보
야 양부로 나를 뵈셔가게 주션 좀 하여 주렴으나,

「격정 말옵시고 어서 장애나 가시오 오래지 안이 하야 장 파하겠습니다,

「장 파하면 관계 잇느냐 내 일은 너만 밧고 장도 안이 보고 집으로 돌오 가겐다,

「그러면 산괵은 안이 사가시렴닛가,

「산괵 못사면 시랙이국은 엿덜 것 잇니 미역국 안이라고 나아오던 아해가 돌오 드러갈
까,

「그러나 샌님게 엿주어 불 말삼 한 가지가 잇습니다,

「무슨 말이나 나아는 더로는 일너주지」(1909. 11. 9)

(二十二) 「제가 이번 장가에 아달을 정말 낮케 되면 그 자식은 꼭 양자를 주여 량반을
만들고 말 터인데 글을 불가불 가라쳐야 되지 안이 하겠습닛가,

「그래서,

「그 자식 글을 가라치자면 샌님갓치 늣슈구래흔 선생을 집에 안치고 가라칠가오 읍내에
잇는 학교로 보내여 가라칠가오,

「이 사람 학교에서 아해들 공부되는 줄 알았나나 공부는 커녕 막건니도 못되고 맞치 자
식 버리기는 썬 알마즈니라,

「왜요 서울 갓다가 여러 사람에게 드르닛가 자식을 학교에 안이 보내면 제 나라도 몰으
로 제 집도 몰으는 야만이 된다고들 하던거리오,

「이에 너 그 말을 썬 곳이 드렀더나 정신 좀 차려라 지금 개화판이 되야 인심이 어슈록
흔 구석이 업스닛가 엿어 먹을 도리가 업셔 학교를 설립하느니 교육을 확장하느니 하고 그
사품에 월급 푼나나 맛을 보라고 그리하느 것이지 아해들 공부가 더 되야셔 그리하느 줄 안
나나」(1909. 11. 10)

(二十三) 「학교에서는 공부가 무슨 곡절로 안이 되나요,

「아해들이라는 것이 의례히 글 읽기를 실여힘으로 선생이 마쥬 안져 자자이 알아 듯도

록 일너쥬고 시시로 강을 밧아 순통호는 아해는 장원례를 종종 식여 기운이 나게 호고 불통호는 아해는 풍아리를 획획 갈겨 정신이 번쩍번쩍나게 호여도 작난 심호 늬은 틈틈이 찌져나아 가는데 소위 학교라는 대는 칠팔십 명 슈백 명을 호 곳에다 몰아 너코 교사 명색이 무엇이라고 호 마디 썩 질으면 장마 때 맹쑥이썩 모양으로 그 여려 늬이 찌드러 노으니 제가 무슨 정신으로 괴역을 호겟나냐,

「그래도 그러치 안이 호가 봄되다 학당에서는 글 호 가지밧게 더 못배와도 학교에서는 십여 가지나 배온다는 걸리오,

「그것이 안이될 리치지 어린 것의 정신이 호이 잇는데 호 가지식 호 가지식 차차차차 가라쳐도 될지말지 호데 십여 가지를 호거번에 가라쳐 노으니 말총으로 콩 역는 모양이지 호 가지나 부지호겟니 그 중에 시간을 덩호야 글은 괴뻘만치 가라치고 테쥬니 운동이니 공차기니 호는 각색 작난거리를 일부러 식여노아 날마다 가루썩고 세루썩기로 종사를 삼으니 그 자식 발농질이 되기는 썩 알밧고 여간 배운 것조차 쑥구멍으로 다 썩 모양이지」(1909. 11. 11)

(二十:) 「그러면 샌님 생각에는 엇더케 호여야 쥬켓습닛가」

「나다려 무를 것 무엇 잇나 생각해 볼 일이지 내가 비유로 말 호 마디를 호를 것이니 드려보아라,

「무슨 비유란 말삼이오」

「너 용정호야 보았지 가랑 배를 호 개만 손톱으로 찢스면 당장에 쌀이 될 것인데 호 절구에다 슈만 개를 몰아너코 찢는 까닭에 호동안 팔이 늘어나도록 공이질을 해야 비로소 쌀이 되지 안이 호나냐 그와 갓치 자식 호 늬만 압해다 안치고 손톱으로 배 찢듯 단독호게 가라쳤스면 얼마 안이되야 공부가 잘 될걸 학교에다 몰아 너어 노코 그 모양으로 가라치니 줄연이 공부되겟나,

「글세요 어지간호 말삼이거뇨」

「어지간만 해 썩 올은 말이지 두 말 말고 너의 문썩방에 호질이나 새로호고 상업지 안이호고 글 잘호는 량반 호 분을 뵈셔다가 독선생으로 네 아달을 가라쳐라,

「엇던 량반이 잘 가라칠만 호닛가 천거 호 분 호십시오 그라」

「쥬키는 더 구호를 것 업시 내가 쥬타마는 네 마암에는 엇더호닐는지」

「샌님도 딱도 호셔라 샌님은 공명호러 상늬 아달에게 양부를 가시라면서 제 집에 와 학구질 호시람닛가」

「압다 이 사람이 양부되야 갈 제 가더래도 아쥬 가기 전에야 못호를 것 잇너」(1909. 11. 12)

(二十四) 「샌님이 가라치면 일동일정을 샌님을 달물 터이지오」

「아모렘 범연호겟나냐 나 아는 대로는 다 가라쳐 쥬지」

「그러면 제 집에도 샌님 호 분이 생기겟습니다」

「어- 이에 그제 무슨 소리란 말이나 찿치호면 량반 육호겟다」

「육이 안이라 샌님게서 학문이 고명호시고 범절이 출중호셔서 경향간 명례가 자자호면

이 때까지 더 모양으로 샌님으로 계셔서 상놈의 양부갈 경륜을 하시겠습닛가 저의 갓혼 상
놈의 집에서 량반이 되라면 샌님 몇 갑절되게 가라쳐도 샌님 분수가 될지말지 혼디 샌님이
가라쳐 내시면 무슨 꼴이 되겠습닛가,

「어- 량반이 육보앗구 네가 자식을 당장 가라쳐 달나기로 팔시홀 슈 업서 네 말 좀 드
러 보자고 스럽신 소리지 볼 일 बात 터에 네 집에 학구질 가겠나나,

「글세요 샌님의 선생질을 흐러 오신대도 아즉은 뵈셔갈 슈도 업습니다 한 십 년 후에
다시 공론하십시다,

「엇지해 십 년 후란 말이나 글을 안이 가라치면 몰오거니와 이왕 가라칠 터이면 이 밥
분 때에 천연세월을 혼단 말이나,」(1909. 11. 13)

(二十五) 「샌님 구구하실 줄 알으십닛가 만일 알으시거던 회계 좀 해보십시오 올에 재가
장가를 들면 래년쯤 태기가 잇서 후년이면 순산을 하고 후후년이면 첫돌이 되고 서너 살 잡
아들면 말하기를 시작하야 대역섯 살이면 제법 짓거릴 것이오 그후 이삼 년은 더 지내야 입
학을 안이 식이겠습닛가 그 동안이 도합 몇 해가 되겠습닛가,

「그만 구구를 못해서 한동안 신고를 하나나 세네 살이면 합하야 일곱 살이 될 것이오
더섯 살이면 합하야 열한 살이 분명하고 두세 살이면 합하야 다섯 살이 될 것이니 도합이
스물세 살이니 그 때는 내 나히 한갑된 사람을 선생으로 더우홀만 하겠스니 귀 어둡고 눈
어둔데 무슨 근력에 학구질 단이겠나나,

「샌님 세움치시는 것 뵈오닛가 산술을 만이 배오섯습니다 달은 학문도 그만치나 배오섯
습닛가,

「달은 학문은 산술만은 못홀 뜻하지마는 통감 초권까지는 책 덩허 노코도 가라칠 만하
지,

「제 길이 밧바 더 말삼 못하섯습니다 샌님도 어서 장보러 가십시오 저는 갑니다,

「네가 총총치 아니 하얏드면 나는 장은 못보드래도 재미잇는 이악이나 얼마쯤 더 해볼
걸 이에 섭섭하고나 말고 잇다가 줌어니에 돈 혼 푼 업지 너 로자돈이 넉넉하거던 술이나
한 잔 갓치 먹자,」(1909. 11. 16)

(二十六) 「로자돈을 가지고 길을 단이라다는 생전 나서 보지 못하계 저는 일 년에 몇
번씩 서울 단이노라고 과객질 졸업을 힘습니다 샌님계서는 장으로 흥성하러 가시는 길이닛
가 돈을 좀 가지섯습니다 그 돈으로 주채나 하시고 흥성은 외상으로 엇어 가십시오 그라,

「언제는 내가 돈 가지고 흥성단이는 줄 알앗던나 평생 외상 흥성으로 이만치 지내는 터
인데,

「저는 떠남니다,

「나도 간다,

「안녕이 행차합시오,

「오나 잘 가져라 아차 이에,

「네 무엇을 잊으섯습닛가 아달 부대 나라는 당부하시람닛가,

「너 아달 낫는게 내게 무엇이 그리 긴해서 그리겠나나 내 일 당부하라고 그리히다 이에

부대 웅 혼 곳 듯보아라」

「듯보다 썩이오닛가 아해놈들이나 혼 혼 이십 명 모아 노코 식은 밥 잘 먹는 몽학 선생
구 혼 대가 잊거던 밤도아 괴별 혼야 드리시오」

「안니다 문동답서를 혼 구나 세력 도쿄 웅」

「네 세력 도쿄요」

「또 재산 만든 데 웅」

「네 재산 만든 데요」

「량반만 못되야서 량반 아비 구 혼야 가라는 자가 잊거던 웅」(1909. 11. 17)

(二十七) 「샌님은 말삼 몇 마디에 웅 소리 썰 노오면 업겟습니다」

「이에 웅 소리 속에 별별 뜻이 다 있나니라」

「그러면 웅이라는 웅자가 무슨 비결이오닛가 만일 비결이거던 홈부로 쓰지 말고 꼭꼭
봉해 가지고 서울을 가십시다 생수가 더럭 날 것이니」

「생수만 날 것 같으면 내 속에 정감록 혼 권이 다 드러 있스니 방법만 일너다고 서울을
가다 썩이나」

「샌님은 동시 량반에 량반의 사적을 그다지 몰오심닛가 재동 ○○○대관은 당초에 동대
문 안에서 과목장이 노릇을 해먹고 지내다가 비결 혼 구결 잘 풀고서 공명도 혼고 부차도
되고 오늘날 대신까지 안이 혼얏습닛가 샌님도 비결만 묘하게 풀으실 터이면 족혼쌀의 덕도
발아지 말고 양부 같 생각도 말고 쥬 모양으로 자식 나서 양자 줄 경륜도 말고 서울만 가십
시다」(1909. 11. 18)

(二十八) 「오나 그럴 터이면 가기는 가 보자만은 이왕 천재일시로 혼 번이나 되엿지 번
번이 되기를 밋을 슈 잇겟넹」

「비결만 영결시럽고 신통시럽게 썩이기만 혼실 슈 잇거던 ○○○대감 모양으로 이리고
더리고 해보십시다그려」

「이에 이 동안 서울 소문을 드르닛가 전후 잡술객이 장마물에 소비물너 나아가듯 소리
를 샅해다 끼고 쥐구멍을 모다 찾는 모양인데 공연히 셋부루게 어루대다가 상말로 썩도 썩
갓치 못해먹고 가마만 썩트리기로 엿의가 죽는지도 몰으고 죽계」

「집이 더리 만코 무슨 경륜을 혼시랍시오 곤닭의 알지고 성 밋혜는 못가시겟습니다 그
만 일을 더리 겁을 내어서는 안동 ○○○대감 모양으로 사쥬전은 썩 못혼겟네」

「이에 그제 무슨 소리냐 그 대감이 요사이 방장 사쥬전을 혼단 말이나 그럴 말이면 나
도 가서 혼 다리 썩어 보겟다」

「그런 귀는 샌님도 어지간혼게 밝습니다 그 대감이 당오전 새로 낫슬 썩에 동문안 ○○
○를 식여 푸지게 혼 번 잘혼고 닷을 썩 감고 시침이를 썩 썩엿담니다 그 일을 누가 별로
알기나 헛스며 비스듬이 알았기로 지금이야 혼적업는 일을 무엇이라 홀 사람 잇습닛가」

「그 일을 혼자면 밋천이 얼마나 들겟넹 나도 그 경륜을 해 볼가 보다 네 뱃 속에는 생
슈날 계교가 그들먹혼고나」(1909. 11. 20)

(二十九) 「밋천 얼마 안이 들지오 괴계나 두어 채 혼 이만여 금식 쥬고 사고 동이끼로

등물이나 전만엿치 작만하야 댁을 뒤 갖흔 동산 밋해 움이나 김숙히 못고 숙슈장이 다식박
듯 쑥쑥 쉬지말고 혼 달포 박아 냇스면 ○○○대감 불지 안이호게 썩썩거리고 지내 보시리
다,

「이에 그러치마는 나는 겁나서 그 일 못하겠다 루동 ○○○랑반은 쌍을 팔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시작흔지 몇칠이 못되야 별순검에게 들키여서 드러판을 하얏스니 그는 세력이
어지간하닛가 패가만 하고 자기는 아모 일 업섯지마는 나갖흔 무세축이야 그 디경만 되면
는 마지막이 밋 날갈이가 다 날아갈 것이오 청바지 저고리를 면해 불 장비의 아달이 잇겠나
」

「샌님 된 슈 혼 가지가 잇습니다,

「거- 무슨 슈가 쑥 된 것이 잇겠나냐,

「두말 말으시고 이번에 서울로 가서서 동서남북촌 사면 슈소문하야 그 중 령하고 쇠소
리나는 무녀를 차져가 보시고 슈양 아달을 덩하십시오,

「슈양 아달이라니 내 나이 오십 당년인대 슈양 어머니 벌이 되라면 룽십이나 칠십이나
된 무녀라야 될 터이니 무녀라는 것은 절머야 명사자가 놓지 늙은 것이 소용 잇다더냐 슈양
모자를 덩히다가 공연히 량반이 육만 보지 소용이 잇겠지」(1909. 11. 21)

(: |) 「넌괴가 틀니거던 슈양 남매는 못덩하십닛가,

「이에 모자고 남매고 조손이고 다 관계홀 것 업시 슈양을 덩하면 무슨 슈가 나겠지 누
가 시험흔 사람이 더러 잇더냐,

「잇다 썩이오닛가 샌님은 음숙에서 계섯슴닛가 세상 소문을 그다지 못드르섯게 자글구
러하게 슈 난 것들은 고만두고 그 중 굴직굴직하게 슈난 것들만 대강 말삼홀 것이니 드러
보십시오,

「오나 드러 보자 리약이만 해라」

「북촌 ○판서 ○참판 ○승지 ○관찰이 무엇으로 그러케 되엿슴닛가 북묘에서 혼턴동디
하던 진령군의 아달 오라비 손자 노릇을 하고 그 모양으로 슈가 낫고 ○대신 ○협판 ○국장
○군슈는 무엇으로 그러케 되엿슴닛가 삼천동 유소문하 슈련의 아달 오라비 손자 노릇을 하
고 그 모양으로 슈가 낫스니 샌님게셔도 그짜위 하나를 차자 보시고 아달이 되던지 오라비
가 되던지 손자가 되던지 창피흔 것 생각말고 눈 혼 번 씩씩하십시오그러,

「이에 큰일 날 훈슈도 한다 너 대한민보라 하는 신문 못보앗지,

「왜요 대한민보에 무슨 말이 잇기에 그리하십닛가,

「신문이라하는 것은 사면 덩탐을 느러 노아 선악간 남의 말을 일슈 잘내는 것이라더라
마는 압다 대한민보 무섭더라 짜대 혼 번만 잘못하면 일호 사정업시 사뭇 두들기는 통에 근
일에 소위 대관 중에 아침하고 탐오흔 것들이 모조리 박살 안이 당흔 자가 업다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나도 그 공명하계」(1909. 11. 23) (完)